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지방강점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최창: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3월 1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1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종단간 불화'

한국불교계에는 종단협에 소속된 25개 종단외에도 종단총연합회의 53개 종단과 군소종단 즉, '나 홀로 종단'들을 합치면 1백 여개에 달하는 종단이 있다. 각 종단들은 각자의 종지와 행정체계를 갖고 불교 신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창종됐다. 그러나 이해관계와 실리적 이득에 따라 분종을 거듭하면서 양산된 종단도 많아 종단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불제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종단이 난립하다보니 종단간 불협화음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등 4대 종단이 부상하는 가운데 여타의 종단이 위축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5개 종단이 모여 종단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계의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 추진하기 위해 결성한 종단협의회 조차도 97년도에는 종단진흥회로 양분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또 지난해에는 그동안 관례를 깨고 조계종이 단독 주최로 봉축행사를 개최해 불자는 물론 국민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었다.

종단 1백여개
'일불제자' 무색

이런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실리 챙기기에 급급해 '우리 종단'만을 생각하는 모든 종단의 공동 책임이다. 또 종단 위상을 확고히 다진 종단이 그렇지 못한 종단보다 적은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각 종단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지만 세속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利)를 위해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종단을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승가가 자신의 이(利)를 떠나 이타적인 집단이라는 의미를 보다 반듯하게 세워 종단마다의 종풍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각 종단간의 화합과 불교발전이라는 큰 문제를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하셔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금강산 신계사 복원 '눈앞'

현대 · 불교계 추진…북한도 '연내착공' 긍정반응

금강산 지역의 폐사지 신계사와 유점사 장안사가 복원될 계획이다.

금강산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의 계열사인 (주)아산의 김고중부사장등 실무협의단은 2월 22일 북한측 조선아세아태평양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신계사 등의 복원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고중 부사장은 11일 "북측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며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불교계와 폭넓은 상의를 통해 복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부사장은 또 "이미 북한측에 신계사등 사찰 복원승인을 공식 요청했으며 북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현대는 북측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내 불교계와 협조해 복원불사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현대측과 불교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는 신계사 등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은 "그간 현대측과의 접촉을 통해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며 "올해 내로 신계사에 대한 복원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도 "아직 현대측의 협의나 제안은 없었으나 복원불사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현대측은 불교계와 협의를 거쳐 금강산 관광코스에 포함된 신계사를 우선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사터는 금강산 구룡폭포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본지 180호 11면 참조〉

신계사 복원과 관련 평불협과 현대측은 19일 만나 향후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통일부의 관계자도 현대가 북측과 협의하고 불교계와 사업 절차를 기획하는 등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세울 경우 사업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전남 보성 대원사에서 10일 조선 영조대의 옥불좌상 110구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중기 천불좌상 110구 발견

보성 대원사서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에서 조선 중기때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옥불좌상 1백10여구가 두상과 몸체가 떨어진채 출토됐다.

대원사는 10일 오전 11시께 굴착기를 동원해 경내 수로정비작업을 하던 도중 각기 모양이 다른 30㎝ 크기 좌불 1백10여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지 현장스님은 "조선 영조때 나한전과 천불전, 지장전, 극락전 등을 중창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모셔진 천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들 불상은 일제 강점기 또는 6·25사변 당시 사찰 화재 때 스님들이 묻은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문화재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정확한 발굴경위와 제작연대 등을 조사중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6월초 1천여불자 금강산순례

종단협 · 조계종,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등 추진

1천여명의 남한 불자들이 북한의 불자들과 더불어 금강산에서 합동법회를 갖고 신계사터에서 약식 법회도 봉행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조계종은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순례를 6월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관련 종단협과 조계종은 10일 오전 현대상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서 현대상선은 관광단 인원이 8백명을 초과할 경우 1인당 25만원 가량씩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 할인요금 전액은 북한동포돕기 사업기금으로 쓰인다.

조계종 사회부는 공동발원문을 채택하는 남북불자 합동법회와 신계사 약식법회 개최 문제를 두고 빠른 시일내에 조선불교도연맹 및 총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조불련, 남북불교 대표만남 제의

조계종을 비롯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조국광화통일불교협회, 진각종이 2월26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으로부터 29일부터 4월3일에 걸쳐 개별 회담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29일에는 불추위 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과 사무총장 유지원씨가, 4월 3일에는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은해사 주지), 4월 5일에는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이 잇따라 베이징에서 북한 불교계 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필선 기자

올 연등축제 5월 16일

우정국로-거리축제, 동대문운동장-법회


◇연등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서울시 특성문화제 확정

조계종 봉축위는 올 연등축제일을 5월 16일로 정했다.

조계종 봉축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우정국로를 중심으로 거리축제를 열고 오후 4시부터는 동대문운동장에서 법요식 식전행사를 오후5시 봉축법요식, 오후7시부터 제등행렬을 각각 봉행키로 했다.

봉축위는 연등축제 포스터를 제작하고 각종 봉축행사를 점검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은 올 연등축제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실추된 종단과 불교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기위해 보다 축제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4일 연등축제를 서울시특성문화제로 확정하고 조계종 봉축위에 행정적 지원을 폭넓게 하기로 했다.

임연태 기자

日 오부치총리 21일 해인사 방문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해인사를 방문한다.

정부는 12일 "오부치총리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해인사를 방문, 팔만대장경을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해인사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부치총리는 19일 방한해 21일 해인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조계종과 해인사는 "오부치 총리의 방문을 환영하며 정부측과 의논해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종단대표 1백여명 23일 청와대 오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대표를 초청하는 청와대 오찬이 23일 열린다. 청와대측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100여명의 불교계 종단대표를 초치했다.

이와관련 종단협은 문광부와 참가자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소쩍새 마을에 연등을

조계종 사회복지 법인 승가원이 운영하는 원주 치악산 소쩍새 마을. 이곳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부랑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들 3백여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소쩍새 마을은 현재 강원도 횡성에 새로운 보금자리 승가원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소쩍새들의 보금자리 건설불사는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불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합니다.

올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본사는 승가원과 함께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밝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소쩍새 마을에 자비의 등 하나를 밝혀 동체대비의 무량 복전을 일구시기 바랍니다.

△동참비: 1인1등 1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접수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음 양)
영가등도 접수 받습니다.
△접수기간: 3월3일~5월 21일
△입금계좌
- 한빛은행 059-170968-13-001
- 외환은행 142-22-01704-2
- 국민은행 093-01-0293-459
- 우 체 국 011809-0332390
- 농 협 063-01-19213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승가원 소속 스님 13분이 축원해드립니다.

'생명나눔실천' 3월 대법회

화장유언 및 사후 장기기증 서약

△일시: 1999년 3월 21일 오전10시30분
△장소: 철원 심원사

주최: 생명나눔실천회·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심원사

민족의 화합과 나눔을 위한
불교도 금강산 순례



▶ 순례기간 : 불기 2543(1999)년 6월 2일(수)~5일(토) (3박 4일)
▶ 모집인원 : 1000명 (선착순 마감) / 신청마감 : 4월 30일(금)까지
▶ 동 참 금 : 2인1실 기준 1인 요금 790,000원 (통로쪽)
890,000원 (바닷가쪽)
990,000원 (특급)
※본 행사의 수익금은 북녘 동포 돕기 성금으로 사용 됩니다.
▶ 준비서류 :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서(여행사 비치)
여권용 칼라사진 3매, 주민등록증 복사본(양면)
▶ 프로그램(예정)
—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 기원 법회(큰스님 법문)
— 문화 공연, 음악회
— 학술 세미나
— 신계사지 남북통일을 위한 기원 법회
▶ 신청문의
— 한국 불교 종단 협의회(☎02-732-4885)
—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735-5864)
— (주)반야 여행사(☎02-730-0020)
▶ 접 수 처 : (주)반야 여행사(☎02-730-0020)

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업무대행 : (주)반야여행사
협찬 : 불교신문 / 불교방송
후원 : 현대상선주식회사

사 설

승가대의 백년대계

중앙승가대학이 96년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갈수록 입학생이 줄어들다가 급기야 99학년도에는 120명 정원에 입학생이 반에도 미치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학교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예측하고 작년에 중앙승가대학의 발전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공청회를 통해 기초의무교육기관이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다 보니 종단이나 학교측에서 쉽사리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사실 중앙승가대학의 정원미달사태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문제다. 그간에는 종단내에 중앙승가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예비인원이 어느 정도 적체되어 있었지만 그 인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정원미달 사태가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앙승가대학의 입학생이 그 해 종단에 입산하는 출가자에 한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현재로서는 정원미달 사태를 해결할 특단의 방도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니다.

종단이나 학교측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처럼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대안과 집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승가교육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작업이요 불교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다. 승가교육을 소홀히 하고 불교발전을 논한다는 것은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

승려의 복장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승가교육의 방향은 붓다의 분신으로 중생 앞에 나설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면 족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중앙승가대학은 일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단이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그만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의 입학제도로는 정원미달 사태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므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이미 승려의 자격을 획득한 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장차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교육하는 기초의무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매년 전국 사원에 입산하는 이들을 등록받아 이듬해 의무적으로 입교시키면 정원 문제는 자연 해소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장차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종지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이념의 통일을 도모할 수 있고 종단적 차원에서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니 종립학교로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입산 전에 이미 대학교육을 받은 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교를 전공한 것이 아닌한 문제될 것이 없다. 일반대학을 나와 사회적으로 유능한 인물이라 할 지라도 승가의 자질을 구비하지 못했으면 그는 훌륭한 출가자라 할 수 없으니 승가구성원으로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실 승가에서는 인식과 이념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승려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일괄적으로 교육하는 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각 사원에서 행해지는 행자교육이나 수계전에 실시하는 단기수계교육으로는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없다고 본다.

중앙승가대는 그간 김포학사 건립에 많은 신경을 써 왔다. 김포학사가 완공되어 이전을 하는 시점을 또다른 도약의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교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안들을 진중하게 경청하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세를 갖길 간곡히 당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연꽃피는 금강산

승가대 신입생 '정원의 절반'

포교사회학과 · 역경학과 3명 입학
학사운영 차질…대책마련 시급

중앙승가대학교(총장 현성) 99학년도 입학생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종단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승가대에는 총정원 120명 가운데 불교학과 23명, 사회복지학과 23명, 포교사회학과 3명, 역경학과 3명 등 신입생 52명과 편입생 5명 등 총 57명이 3일 입학했다. 편입생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입생수는 52명. 이같이 저조한 입학률은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지난해 종단사태의 여파에따른 승가대 이미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학교 내외의 분석이다. 승가대는 96년 12월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후 97년 90명,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 증설된 98년에는 88명이 입학하는 등 매년 입학생 감소세를 보여왔다. 포교사회학과와 역경학과의 경우 올 한해 동안은 대부분 교양수업위주로 진행돼 어느정도 수업이 가능하지만 전공수업이 시작되는 2학년이 되면 최소정원(5명) 미달로 전공과목자체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승가대 기획실장 원종스님은 "신입생 확보, 학풍쇄신, 위상강화 등 학교에 산적한 사안해결을 위해서 교수 동문 교직자 동문회 등을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반기 중에 학교위상 강화와 장단기 발전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다시 공사에 착수한 김포학사가 6월말 완공되면 학사이전을 통한 학교분위기 전환 등 돌파구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포학사 완공후의 운영과 재정확보도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다.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승가대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조계종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종단차원에서 전 종도가 함께 고민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입생 확보와 위상강화 등 명실상부한 종립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승가대는 지난해 승가대발전공청회를 열고, 승가대를 종단 기초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탈바꿈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학교와 종단의 현실적인 노력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교계전반의 인식도 공유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일반에게 개방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승가대 설립 근본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중앙승가대는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57명이 입학한 가운데 9일 입학식을 거행했다.

'불교용어 바로잡기운동' 전개

조계종, 국어사전 검색 출판사에 오류시정 요청

'국어사전 불교용어 바로잡기 운동'이 펼쳐진다.

조계종총무원 문화부(부장 양산)는 시중에 유통되는 35종의 국어사전 중 대표적인 사전 8종을 선택의 모든 불교용어를 검색, 오류를 바로잡도록 출판사에 요청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5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8일부터 불교용어 검색작업에 들어갔다.

문화부는 4월 6일까지 아르바이트학생을 동원, 8개 국어사전의 불교용어 검색작업을 하고, 전문가에 의뢰해 초파일 전까지 검색된 불교용어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친다.

문화부는 이후 10월경 바른 서술의 예를 사전을 펴낸 출판사에 출판사에 제시해 개정출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종무실 축소반대 청와대 등 건의

조계종 · 종지협 · 교불련

문화재관리국을 국립박물관과 통합해 1급청으로 승격시키고 문화관광부 종무실을 축소하는 등 정부제2차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종무실 축소안을 반대하는 탄원서와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5일자로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종무실 축소개편안은 전국민의 50%가 종교인인 우리나라에서 종교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저버리는 처사"라 규정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도 8일 건의서를 통해 종무실의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도 10일 성명서를 내고 종무실 축소개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문화재관리국 청 승격 추진

기획예산위원회는 10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박물관 등을 책임 운영케 하도록 하는 당정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문화부 종무실장 직대 김순길씨 임명



문화관광부는 6일 종무실장 직무대행에 김순길(사진) 전 국립영상제작소 소장이 임명했다. 김순길 직무대행은 9일 조계종 등을 방문해 취임 인사를 나눴다. 김종무실장 직무대행은 고려대 정외과와 국방대학원 고려대 언론대학원등을 나와 중앙선관위 대변인, 신문행정국장, 광고진흥국장 등을 지냈다. 임연태 기자

교사불자련 · 대불련등 9개 단체 조계종 전국단위 신도단체 등록

포교원은 3일 회의를 열어 신청한 13개 단체 가운데 9개 단체의 종단등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국단위 신도단체로 등록하면 종단의 예산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9월 중순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을 포교원에 제출해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단체에는 또 8인 이내로 중앙신도회 대의원이 배정됐다.

9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대표자/회원 수)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임완숙/2천명 △대불련총동문회/임동주/8천명 △대한불교청년회/이상대/15만8천여명 △대학생불교연합회/한승희/3만명 △파라미타청소년협회/정련스님/15만명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덕진스님/2천5백명 △운전기사불자연합회/박영조/1천2백명 △대불청 서울지구/박찬웅/1천5백명 △불자교정인연합회/오희창/2천7백명.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위원장에 오현스님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5일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오현스님(신흥사회주 · 사진)을 부위원장에 자승스님(연주암주지)을 선출하고 간사에 정념스님(상원사주지)을 선임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참가했다. 임연태 기자

신도등록 우수사찰 강화 보문사 선정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은 9일 98년 한 해 동안 신도등록 및 교무금 재납부 실적이 뛰어난 사찰을 선정했다. 우수 사찰에는 20일 포교대상 시상식 때 포교원장이 수여된다.

신도등록 우수사찰은 강화 보문사(주지 향적)-661명, 우수교구는 14교구(범어사, 주지 성오)-3천5백20명, 교구무금 재납부 우수사찰은 서울 동명사 포교당(367명 전원)이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불교정보화추진위 발족

달마넷 추진본부도 4월 22일부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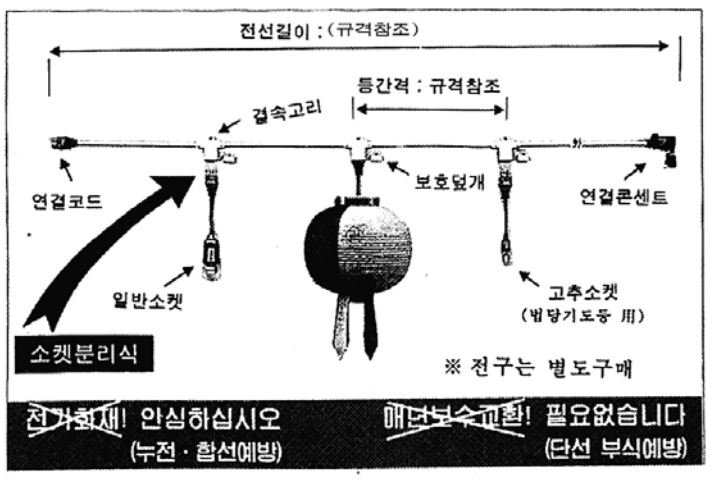
조계종과 데이콤, 이현데이타시스템이 공동 주관하는 불교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조계종은 10일 불교종합정보화추진위원회와 달마넷추진본부 발족식을 갖고 종합전산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불교정보화추진위원회는 고문단에 조계종 원로회의 및 원로급스님들을 위촉한 가운데 중앙종무기관과 각 교구본사 중앙종회 등 종단내 모든 기구의 대표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불교종합정보망인 달마넷추진본부는 기획실장 만성스님을 본부장으로 조계종과 이현데이타시스템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발족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불교정보화 및 달마넷 사업은 1천6백년 한국불교의 새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고 스스로 격변의 세계사를 주인의 자세로 맞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세기를 불교의 세기로 만드느냐 영원한 낙후로 전락하느냐는 전산화 정보화에 달려 있다"며 불교정보화 추진위와 달마넷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발족식을 계기로 조계종은 지방교구본말사의 업무전산화 작업은 연내로 실용화 하고 달마넷을 통한 종합불교 정보서비스는 4월 22일부터 개시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봉축행사 가로등 · 법당기도등用 전기배선 매직케이블 안내



전기화재! 안심하십시오 (누전 · 합선예방)
매년부속교환! 필요없습니다 (단선 부식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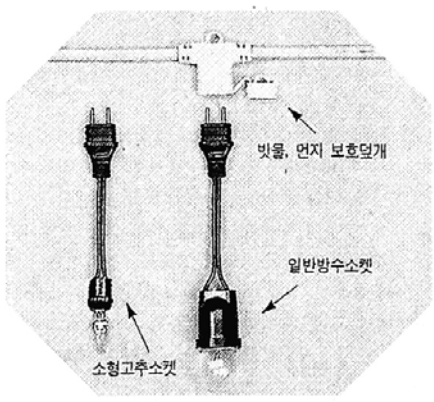
제품의 특징
· 누전 · 합선이 예방되므로 안전 하고
· 소켓이 분리되어 설치 · 수거 · 보관이 매우 편리 하며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꼽아 쓸수 있어 효율적 이며
· 단선 · 부식이 예방되고 소켓파손시 교환이 가능하므로 반영구적 입니다.

제품규격
· 전선굵기 : 2㎟, 3.5㎟(내수용) 2.5㎟, 4㎟ (수출용)
· 등 간 격 : 25㎝ 30㎝ 50㎝ 1~5M 기타사양 주문제작
· 전선길이 : 12.5M, 15M, 25M, 50M 기타사양 주문제작

"매직케이블을 구입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소켓이 분리되는 세계유일제품!

연등 用으로 특수처리(장력보완) 된 연등 전용 특수 전선임.
(일반 기성품 전선 아님)



의장원 14959호

삼정전기산업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8-3

※ 전국 각사암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 받고 있는 본 제품은
● '96년 제일안전공사에서 업계 최초로 전국 각 사암에 납품시작
'96 국제안전기기 展 히트상품선정 (납품실적 : 대구동화사外 150여 사암)
● '97년 기 제품의 문제점 (장력外)을 보완 · 개선시킨 신개발품으로 납품
'97 국제 안전기기 展 히트상품 선정 제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노동부장관상) 수상, (납품실적 : 제주약천사 外 570 여사암)
● '98년 IMF 환란으로 제일안전공사로부터, 본 제품제조업체였던 삼정전기산업에서 사업권 인수. (납품실적 : 광주 무각사 外 250여 사암)
● '99년, 삼정전기산업에서 직접제조 및 납품, 원자재 가격하락등으로 인한 제품가격 대폭인하조치 단행.
⊙ 본제품을 이미 구입하신 전국 각 사암에서 추가 구입시 특별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한번 맺은 인연은 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 구입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100% 반품 받습니다.
· 주문 접수순에 의거 계획생산되오니 꼭 미리 주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등 및 전구는 원하시면 구매 대행 써비스 해드립니다.

■ 본사 주문 및 상담전화 (032)676-8884 (代)
☎ (032) 676-8881~3 FAX 032-676-8885
H.P 016-360-3676 성 기 홍 합 장

소실문화재 공동복원 첫 사례

금강산 신계사복원 의미와 전망

문화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 기대

금강산 지역의 사찰 복원 계획은 그간 북한지역 사찰복원에 관심을 가져온 불교계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신계사 복원을 시작으로 추진될 금강산 사찰복원 불사는 남북불교 관계 향상 등 적잖은 시너지 효과도 얻을 전망이다.

의미 금강산 지역 사찰복원은 북한 지역의 소실 문화재를 남북이 공동으로 복원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사찰복원 사업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남북불교계의 관계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또 신계사와 유점사 장안사 복원에 이어 묘향산 등지의 관광개방 예정 지역에 대한 사찰 복원 교두보 마련의 계기도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회장 법타스님은 "북한내에 복원 가능한 사찰은 104개에 이르고 있어 금강산 사찰 복원은 장기적으로 이들 104개 사찰 복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 말했다.

금강산 사찰 복원은 남북 교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 따른 정치 군사적 교류의 폭도 '햇볕정책'과 맞물려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

현대가 개발의 산파역을 맡아 신계사를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금강산 관광코스에 신계사터가 있기 때문. 따라서 신계사 복원은 첫삽을 뜨는 순간부터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강산 관광객을 향한 자연스런 전법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교계의 전망이다.

배경과 전망 북측과 신계사 등의 복원 사업을 논의 하고 있는 (주)아산의 김고중 부사장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북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불교계도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사업의 추진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 밝혔다. 김부사장은 또 "이 사업은 관광개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 문화유산을 복원해 후손에 전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혔다. 현대측은 2월 22일자로 금강산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파괴를 우려해 온 조계종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업을 간접적으로 비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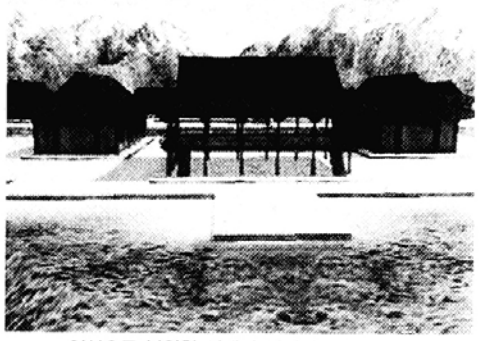
불교계도 그간 평불협을 중심으로 북한 사찰의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평불협은 98년 3월 북한으로부터 금강산 개발을 위임받은 금강산국제그룹과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합의서'를 도출해 내고 6월에는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 9월에 신계사복원 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북측의 백두산건축연구원으로부터 신계사 복원 설계도까지 확보해 둔 상태다.

평불협은 그간 현대측과 신계사 등의 복원을 꾸준히 교섭해 왔으며 19일에는 평불협과 현대측이 만나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계획이다. 또 평불협은 4월 백두산건축연구원과 다시만나 신계사 복원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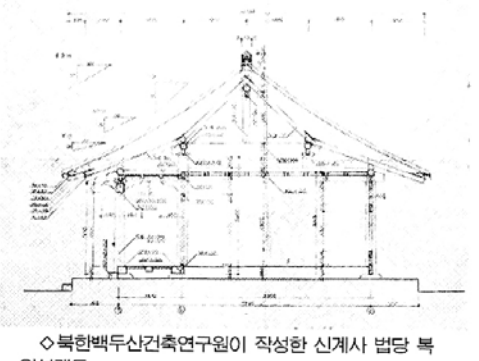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 사업은 현대와 불교계, 북측의 아세아태평양위원회가 사업의 주체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대측은 "불교계의 사업 파트너를 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혀 그간 논의돼 온 평불협과의 공동추진 혹은 조계종, 종단협과도 협의할 가능성을 비쳤다. 조계종과 종단협도 그간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서 북한문화재 조사 및 복원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온 만큼 현대측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의 첫 기적소리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듯 신계사 복원의 첫 망치소리도 불자와 국민들의 가슴에 벅찬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영상으로 복원한 신계사 전경 〈사진제공KBS〉.



◇북한백두산건축연구원이 작성한 신계사 법당 복원설계도.

"검소한 승복을 입자"

조계종 교무국장회의 가사원 설립 등 의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 주재로 10일 열린 본사교무국장회의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고가 승복을 퇴출시키고, 무소유의 출가정신에 부합하는 검소한 승복 입기가 제기돼 주목을 끈다.

사미(니)복 단체구입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사미복의 규격통일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해 사미복의 단체제작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참석한 스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순한 사미(니)의제문제뿐 아니라 승가 의복 제작과 유통 전반에 대한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스님들은 고가의 승복문제는 승단 내부에서 무소유정신을 절실히 실천하지 못하는 등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부분은 종단차원에서 교육원에 '가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대목. 승복의 통일을 위한 연구와 고가 승복 난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사원 설립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가사원을 통해 행자복, 사미복, 장삼, 가사 등 의복을 일률적으로 통일 제작 지급하고, 승려관리와 위계질서 확립을 도모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당장 시중 승복점들의 피해와 업체선정과정에서의 편중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육원이 전국 승복점의 표본조사를 통한 재질별 승복가격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참고로 지역 사찰에서 적합한 업체를 통해 승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종교성직자의 의복이 시중에 버젓이 나와 그것도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것은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면서 "사미(니)의제 정착부터 시작해 승가전체가 관심을 갖고 의복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표본조사 등을 통해 점차적으로 고가 승복을 퇴출시키는 등 종단풍토를 쇄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이날 회의는 부처님 출가일을 앞두고 출가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기기에 충분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목어

'포니 정'

'포니 정'은 정주영회장의 친동생 정세영회장의 애칭이다. 애칭이 대변하듯 그는 현대자동차에서 32년간 몸바쳐 일했다.

인연이란 때가 있는법. 그래서 시절인연이라고 하지 않는가.

자동차 업계의 대부 정세영회장은 차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고 71세에 건설맨으로 다시 새 출발점에 섰다. 42년전 미국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29세의 청년 정세영은 대학강단에 서는 꿈을 꾸었다. 이때 형은 동생에게 회사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한시적으로 도울 생각 이었으나 정세영은 공사현장을 누비는 '현대맨'이 되었다.

10년후 형은 또 동생을 불렀다.

"자동차 사업을 해야겠는데 도와줄수 있겠느냐"

"형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정세영은 "자동차에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포니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형은 말했다. "착한 세영이가 고생을 많이해 머리털이 많이 빠졌다."

올봄 형은 다시 동생을 불렀다.

"이젠 네가 그만 쉴때가 된것 같다. 물러나 줘야겠다."

32년전 처럼 동생은 형님의 결정에 승복했다. 주주총회때 왕회장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세력확대를 시도한 것이 화근이라고 하나 정세영회장은 형제간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갈등설이 왜 나왔지 모르겠다. 큰형님 덕분에 가장 화려한 직장생활을 했다. 큰 형님의 배려에 감사한다. 행복한 마음으로 현대자동차를 떠난다."

그러나 고별사를 읽으며 끝내 눈물을 보였던 정세영회장. 그는 지난 8일 30년간 써온 낡은 책상을 새 집무실로 옮기고 건설맨으로 다시 복귀했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다. 현대산업개발을 경쟁력있는 종합건설회사로 발전시켜 또한번 멋진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 형님이 잘해 보라고 격려해 줬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70노장 정세영회장의 다시 시작하는 모습과 형제애는 무언의 교훈이다.

"친척은 서로 이롭게하며 협력해야한다. 친척은 공경하고 가까이 하면 그들은 평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장아함경〉과 〈육방예경〉에 있는 가르침이다.

조계종-선학원 '다시 대화'

문제해결 필요성 양측 공감

인사-재산-운영권 이견 여전

조계종이 고산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선학원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94년 이후 본격화된 '선학원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 법인대책특위 위원장 영담스님과 선학원 실무대책위원장 성문스님은 11일 오후 조계사 인근에서 만나 양측의 요구사항을 교환했다.

■조계종 요구사항

조계종 법인대책위는 8일 회의에서 마련한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조계종의 요구사항은 95년 마련된 △선학원의 독자성 보장을 위한 별도(특별)교구화 인정 △종회의원의 정수 3인 배정 △선학원에서 도제교육에 대한 분담금의무 이행 등 6개항이다. 또 최근 총무원도 △정관 변경:제1조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명기, 제2조 목적에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하여 삽입, 제6조 임원 선출에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삽입 △선학원 설립취지와 목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재 선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타종단 승려 및 무속인들의 분원은 재산을 환원시키고 선학원에서 탈퇴 시키도록 한다. △이후 선학원은 신규사찰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다 등 6개항을 법인대책위에 제출했다.

■선학원 요구사항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11일 선학원측 성문스님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며 작년 8월 조계종에 제출했으나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한 공동합의서 초안의 범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합의서 초안은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공감하며 동질성 회복을 우해 지금까지의 갈등을 완전히 종식하고 향후 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재단 정관 제3조 목적조항에 '조계종 종지를 봉대한다'를 삽입한다. 단, 조계종은 이 조항에 대한 종헌 종법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으며 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 관리권 등 법인고유의 일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등 5개항.



◇조계종 법인 대책 특위위원장 영담스님(우측)과 선학원 상무이사 성문스님이 11일 만나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를 논의했다.

■전망

조계종과 선학원 대화 재개는 어떻든 선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측의 인식이 팽배해 진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노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간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걸림돌이 됐던 정관상의 명칭, 목적, 선출 부분에 대한 양측의 양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교구 인정 교육분담금 의무이행, 분원장 인사권 및 사찰 운영에 따른 사자상승의 보장 등은 선학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항. 결국 양측이 얼마만큼의 양보와 대승적 타협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선학원 문제의 길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종단 안팎에서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실적인 입장차이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신뢰의 문제다. 선학원에 등록한 대다수 분원장들이 조계종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상의 권익, 주지 승계의 사자상승 등에 대해 골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역시 선학원에 등록된 분원 중에는 타종단 소속스님과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무속인이 포함돼 있다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정서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는 제도적인 절차만으로 풀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연태 기자

입산

재연 스님 행자 일기

열아홉 살에 선운사로 출가한 재연 스님은 이후 전국 각지의 선방에서 수도했으며 1985년 근본물교를 연구하기 위해 인도 푸나 대학에 유학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지난해 귀국한 스님은 현재 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섬 위도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다. 폭설과 비바람으로 자주 뱃길이 끊기는 섬의 한 작은 암자에서 바닷바람 맞으며 새벽 예불을 드리고, 손수 밥짓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있다.

종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
종은 더 아파야 한다



법정 스님의 산 내음 그윽한 글처럼, 『입산』에는 선운사의 자욱한 동백꽃과 어우러진 탈속한 향내가 있다. —조선일보

이 책은 세파에 시달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감로수 같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세계일보

스승과 선배 스님들, 도반과 절집 사람들, 선방과 저잣거리를 번갈아 등장시키며 서슬 푸른 수행자의 내면과 구체적 일상을 정갈한 문체로 담아내고 있다. —한국일보

수챗구멍에 떨어진 밥풀을 하나하나 주워먹는 노스님, 우락부락 좌충우돌이면서도 뜻밖에 섬세한 깡패 출신 스님, 빨래하는 행자의 모습을 담은 그림에 임술 도장을 찍어 보낸 처자 등 행자 시절의 이모저모가 깔끔한 문장으로 아기자기하게 갈무리되어 있다. —한겨레신문

'입산'이란 한 엄숙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 있었던 인간사의 희로애락을 가감 없이 전하고 있는 이 책은 득도의 들고남이 어디서 오는지를 자연스레 전해주고 있다. —문화일보

"숲속에서도 저잣거리에서도 수행자는 늘 홀로 선다.
수행자의 양식은 사무치는 외로움이다"

방랑자 재연 스님이 바람 속에서 건져올린 生의 얼굴들

방랑 시작 재연 스님 산문집

이 책에는 더러는 눈물이 나올 만큼 애처로운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배꼽을 잡고 웃지 않으면 배기지 못할 재미난 이야기도 부지기수다. 스님의 이야기 보따리는 넓고도 깊다. 그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삶의 속내를 또렷하게 짚어내고 있다.
—안도현(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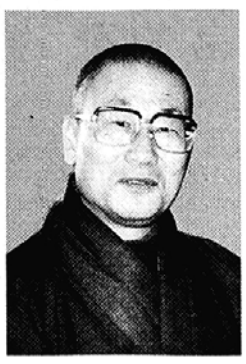
자유인의 활달한 발걸음을 만나는 길

스님의 맨발 한승원의 선승 이야기

부처에서부터 '걸어다니는 수미산' 덕암 스님에 이르기까지 '대각(大覺)'의 줄기를 훑으며 산경(山景)에 취해 있는 스님들의 족적과 일화를 흥미롭게 캐낸다. —동아일보

고승들의 족적과 선지식을 찾아 삶과 죽음, 애욕과 해탈에 관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들. —세계일보

www.munhak.com 문학동네



유럽 성직자 감소…교회논리 한계노출

정각원 개강법회 호진스님 강연

호진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은 98년 2월부터 1년간 프랑스 국립 제4대학과 제7대학에서 연구활동을 마치고 귀국, 10일 정각원에서 열린 99년 개강법회에 법사로 참석 '유럽의 종교현황'에 대해 첫 강연을 했다.

스님은 유럽의 종교 현황에 대해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일축했다.

"예전에는 1백여명의 성직자들이 수도원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7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어떤 시골에는 1~2명의 신부가 10여개의 교회를 맡아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갈수록 젊은 성직자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성직자들과 자주 만났다는 스님은 "그곳 성직자들은 '교리가 21세기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며 "복제 동물이 생산되는 시점에 교회의 논리는 곳곳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 프랑스 성직자들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불교 현황에 대해 스님은 "프랑스 불교인구는 개신교와 비슷한 6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티벳불교에 치우쳐 있다"며 "프랑스에서 불교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과장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에서는 불교관련 서적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불교는 무종교인들에게 가장 선택하고 싶은 종교로 꼽히고 있지만 윤회설 등에서 기독교의 창조론이나 부활론 등과 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착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판사도 감옥체험 해보세요"

삼중스님 사법연수원 · 고대서 법문



현직 판사 40여명과 법대생 5백여명이 30여년간 교도소 재소자 교화사업을 펴온 삼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의 법문을 듣는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부터 두시간동안 스님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이날 강연에는 전국에서 온 형사단독실무 판사 40여명이 참석한다.

삼중스님은 '재소자의 생활과 생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에서 재소자들의 아픔과 뒷얘기를 들려주며 판사들에게 재판에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스님은 판사들에게 교도소 체험도 권유할 생각.

이에앞서 고려대 법대는 1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역시 삼중스님을 초청한 가운데 예비법조인들의 인성강좌를 마련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교차로

■ 첫시집낸 장대송PD

사찰답사 감흥 시어로 담아내



첫 시집 〈옛날 녹천으로 갔다〉(창작과 비평사)를 펴낸 불교방송 장대송 PD(37). 현재 '고승열전' '교리 강좌' 등의 프로를 맡고 있는 장씨는 9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이 시집에는 평범한 일상의 삶외에 취재차 갔던 '경남 고성 옥천사' '강원 홍천 수타사' '인제 봉정암' 등의 절경을 시어로 담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열반절 진신사리 친견법회



도문 대각사 주지는 18일~4월 7일까지 서울 종로 대각사 3층 법당에서 열반절 맞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및 조상천도재를 봉행한다.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혜총 감로사 주지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및 영가천도법회를 연다.

어린이 포교위한 하루찻집



정여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은 27일 중앙동 다전에서 어린이 포교활성화를 위한 하루찻집을 연다. (051)853-5486

LA관음사 창립 25돌 법회



도안 미국 LA관음사 주지는 14일 관음사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백양사 승가대 졸업식



다정 백양사 주지(승가대학장)은 5일 향적전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황희문화상 정신부문 대상



원종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은 14일 예술의 전당 서예관 4층 문화사랑방에서 99년 황희문화상 정신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옥수복지관 분소개소

상덕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6일 옥수1동 분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복지관은 이에앞서 9일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했다.

회엄장학회 사무실 이전



정희수 화엄종장학회 이사장은 5일 서울사무소를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02호로 이전했다.(02)730-0798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



이길여 길의료재단 이사장은 11일 경원대 음악대학 대강당에서 학교법인 경원학원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도의 사원' 주제 봄 강좌



신영훈 목수(문화재전문위원)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20분 법련사에서 '인도의 사원'을 주제로 봄강좌를 진행한다.(02)733-5322

동국대 총동창회 회장에

권노갑 국민회의 고문은 11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정기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몽산스님 당선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현 대흥사 부주지 몽산스님이 당선됐다. 대흥사는 10일 산중총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입후보 한 몽산스님을 무투표 선출했다. 몽산스님은 1962년 천운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서 사미계를, 71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94년 대흥사 기획국장을 역임했다.



이사회에서 제20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권고문은 1959년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산스님 초청간담회



신광식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은 20일 오전7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러시아 예술대서 작곡가상

정부기 중앙대 교수(작곡과)는 '붓다의 노래' 등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을 훌륭하



게 접목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6일 러시아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주는 최우수 작곡가 상을 받았다.

한국출판 학회장에



윤형두 범우사 대표는 최근 열린 한국출판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4년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 계룡대서 전역 법회

강남석 해군군종감(전 군승단장)은 28일 대전 계룡대에서 전역법회를 갖고 전역한다.



박노해시인 귀농학교장 도법스님 방문

'노동자 시인' 박노해(42)씨는 10일 전북 남원 실상사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스님, 실상사 주지)를 방문했다.

박노해씨는 농사공동체를 일구려는 도법스님과 만나 참다운 공동체와 그걸 가꾸려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씨는 감옥에서 〈화엄경〉을 풀어 쓴 도법스님의 글을 읽고 '진정한 도반'을 얻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사진=한겨레신문 제공



서초 구민을 위한 신년 대법회

서초구사암연합회는 10일 서초구민회관 강당에서 제2대 회장 혜덕스님 취임식 및 서초구민을 위한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일본 고려사 주지 태연스님,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불회 노숙자센터 보현의 집 위문

부산 불교교육대학 제6기 졸업생 위주의 신행모임인 한불회(회장 백동흠) 회원 15명은 4일 노숙자 쉼터인 부산 보현의집(소장 이기표)을 방문, 입소자 1백여명에게 1백5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6백kg을 선물했다.

"불교는 한국사회발전 원동력"

삼국사기 러어 번역 미하일朴 교수



〈삼국사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 미하일박(81) 모스크바대학 교수가 내한했다. 한인 3세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러시아에서 한국 고대의 정치·종교 연구의 기반을 닦아왔다.

박교수는 "고대사 연구를 하다보니 한국인의 깊은 종교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걸쳐 국가의 흥망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성이 사회 발전의 중심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9년 〈삼국사기 번역 및 연구〉 제1권, 95년 2권을 펴낸 데 이어 올 연말 마지막 3권의 번역을 완성할 예정이다.

박교수는 89년부터 3년간 '재소한인협회장'을 맡아오면서 45만여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같은 업적은 이인호 주러시아 대사와 열반종 혜곡 총무원장에 의해 국내에 알려져, 4일 KBS가 해외 한민족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불교종무 현대화 심층강의"

한성대 종무행정 고위과정개설 황진수 교수



교수불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온 한성대 황진수교수(사회교육원장)는 불교 종무행정업무가 타종교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을 학교측과 협의해 이번 학기부터 사회교육원에 개설했다.

"불교종무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 전수, 각종 행정기술 습득, 시사문제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심층적으로 분석 강의할 계획"이라는 황교수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조직, 재정, 회계 등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는 물론이고, 정보화, 문화, 사회복지 등 현실과제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99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4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30명 ■통신4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중국어과	2년	■주간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20명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분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9년 3월 19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人 事 말 씀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門徒葬 金河堂 光德大禪師의 永訣式 및 茶毘式을 불기 2543년 3월 3일 종단의 元老大德스님과 各界人士 재가불자를 모신 가운데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공사 多忙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參席해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慌忙中이 옵기에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드리오니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金河堂 光德大禪師의 49재를 다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3년 3월

金河堂 光德 大禪師 四十九齋 案內

초齋	3월 5일	불광사	☎(02)413-6060~2
2齋	3월 12일	〃	
3齋	3월 19일	〃	
4齋	3월 26일	〃	
5齋	4월 2일	〃	
6齋	4월 9일	〃	

四十九齋 4월 16일(금) 불광사

장의위원장 지 유
호 상 덕 윤
집행위원장 성 오
상좌대표 지 정 · 지 암

5개공무원단체 '지역화합' 발원 합동법회

27~28일 은해사서…경북·전북도청·감사원·국정원 등 참가

영천시청 불자회 창립

영천 은해사에서 5개 공무원불자회 합동 성지순례법회가 열린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북도청, 전북도청, 영천시청등 5개 단체 불자회는 27일부터 28일까지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 주관으로 합동 성지순례법회를 갖고 함께 정진하며 신심을 쌓고 교류를 증진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지역간 화합도 다질 합동성지순례법회는 5개 단체 회원 3백여명이 참가하며 입재식에서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이 법문한다.

특히 이날 창립식을 겸해 참가하는 영천시청불자회는 영천시장을 포함하여 회원 50여명이 참석한다.

성지순례법회는 은해사 가람공부, 거조암 오백나한 참배 및 철야정진등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아침예불 후 선본사 갓바위 약사여래불을 참배한 뒤 5개단체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이어 감사원불자회 탱화점안식을 갖고 서울로 이운한다. 점안되는 탱화는 감사원불자회가 강당에서 법회시 모실 목적으로 원래 13m에 이르는 은해사 법당의 아미타 괘불탱화(보물 1270호)를 2m로 축소하여 제작했다.

이번 성지순례법회와 관련 감사원불자회 지도법사 청암스님(은해사 교무국장)은 "앞으로도 여러 단체들이 참가하는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무원불자회의 활성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며 "상호교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불자회는 올해말까지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으로 최근 들어 청와대 불자회와 구청불자회들이 참여하는 법회를 폭넓게 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학교폭력·왕따 상담 하세요

교사불자련 20일 전화 '720-0218' 개통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진로지도 상담전화가 교계에 처음으로 개통된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0일 서울수송동 수송빌딩 4층에서 사무실 개원식을 갖고 '교육상담전화' 개설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교사불자연합회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처하고 진로 및 진학지도를 위해 개설한 상담전화는 20일 개통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교직 경력 40년 이상의 불자교사들이 상담에 응한다. 전화 (02)720-0218, 팩스 (02)720-8871

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학교에 알려 해결을 유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불교관련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여 3월말까지 초고를 완성한다. 교사불자연합회는 조계종 포교원 교과서위원회를 통해 교육부 교재편찬위에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서 분석작업은 지난해 4월부터 전국의 불자교사들이 참여해 진행중인 방대한 작업.

김원우 기자



조계사 주변 청소…"마음까지 맑게"

조계종 총무원 원우회(회장 전형근)는 설날 다음날부터 매일 오후 1시간씩 조계사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회와 정진의 해'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활동에는 총무원 소임스님들도 함께 참여하여 주변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박정규주임은 "중앙종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변을 깨끗이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됐다"며 "주변에서도 반기고 있어 조계종의 이미지를 새롭게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우리 모임에선

한빛은행불자회 창립

합병은행인 한빛은행불자회가 창립한다.

한빛은행불자회 창립법회가 20일 오후 4시 소공동 본점 5층강당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한빛은행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할 이날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법문한다.

이에앞서 부산 한빛은행불자회는 14일 부산양정청소년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부산법회는 정관스님(영주암 주지)이 법문했다.

한편 한빛은행은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은행으로 불자회도 합병을 통한 조직재건에 힘쓰고 있는 상태다.

금융단불자研 명찰순례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28일 성철스님이 출가한 문경 봉암사에서 명찰순례행사를 갖는다.

'성철스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갖는 이번 명찰순례는 성철스님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정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반야회 9돌기념 강연

한국전력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25일 한전본사 별관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에는 박광서교수(우리는선우 대표)가 '불교와 물리학'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김영창회장은 "창립 9주년을 맞는 반야회 발전을 위해 전법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회원을 확보하여 10주년을 맞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운불 낙산사 순례

대전운전기사불자연합회 금강지부(지부장 송화영)는 31일 설악산 낙산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의 회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객이 병들면 갈곳 없으니…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⑩

〈지난 호에 이어〉

선객의 우열은 화두에 끌리느냐 끄느냐가 결정한다. 화두에 끌린 선객은 한한(閑閑)하나 화두를 끄는 선객은 간간(侃侃)하다.

우리 상원사 대중 스님은 우열이 반반이다. 아무래도 상판쪽이 한가롭고 하판쪽이 분망하다. 상판과 하판은 비구계 받은 순으로 결정된다. 좌선의 몸가짐이 상판쪽은 태산처럼 여여부동이나 하판쪽은 여름날씨처럼 변화무상하다.

헛기침을 하는가 하면 마른 기침을 하고 가부좌의 고통을 달래보느라 발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허리에 힘을 줘보기도 하고 몸을 좌우로 혹은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는가 하면 포개어진 손을 위아래로 바꾸어 보기도 한다. 화두에 끌리지 않고 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들에게 방선의 죽비소리가 틀림없는 복음성으로 들린다. 그러나 이들도 선방을 떠나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죽비소리가 아쉬워지다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있게된다.

스님이라면 누구나가 선방밥을 먹지 않은 스님이 없다. 왜냐하면 선이 불교의 요체이고 견성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방을 외면한 이유는 이 초기의 고통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대중 가운데 신경통을 몹시 앓은 스님이 있다. 이 스님은 화두에 끌려다니는 스님인데 신경통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매 세시간의 좌선시간 중에서 한 시간 정도 앉고 나머지 두시간은 도량에서 보행하면서 행선을 한다.

새벽시간이나 밤시간에도 누더기를 의지하여 설한풍 속에서 행선하면서 대중스님과 꼭같이 참선기간을 지키는 열의는 대단하다. 화두에 끌리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다.

■11월28일 병든 스님

결핵에 신음하던 스님이 바랑을 챙겼다.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선방에서 배기던 스님이다. 어제 저녁부터 각혈이 시작되었다. 부득이 떠나야만 한다. 결핵은 전염병이고 선방은 대중 처소이기 때문이다.

각혈을 하면서도 표정에서 미소를 지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동진출가한 40대의 스님이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 어디로 가야할 지 알 수 없다면서도 절망이나 고뇌를 보여주지 않는다. 조용한 체념뿐이다.

뒷방 조실스님의 제의로 모금(募金)이 행해졌다. 선객들에게 무슨 돈이 있겠는가.

결핵과 함께 떠나는 스님이 평소에 대중에게 보여준 인상이 극히 좋아서 대중스님들은 바랑 속을 뒤지고 호주머니를 털어 비상금을 몽땅 내놓았다. 모으니 9,850원이다. 사중에서 5천원을 내놓았고 시계를 차고 있던 스님 두분이 시계를 풀어놓았다.

나는 마침 내복이 여벌 있어서 떠나는 스님의 바랑속에 넣어 주었다. 결핵요양소로 가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며 장기치료를 요하는 병인데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돈이다. 응급치료나 받을 수 밖에 없는 돈이다.

모금해준 성의에는 감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에는 죄송스러워 용서를 바랄 뿐이라면서 바랑을 걸머졌다. 눈 속에 트인 외가닥길을 따라 콜록거리면서 떠나갔다. 그 길은 마치 세월같은 길이어서 다시 돌아옴이 없는 길같기도 하고 명부(冥府)의 길로 통하는 길같기도 하다.

의 초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의 조화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선객은 부처님처럼 위대해 보이나 병든 선객은 대처승(帶妻僧)보다 더 추해진다.

화두는 멀리 보내고 비루(鄙陋)와 비열(卑劣)의 옷을 입고 약을 찾아 헤맨다. 그는 이미 선객이 아니고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폐물이 되고 만다.

신외(身外)가 무물(無物) 차원높은 정신성속에서 살아가는 선객일수록 유물적이고 속한(俗漢)적이라고 타기할게 아니라 화두 다음으로 소중히 음미해야 할 잠언이다.

■12월1일 용맹정진

설달이다. 동안거의 반살림을 끝내고 반살림을 시작할 때는 어느 선방에서나 용맹정진을 한다. 용맹정진이란 수면을 거부하고 장좌불와함을 말한다. 주야로 일주일동안 정진



그림·이준석

화두 잃고 약 찾는 스님 추해보여
반살림 철야정진은 수마와의 싸움

인생하처래 인생하처거(人生何處來 人生何處去)가 부쳑이나 쳐연하고 애절하게 느껴짐은 나의 중생심 때문이겠다. 나도 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답답하다. 아직 견성하지 못한 나로서는 당연한 감정이기도 하다.

현대의 우리 불교계 풍토에선 병든 스님은 갈 곳이 없다. 더구나 화두가 전부인 선객이 병들면 갈 곳이 없다. 날마다 수를 더해 가는 약국도, 시설을 늘려가는 병원도 그들이 표방하는 표제는 '인술'이지만 화두뿐인 선객을 맞아들일만큼 어질지는 못하다.

자비문중이라고 스스로가 말하는 절간에서도 병든 선객을 위해 베풀 자비는 없다. 고작해야 독살이 절에서 뒷방이나 하나 주어지면 임종길이나 편히 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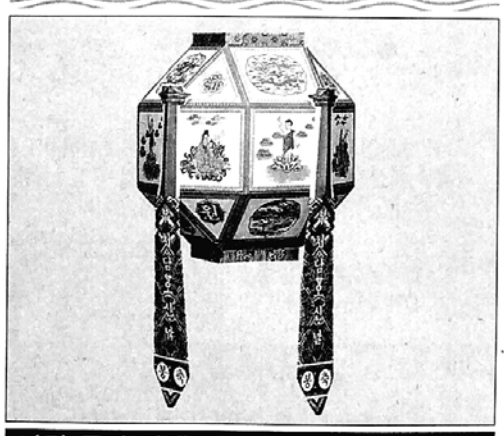
그래서 훌륭한 선객일수록 훌륭한 보건자이다. 견성은 절대로 단시일에 가능하지 않고 견성을 시기하는 것이 바로 병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섭생에 철저하다. 견성이 생한다.

저녁 9시가 되자 습관성 수마(睡魔)가 몰려왔다. 첫날 첫고비다. 경책스님의 장군 죽비소리가 간단없이 들리지만 자꾸만 눈꺼풀이 맞닿으면서 고개가 숙여진다. 장군죽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린다.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하기를 삼십분 가량하면 수마가 물러간다. 밖에 나가 찬물로 세수하니 심기일전이다. 자정이 되면 차담이 나오고 잠깐 휴식이다. 보행으로 하체를 달랜후 다시 앉는다. 밤은 길기도 하다. 그러나 틀림없이 아침은 왔다.

하루가 지나가 몸이 약한 스님 두 분이 탈락했다. 이틀이 지나자 세분이 탈락했다. 사흘이 왔다. 용맹정진의 마지막 고비다. 저녁이 되니 뼈마디가 저려오고 신경이 없는 머리카락과 발톱까지도 고통스럽단다. 수마는 전신의 땀구멍으로 쳐들어 온다. 화두는 여우처럼 놀리면서 달아나려 한다. 입맛은 소태같고 속은 쓰리다 못해 아프기까지 한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계속〉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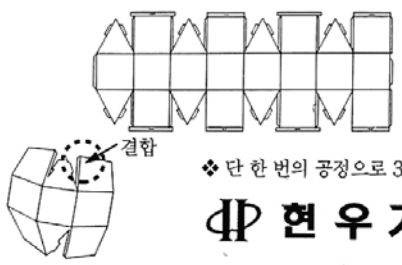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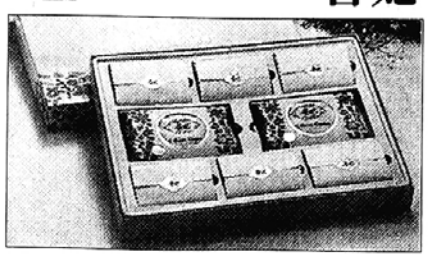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환경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과제로 떠오른지 이미 오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정부의 인식조차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일 건교부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월·정선·태백 주민들의 젖줄인 동강에 댐을 건설키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또 환경부는 당진에 불과 4㎞를 거리에 두고 생태공원과 유독 산업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을 인가해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대책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약 사용량이 뉴질랜드보다 무려 48배나 높다는 보고도 나왔다.

환경문제는 더이상 방치하거나 느긋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 경전을 통해 환경과 관련한 불교사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 환경 — "깨끗한 불국토 깨끗한 마음에서"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는 것이다. 〈유마경〉

▨모든 흙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을 행할지니라. 세세생생 몸을 받아 상주하는 법으로써 사람들을 가르쳐 방생하게 하고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방편을 구호하여 그 고난을 풀어주며, 항상 널리 교화하여 보살계를 강설해 중생을 구제해야 하느니라. 〈범망경〉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가는 행위라 부른다. 그러므로 도리에 맞는 행위를 실천하는 왕이라면, 성읍·부락·산림·천택(川澤)·원관(園觀)·궁전과, 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굴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파괴치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중생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바에는, 그 사용할 물건들을 태워 고통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니건자경〉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불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릎에까지 이른다. 〈세기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화향품〉

▨발우를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물속에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지 말라…. 뼈·상아·뿔 같은 것으로 바늘 등을 만들지 말며, 뜨거운 물을 땅에 함부로 버리거나, 아무데나 불을 피우지 말라. 〈사분율〉

▨수행자들이여, 수행자로서 배우는 자이며 아직 마음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최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으로 여기고 나서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에서부터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즐거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올바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을 즉자적 대자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으로, 소유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중아함경 근본법문경〉

▨일체의 유정은 무량한 수명을 갖게 하라. 항상 즐겁게 살고 죽음이란 말마저도 없어지게 하라. 또 모든 곳은 부처님과 불자들이 가득하여 법음이 언제나 즐거웁게 울리게 하라. 모든 생류들에게 새 나무 광선 허공으로부터 법음의 울림이 쉴사이 없이 들리게 하라. 〈보리행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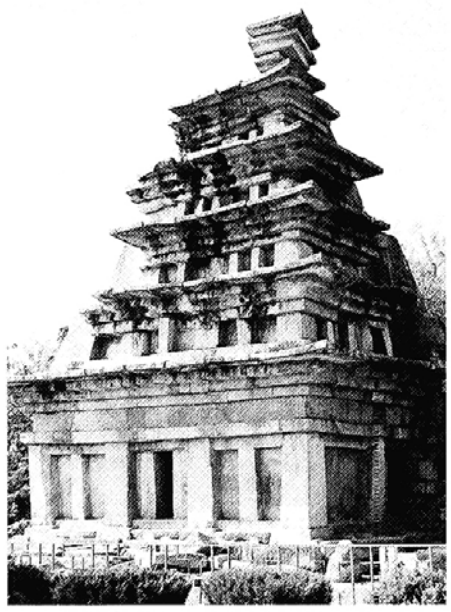
▨일체의 국토가 하나의 국토에 들어가고 하나의 국토가 일체의 국토에 들어간다. 일체의 세계가 한 터럭(一毛)속에 들어가고 한 터럭이 일체의 세계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몸이 한 몸에 들어가고 한 몸이 일체 중생의 몸에 들어가며, 말할 수 없는 겁(劫)이 일념에 들어가고 일념이 말할 수 없는 겁에 들어간다. 〈화엄경〉

열린마당

'미륵사지 서탑 해체복원'

미륵사지 서탑(국보 제11호)을 해체복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수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가 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의뢰해 지난 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탑신의 석재 2백49개 중 1백28개와 기단부 기둥이 균열된 것으로 나타나 해체복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증과 완벽한 복원 기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해체복원-보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보 11호 미륵사지 서탑.

"환경정비등 보존책 찾아야"

김정기 〈문화재위원〉



탑의 안전진단 결과, 해체해서 복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무리인 듯하다. 최소한의 손질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탑의 안전도는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야외에서 이미 천년이 넘게 견뎌온 탑의 석재는 물론 많이 풍화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체한다면 풍화된 석재를 다시 써서 탑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위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의 모습에서 가능하면 흉하지 않게 보이도록 탑 뒤쪽 축대도 가지런히 정돈해야 한다.

"붕괴위험…해체복원 급하다"

김삼룡 〈원광대 마한백제문화硏 소장〉



미륵사지 서탑은 해체복원해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너무 낡아 비가 새기 때문에 탑 부재들이 많이 산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만일 4도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보수를 해도 현 상태로는 지진에 대한 방비책이 있을 수 없다. 빨리 해체해서 복원해야 한다. 6층 일부 남아있는 돌은 풍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화학처리하면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화학처리한 옛 부재와 탑 주변을 조사 발굴하면서 모아놓은 옥개석 등 부재, 탑 속에 있는 석재 등을 모두 모으면 9층까지 복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60% 정도만 옛 석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복원은 문제없다. 하루속히 해체복원해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서탑이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균열속도등 안전진단 철저"

장경호 〈경기도박물관장〉



석재의 균열은 석탑 보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륵사지 서탑을 그냥 두기에는 어려운 상태이다. 하지만 해체복원을 하느냐 보수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철저한 조사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탑의 균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현재 탑에 균열이 많이 가있지만 그 균열의 진행속도를 잘 조사해 균열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 해체복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돌의 부식도 역시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탑을 이루는 석재 하나 하나의 부식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식으로 부식이 진행되는지 밝혀야 한다. 부식 속도가 빠르다면 무너지기 전에 해체 복원을 해야 하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섣불리 해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해체는 최후선택…신중하게"

이강근 〈경주대 교수〉



미륵사지 서탑은 1천년이 넘는 세월을 온갖 풍파에도 살아 남았기에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한 탑을 해체 복원할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시멘트와 석재가 얽혀있고 탑의 내부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해체는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잘 해체한다 하더라도 있는 돌만으로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새 석재와 옛 석재를 같이 배열할 경우 돌이 버틸지도 문제다.

해체 복원은 보존 방안이 아니다. 보수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마지막 방안일 뿐이다. 새로 해체복원해 새 석재를 들여 깨끗하게 탑을 복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미륵사지 탑이 아닌 새로운 탑일 뿐이다.

목탁소리

김 주 일 〈취재2부 기자〉

불교TV가 침몰의 늪을 벗어날 길은 없는가?

노사가 화합해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영진과 노조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다. 발단은 한국불교실업인회 이호식 회장이 5일부터 불교TV 대표이사 신허스님의 허락하에 'btn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적인 활동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불교TV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은 조직구조에 관한 사규상 존립 근거가 없고 이사회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은 불법 조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설상 가상으로 대표이사 신허스님은 '운영위원회'와 약속한 일이라며 5일 열렸던 '불교TV 제1차 단체 교섭'에서 노조의 해체를 명령했다. 회의가 끝난 뒤 노조는 사장스님이 단체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과 노조 허체를 강요한 것 등을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불교TV 어찌되나

이번 갈등의 요인은 우선 'btn운영위원회'가 불교TV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경영진의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회장을 비롯한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현재 자금 능력이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운영위원회'는 지금부터 불교TV를 살리려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불교TV를 살리려는 경영진의 태도 역시 갈등으로 치닫게 한 또 하나의 이유다.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방송중단 사태를 맞은 직원들은 2월23일 팀장회의를 통해 7명의 기획팀을 만들어 방송재개안 등을 포함한 경영난 해소 방안을 마련, 사장 스님에게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결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장 스님의 얼굴은 1주일에 한번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직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그래서 책상위에는 결재판만 수북히 쌓여 있는 상태다

9일로 창사 4주년을 맞이한 불교TV. 영상 포교의 선두주자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반성과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온 식구가 한마음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한 예는 얼마든지 많다. 각자의 명분과 논리로 맞서기보다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화합된 분위기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jikim@buddhapia.com)

서북 토종 오가피 농장
(안중 오가피 작목반)

밭의 흙에는 수억마리의 미생물·곰팡이·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흙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명으로 가득찬 생명체라 할 수 있지요. 서북 토종 오가피 농장에선 20년이 넘는 세월을 오로지 유기농법에 의지하여 농사짓고 있습니다.
12년생의 오가피 나무 4500주가 자라고 있는 농장땅을 조금만 파보면 어른 손가락 굵기만한 지렁이가 꿈틀꿈틀 기어나와 사람을 놀래키지요.

우리는 이곳에서 공생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농장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주십시오.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 오가피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 대표 : 백 운 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557-4
오가피엑기스. 오가피와인.
묘목분양. 어성초(분말)
♣ 연락처 : 0333-682-5034, 5033
♣ 인터넷홈페이지
http://myhome.netsgo.com/baeghj/

지장만일기도·
6만지장보살님 조성불사안내

서울 불광동에서 30분거리, 아름다운 호수가 2개 있는 산자수려한 양주 백석 도리산 육지장사는 6만 지장보살님 성상을 모시는 조성불사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철야기도 정진 및 오는 10월 만일기도 (30년) 입제가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력을 받고저 하시는 분은 필히 동참 바랍니다.

■ 만일기도입제일
1999년 10월 17일(음9월 9일) 오전 10시
■ 만일기도 1년 동참비 : 1만원(30년 30만원)
■ 지장보살님 한분 모시는 동참금
10만원(1자 5치)
접수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7-12
삼보사 ☎ 352-6406
기도처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128-1
도리산 육지장사 ☎ (0531)871-0101
■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833-01-0097-579
농 협 045-01-202971
우 체 국 012468-0136873-11
하나은행 110-082213-00104
주택은행 415637-01-002302
▶ 예금주 : 지장기도만일회

삼보사
육지장사 주지 지원 합장

주말 참선방 안내

불자가 단기출가하여 대운스님과 함께
참선수행을 하며 입방중 승가 전통인
두끼의 발우 공양을 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간원합니다.

아 래
●일 시 : 매주토요일 오후7시입방
일요일 오전9시 방선 (회향)
※ 단기출가수행이므로 사찰기본의식(예불 공양 울력등)은 동참하여야 합니다.
●입방비 : 무료
●교 통 : 의정부시 북부역 토요일 오후5시
지장사 차량대기 출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중간 덕계리 저수지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경법회 안내
삼세제불의 정체이며 만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경전을 우리 손으로 사경함으로 마음이 일심으로 모아지고 수행력과 공덕을 날로 증장된다고 하였습니다.
●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의정부시 북부역 오전 11시 차량대기)
● 회 비 : 무료임

전화 : 0351)863-1888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산 71
지장사 대 운 합장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 교재 - 사주정해 1권·2권
저자 최 학 림

본 보현정사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시간과 좌석 관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 강 일 시 ◆
1999년 3월 30일 오전 10시
◆ 기 간 ◆
주2회 매주 화, 목 오전 10시(3개월 과정)
◆ 장 소 ◆
보 현 정 사

보 현 정 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61번지 24/3
(상계4동 동사무소에서 200m거리)
문의전화 (02)952-7229

봄 문학지마다 불교시로 여는 봄 佛香 읽고 마음엔 봄기운 가득 春

"…
대나무 대롱끝에 입술을 대고
한모금 찬물을 삼키다가
옮거니
매화꽃 봉오리 움트는 소리
겨울 산그늘 얼음꽃 깨지고
봄햇살 걸어오는 것
보았습니다
…"

나종영 시인이 순천 선암사에 가서 대나두대롱으로 흘러나오는 약수 한 모금 마시다가 문득 눈부신 봄햇살이 상큼상큼 걸어오는 것을 느끼고 쓴 시 '선암사 해우소'(〈창작과 비평〉 봄호 발표)이다.

바람보다 새 움보다 햇볕보다 먼저 시인들이 풍성한 시로써 봄맞이에 나섰다. 3월을 맞아 일제히 발간된 계간·월간의 각 문학지에는 불교를 소재로 한 시들이 대거 눈에 띈다. 불향(佛香)이 잔잔히 배인 시들을 읽으며 봄을 맞으면 어떨까.

계간 〈시와 함께〉(통권2호)는 소설가 박범신씨의 시 20편을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지난해 불교적 세계관을 펼쳐놓은 소설 〈흰소가 끄는 수레〉를 발간해 호평을 얻은 박범신씨의 "파가니니 들으며/눈덮인 해인사의 사멸을 본다/ 대적광전의 죽은 부처들/ 사멸은 슬프지 않으나/사멸이라는 말은 뽑혀나온 머리카락보다 슬프다/…"('파가니니 들으며' 중)는 최근 작가가 천착하고 있는 생성과 사멸이라는 화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이다.

〈문학사상〉 3월호(통권317호)는 침묵속에서 진실을 캐내는 시인 오세영씨의 시 5편을 묶어내고 있다. '은산철벽' '햇빛공양' '백담사에 칩거하며' 등은 지난 겨울동안 백담사에 머물며 응축해낸 내면의 소리들을 모아놓은 것. "까치 한마리/ 미루나무 높은/가지끝에 앉아/…/은산철벽/어떻게 깨뜨리고 오를 것인가/ 문열어라 하늘아/…" 진실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한층 깨달은 시인의 내면의 모색이 잘 엿보인다.

"보리아미타불/ 바로 연꽃이어라/ 선각자들은 이미 깨닫고 있었지/ 일만번의 주검/ 그 문을 넘어서/ 일만번의 주검을 벗어났었지/… /그 누가/ 억겁의 고통을 이기고/부처의 한 얼굴을 새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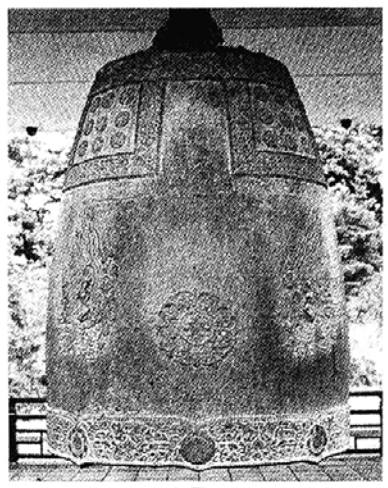
〈시대문학〉 신년호(통권13호)에 실린 조예근씨의 '연꽃' 시에서는 겨울과도 같은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의 성취감을 느낄수 있다. 〈시대문학〉에는 이외에도 특집으로 '시인들의 서라벌 기행' 연작시를 마련했다. 김의식 나영자 정재희 오덕교 씨 등 17명의 시인들이 천년고도 경주를 돌아보고난 후의 감상을 2~3편의 시로 발표했다.

이중 김규은시인은 "계림의 알속이었으리/나를 업어주시던/ 아제같은 여래여/ 아짐같은 보살이여/ 천인도 사자도 목탑도/ 천연스러운 이웃/ 내가 지금 와도/스스럼없는 /수막새 한 조각에 새겨진 미소/… /맑은 숨소리가 새 천년을 품으시네"라고 경주 남산 탑골 마애조상군을 읊었다. 천년 고도가 지녀온 뜻이 새 천년으로 이어질 것을 염원하고 있다.

〈문학과 의식〉 봄호(통권43호)는 이관묵시인의 '갑사', 〈솟대문학〉지는 이상열시인의 '선운사 동백', 〈시문학〉 3월호(통권 332호)에는 이성연시인의 '도갑사' 구종현시인의 '천불암' 황상순시인의 '오대산' 등이, 〈시와 사상〉 봄호(통권20호)는 이성선시인의 '불영사길', 〈심상〉지는 이비오 시인의 '불갑사 빗소리', 〈문학과 창작〉 3월호는 김여정시인의 시 '부석사'를 각각 실었다. 모두들 산사에서의 감흥을 잔잔하면서도 함축적인 시어로 표현했다.

이밖에도 월간 〈문학공간〉(통권112호)과 〈한국시〉(통권 118호)는 각각 심황섭씨의 '각원사' '개운사' '대둔산' 등과 나태현씨의 '선운사' 소시집을 집중 다뤘으며, 〈실천문학〉(통권53호)과 〈한국문학〉 봄호(통권237호)에 실린 불자시인 신경림씨와 장석남씨의 원숙한 근작시도 눈길을 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한국의 대표적 종 에밀레종(사진) 소리를 어디서나 들을수 있게 됐다.

에밀레종소리 어디서나 듣는다

숭실대 사운드카드 제작 상품화

한국의 대표적인 소리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국보 제29호). 그 장엄하고 신비한 소리를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상시로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숭실대 창업지원센터(소장 배명진)가 에밀레종소리를 문화상품화해 내놓은 것. 종의 모형에 언제든 삽입 가능한 하드웨어 음원모듈을 개발, 기존 종 모형에서 나는 '땡, 땡' 소리가 아니라 여음이 30초 가량 이어지는 에밀레종소리를 재현했다. 숭실대와 벤처기업 이프컴테크가 함께 개발한 초소형 사운드카드와 스피커를 내장, 에밀레종 특유의 저음과 소리의 지속성을 구현했다. 모형은 범종제작전문업체 범종사(대표 김철오)가 맡았다. 길이 25㎝ 지름 15㎝의 모형종을 때리거나 보턴을 누르면 에밀레종의 깊고 장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음향재생기(5000원)가 부착된 모형 종 가격은 4만원 정도. 4월중 출시된다.

배명진소장은 "에밀레종의 웅장한 소리를 관광상품화해 외국사람들이 어디에서나 한국의 소리를 들을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인터넷망을 통해 에밀레종에 관한 정보와 한국특유의 종소리를 전세계인들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한다.

육군항공단 비승사 군법당 새 모델

비행접시 모양 외벽 황토처리

정운영씨 설계

'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기존의 군법당 모습이 아닌, 비행접시 모양의 이색 군법당이 모습을 보일 예정이어서 화제. 화제의 군법당은 31일 준공법회를 갖는 육군항공단 호국비승사(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867-1). 비승사 법당은 기존의 군법당과는 달리 원형의 외형에 황토흙으로 외벽처리를 하는 등 독특한 형태로 건축돼 눈길을 끈다.

불자 건축가 정운영씨(예공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설계한 비승사는 법당공간과 휴게실 등의 요사채 공간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 둘이면서도 결국 하나인 셈이다. 군법당이기에 통일의 개념을 최대한 응용해 낸 것이다. 또하나의 특징은 법당 건물 어디에도 창이 없다는 것. 설계를 한 정운영씨는 "종교의식 공간으로서의 집중력과 장엄미를 살리기 위해서"라 설명했다.

그러나 천정에 직경 3m짜리 유리지붕과 외벽 아래위로 12개의 환기구멍이 있어 법당은 언제나 신선하게 호흡한다. 그 호흡의 들숨과 날숨은 12구멍이 연출해 내는 12연기를 상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원형을 응용한 법당의 외형은 원이 갖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모두 8개인 기둥은 8정도를 각각 의미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산과 들, 초가지붕을 연상케 한다.



◇외형은 비행접시 모습을 띄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불교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호국비승사 군법당.



◇정운영씨

와이어판넬을 이용한 군법당 비승사는 항공단의 이미지를 살려 비행접시의 모습을 닮고 있으면서 건물의 곳곳에 스민 교리적 의미가 더 관심을 끈다.

"무엇하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법당은 철저히 불교정신을 담아야 하고 장병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통해 교리를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생각도 했습니다."

건축문화의 해에 새로운 군법당의 모델을 제시한 정씨는 "군법당일수록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성스러운 종교공간과 새로운 건축예술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 예술적인 면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이 공간에서 젊은이들이 불교를 바로 배워 훌륭한 사회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 신축되는 비승사는 전체 51평 규모로 150여명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인천 가천박물관 문화재 14000점 지하실에 방치

연수구청 전시관 신축 불허

인천지역 유일의 민간박물관인 가천박물관 소장 국보·보물급 문화재 등 1만4천여점이 전시공간을 찾지못하고 있다.

길의료재단 산하 가천박물관은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국보인 초조본 유가사지론(제276호)과 보물 향약제생집성방(제1178호), 식물본초(제1227호) 등 13점을 소장하고 있다. 또 삼국시대에서 구한말 사이의 고의학서적과 의료기기 2백50점, 국내잡지창간호 7천6백여점 등도 보유하고 있다.

가천박물관은 이들 자료를 전시 보관하기 위해 95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길병원 별관인 가천관 6층에 1백40여평 규모의 임시전시관을 개관했으나 소장자료의 20%만 전시할 수 있을 뿐 나머지는 가천관 지하실 등에 보관하고 있다.

박물관 측은 96년초부터 재단 소유의 연수구 옥련동 일대 1천2백여평 부지에 건평 4백여평 규모의 건물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수구청 측이 신축허가를 계속 불허해 신축이 어려운 상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부지와 수림상태가 비슷한 인근 숲속에는 이미 인천시립박물관과 상륙작전기념관이 들어서 있고 공원 안에 박물관이 세워진 예는 북한산·남한산성·속리산공원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연수구청 측이 신축을 불허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영월에 각종 박물관 들어선다

민화-책-동굴-곤충

강원도 영월지역에 조선민화박물관, 책박물관, 동굴박물관, 곤충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이 들어선다.

조선민화 수집가인 오승돈씨는 5억원을 들여 이달 하순 하동면 와석리 속칭 김삿갓계곡에 총면적 1만1천여㎡ 규모의 조선민화박물관을 착공, 2000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에서 고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대헌씨는 서면 광전리 여촌분교에 총면적 7천여㎡ 규모의 책박물관을 이달말 개관한다. 박씨는 여촌분교 주변마을을 '책 마을'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책박물관과 함께 전문서점 개장도 구상하고 있다.

영월지역 일대 석회암동굴을 답사해온 동굴생태환경연구소와 동국대 동굴탐험연구회도 이달말까지 하동면 예밀지구, 북면 학전·공기지구, 서면 옹구지구 석회암동굴 가운데 1곳을 선정해 희귀석회동굴 표본과 관련자료 2천여점을 전시할 수 있는 동굴박물관을 개장할 예정이다.

한편 영월군도 영월지역이 희귀곤충의 보고라는 곤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곤충박물관을 개관, 세계곤충 1만5천여점을 전시할 계획이다.

문화소식

청청스님 氣·달마전

청청 고운밤 스님(서울 대각사)의 기(氣) 글씨와 달마 그림전이 19일부터 4월 1일까지 광주시 롯데백화점 8층 롯데화랑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경명주사로 쓴 기(氣) 글씨와 달마그림 등 총 80여점이 전시된다. (062)520-1117

25일까지 꽃꽂이작품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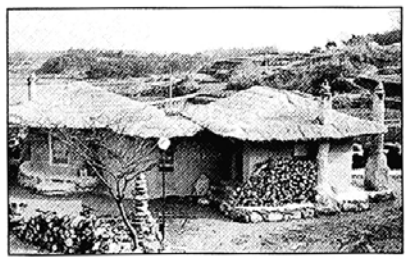
한국불교꽃꽂이회(회장 지연스님)는 오는 4월 22~23일 서울 로얄호텔 2층 에머럴드룸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꽃꽂이전시회 및 탄생불 이운과 육법공양의식을 봉행함에 따라 전시회에 참여할 불자들의 꽃꽂이 출품접수를 이달 25일까지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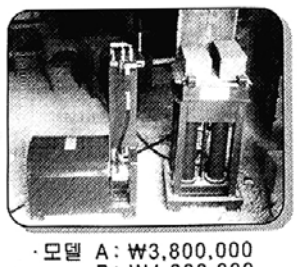
작품주제는 △사대명절 △의식중심 △봉축불단화 관불화 △경전을 중심으로 한 꽃꽂이 등이다.

황토 흙벽돌 기계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제 48회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삼천 부처님이 계신 당 「감로사」에서는
해마다 봄이 오면 삼천배 참회기도를 제방 큰스님을
모시고 음력 2월 10일에 시작하여 삼천불 재일날인
음력 2월 14일에 회향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조복받아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업을 일시에 소멸하고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일시 불기 2543년 3월 27일~31일(음력 2월 10일~14일) 4박 5일
▶법문큰스님 : 지관, 인환, 정관, 성오, 각성, 금담, 홍선, 법희, 혜인, 성림, 세민, 혜총스님
▶인례사스님 : 보안, 능관, 변륜, 정행, 청봉, 경법, 경성, 경원, 경무, 경증, 정근, 종명, 화용, 탄준, 정찬, 정우스님
▶동 참 금 : 3만원(위패 한분 모시는데 5천원)
※ 회향날 방생갑니다.
▶지 참 물 : 백미, 꽃 과일 약간씩(주무실 분은 담요 한 장)
▶연 락 처 : 051) 809-0926

대한불교 조계종 감로사 주지 혜총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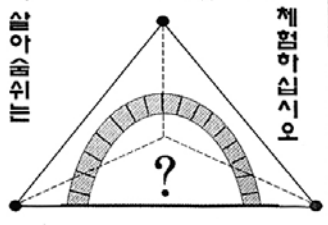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2동 33번지

황토 집 (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토굴의 피라밋 효능을
살아숨쉬는 체험하십시오



●황토집 (토굴) ①3평형 ②5평형 원하시는대로
「선조님들의 토굴방 그대로」
황토의 효능을 느끼지 못하시면 전액 환불하여 드리고,
「무료관리」를 약속드립니다.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2-7116 H.P: 017)566-9969

새로나온 책



▲예언의 허와 실=사람들은 흔히 사주, 관상 등을 통해 미래를 보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로 인한 폐해만 늘어갈 뿐이다.

이 책은 책 제목 그대로 예언의 허와 실을 다뤘다. 예언, 사주, 관상, 역학 등을 설명하면서도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는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단순한 운명론'보다는 '운명개척론'의 성격이 짙은 책이다. 저자는 현오스님. 〈대유학당, 9천6백원〉



▲그대 그대 자신으로=스님 시인들의 시만을 엄선해 시리즈로 꾸미고 있는 '불광승려시선'의 여섯 번째 시집.

일상에 대한 정직한 관조와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까지 꿰뚫어보며 그대르 빚어낸 향기가 청정한 수행자의 면모를 풍겨낸다. 그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최선을 다해 언어를 다룰 때, 불교와 시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한다.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해주는 시집. 저자는 정운스님(충남 보령 세원사). 〈불광출판부, 4천5백원〉



▲파스치료법=20년간 동양의학을 공부한 저자 이동방씨(대한불교대학 학장)가 파스로 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

파스치료법은 동양철학의 오행법을 기초로 해서 360경혈을 60경혈로 축소하고, 이 60경혈을 이용해 병을 다스리는 방법. 2~3일만 공부하면 누구나 자신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방사, 8천5백원〉



▲모든 것은 흙 속에 있다=한 농부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는 수필집. 경남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영문씨가 오랜 세월 주위의 편견과 무관심을 딛고 일궈낸 '태평농법'을 소개하고 있다.

태평농법이란 농약대신 천적을, 화학비료 대신 자운영 같은 천연비료를 이용해 자연과 생태계를 살리자는 농법. 그가 바라보는 농업이 '만유공생(萬有共生)'의 세계관과 합일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문, 8천5백원〉

원효사상전집 첫째권 '원효, 그의 위대한 생애'

원효연구 새지평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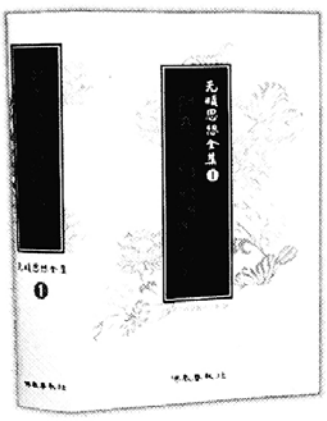
내년 중순까지 7권 완간 국내외 학자 79명 집필

한국 불교의 큰 별. 인도의 용수, 중국의 달마와 함께 세계 정신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 제2의 석가로 불리는 용수보살과 진나보살의 후신으로까지 추앙 받았던 해동불교의 성자.

원효스님(617~686)을 따라 다니는 이들 수식어는 스님의 업적이 우리 문화와 불교사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케 한다. 스님은 우주만물의 궁극적 근원에 대한 깨달음을 중생과 함께 나누는데 일생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사상을 대승불교 전반에 뿌리 내리게 했다. 지난해말 미국 종교학회가 '원효 분과'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서는 등 1천3백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원효사상에 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까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면서도 다양한 스님의 사상과 업적, 행적 등을 집대성한 '원효사상전집'이 모두 7권으로 묶여져 나온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소장 최석환)는 이번에 펴낸 전집 제1권 〈원효, 그의 위대한 생애〉(불교춘추사 刊)를 시작으로 내년 중순까지 7권 모두를 완간할 계획이다. 6천여쪽의 전체 분량과 국내외를 망라한 79명의 학자들이 집필인원으로 동원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집은 기존의 원효학을 망라하고 있다. 이중 신작논문만도 40여 편이 수록되며,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을 과감히 수용해 원효스님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국, 일본 등 원효스님과 관련된 유적지를 모두 답사, 미발굴사료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불교사상과 원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견 박사(전통문화연구소장)가 감수했다.

부차적 성과도 적지 않다. 불교전기문화연구소는 이번 전집간행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대승기신론 해동소〉와 〈원효어록 해설집〉 〈원효설화의 미학〉 등도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원효스님 관련 전집으로는 원효스님의 저서만을 국역한 〈원효성사전서〉(전6권, 원효전서국역간행회 刊)와 관련논문만을 모은 〈원효연구논선집〉(전19권, 중앙승가대 刊)이 있었을 뿐이다.

'원효사상전집'은 원효사상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조명한 제2권 〈원효사상의 현대적 조명〉을 비롯해, 원효스님 어록 중 핵심만을 뽑아 정리한 제3권 〈원효 어록〉, 용수·달마·경허스님 등을 원효스님과 비교 분석한 제4권 〈원효와 인물〉, 관련 유적을 통해 원효스님의 삶과 자취를 복원한 제5권 〈원효 유적답사〉, 원효스님에 얽힌 각종 설화와 전기 및 관련 자료를 묶은 제6권 〈원효 자료 집성〉, 〈금강삼매경론〉 〈판비량〉 등 현존하는 원효스님의 저술 필사본에 해제를 붙인 제7권 〈원효 저술 자료 집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나온 제1권 〈원효, 그의 위대한 생애〉에는 신작 논문 4편, 취재기 2편 등 모두 27편의 글이 '자취' '이름에 대한 고찰' '수행과 행법' '오도와 교화' '자연관' '게송문학' '설화연구' 등 주제에 따라 9장으로 나뉘어 수록돼 있다. 필진은 소암(동북아불교문화연구원장) 석천(불교춘추 편집위원)스님을 비롯해 김지견 박사 이영무(원효연구원장)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최진호(부경대 식품생명공학부)교수 등과 가마다 시게오(일본 동경대 명예교수) 스가오라 아쓰시(일본 신내천 치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4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살펴 현대 수행인들의 왜곡된 삶을 신랄하게 비판한 소암스님의 글과 원효스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동굴임을 새롭게 조명한 석천스님의 글, 원효스님의 식(食)문화를 살핀 최진호교수의 글, 원효스님 저술의 문학성을 논한 지준모 시인의 글 등은 신작논문으로, 원효스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원효사상이 신라를 벗어나 당시의 전세계를 뜻하는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상이었다는 논지를 펼친 일본인 학자 가마다 시게오의 '7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의 원효의 위치'도 흥미롭다. 책 앞부분에는 일본에서 발견된 〈판비량론〉 필사본 등 원효스님 관련 자료를 컬러사진에 담아 수록해 놓았다. 1권 값 3만원.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욕망버리기' 수행법 안내

법산스님 '위빠싸나 33일'



흔히 복을 준다고 하면 기복신앙 운운하면서도 내심 반기면서,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 정법 운운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욕망 채우기'와 '욕망 버리기' 중 욕망 채우기를 원하며 불교를 이해하려 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욕망 채우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진정한 진리를 보지 못했거나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산스님(대구 여래선원 주지)이 엮은 〈위빠싸나 33일〉(우리출판사 刊)은 위빠싸나 수행법의 의미와 수행과정을 설명한 안내서다.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 버리기'를 배워야 하며, 그 방법이 위빠싸나 수행법임을 말하고 있다.

이중 이 책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챙김'. 위빠싸나의 마음챙김이란 자신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마음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행하는 행법이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곧 정견(正見·바른 이해)에 의해 성취된다고 가르친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이 책은 수행자의 개념에서부터 참자유인에 이르기까지의 위빠싸나 수행법을 33일 과정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구어체적 어법을 사용,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읽힌다. 값 7천5백원.

禪의 안목으로 본 80년대 노동현장

백무산 시집 '길은 광야의…'



투쟁에서 초월의 길로 들어선 사람 백무산 시인(45). 80년대 치열했던 노동현장을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해 충격을 주었던 그가 불교의 선(禪) 세계에 천착한 모습을 드러낸 시집 〈길은 광야의 것이다〉(창작과 비평사 刊)를 내놓았다.

박노해와 더불어 80년대 노동시의 쌍두마차로 활동했던 그이기에 이번 시집은 그를 기억하는 독자들에게는 충격을 줄 법하다.

'무성하던 잎을 비우고/환하던 꽃을 비우고/마침내 자신의 몸 하나/마저 비워버리고/이것은 씨앗이 아니라/작은 구멍이다'('풀씨 하나' 중에서)

해탈이란 절대의 경지에 도달하는 '초월'과는 다르다. 선이란 아주 본질적으로 일체를 뛰어넘는다. '텅 비어있는 상태'는 내면적 성찰을 통해 '해탈'에 이르기 위한 그가 택한 방편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오류에 대한 극복이 아닌 초월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만큼 그가 선을 반성의 도구로 삼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의 시구는 여전히 아름답다.

'오늘 아침 얼음물에 빨래를 하는데/ 그 물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물빛' 중에서)에 나타난 얼음물과 빨래의 눈부신 이미지는 차라리 깊은 산사에 칩거한 산승의 고졸한 정신적 윤기마저 느끼게 한다. 인간본질에 대해 사유케 하는 시집. 값 5천원.

깨달음 이르는 6단계 수행법 소개

마음닦기 무산본각 지음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길. 그 길을 따라가며 부처님이 누렸던 참된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방법중 하나는 부처님의 수행법에 의지해 보는 것이다.

재가자인 무산본각(無山本覺)이 펴낸 〈마음닦기〉는 부처님이 행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수행법을 기술한 책. 깨달음과 그 완성에 이르는 6단계의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문헌상으로만 알려져 왔던 사무색정(四無色定·선정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물질적인 속박을 받지 않게 된 경계를 4단계로 나눈 것) 등 선정에 이르는 수행법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았다. 책 내용의 핵심을 담은 CD를 부록으로 첨부해 수행법을 실생활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세계사, 1만2천원〉

화제의 책

중국 4대 소수민족의 역사와 삶

황하에서 천산까지 김호동 지음



더이상 잃을 것 없는 빈곤 속에서도 고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초몰랑마(일명 에베레스트산)는 불교적 심성을 잃지 않는 티벳인의 정신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황하에서 천산까지〉는 중국의 4대 소수민족인 티벳족 회족 몽골족 위구르족의 역사와 삶을 그린 현장답사 에세이. 이들 민족은 황허(黃河)에서 텐산(天山)산맥 사이, 중국 영토의 절반 가까이의 영토에서 자치구를 이루고 살고 있는 소수민족. 불교를 영혼의 모태로 삼고 살아가는 티베트인, 한때 초원을 호령했던 몽골인들의 불교와의 인연과 흥망성쇠 등을 그들의 종교적 삶에 맞춰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김호동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사계절,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입산	재 연	문학동네
5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6	티베트의 지혜	소갈 린포체	민 음 사
7	겨울부채	이 현 주	생활성서사
8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문외	불교시대사
9	카운슬링 불교	후지타 기요시	시 공 사
10	서장	대 혜	불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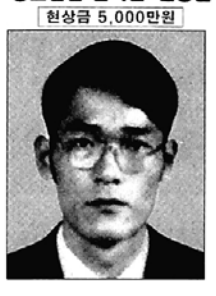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문의 36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신창원, 잡힐까? 안잡힐까?

강도살인 탈옥범 신창원
현상금 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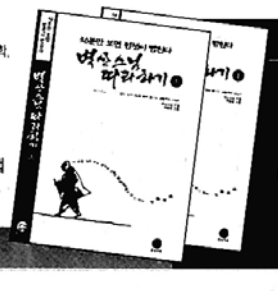
서울지방경찰청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불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德珠 대화상 은사로 득도, 1975~76 동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강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성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학염사 주지, 現 합천 칠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 6가지 괘 뽑는 법 · 쌀로 괘 뽑는 법 · 책페이지로 괘 뽑는 법 · 바둑돌로 괘 뽑는 법 · 동전으로 괘 뽑는 법 · 생활속의 숫자(아파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 투자/주식 : 2개월간 수요일을 노려라. 의약, 식품 주식이 좋다. · 시험/학문 : 다시 재정비하라. 마음만 앞서기고 있는 상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7일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절이다. · 부동산매매 : 타인, 중개인 말만 듣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 사업 : 새사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지혈 부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각권 12,000원

생활속의 문제점 불교적 해법 찾는 논문 잇달아 발표

실업자가 양산되는 요즘의 얽혀가는 노동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온 출가자의 식육(食肉) 문제, 심장질환사(死)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 수련이 심장질환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사례 등 현대의 민감한 문제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한 논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불교학보〉 제35집, 〈선무학술논집〉 제9집 등은 교학위주의 논문게재라는 관례에서 벗어나 실생활적인 관심사를 불교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을 싣는 등 논문영역의 폭을 확대시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집자 주〉



◇좌선을 통한 명상과 호흡조절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도하며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준다'는 논문이 '선무학술논집' 제9집에 발표됐다. 사진은 좌선에 몰두하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

"인간존엄성 차원 노동의 의미 재인식"

박경준교수 '불교의 노동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이 펴낸 〈불교학보〉 제35집에서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부)는 '불교의 노동관 소고(小考)'를 통해 노동에 대한 불교의 기본입장을 고찰하며 미래지향적 노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회문제인 실업문제는 곧 '노동의 위기'로 부를 수 있다"며 "광범위한 사회보장 정책으로 실업문제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교수는 불교 특유의 패러다임인 연기법과 사성제의 관점에서 노동의 문제를 해석했다. 연기법의 유전문(流轉門; 괴로움이 성립하게 되는 과정)과 환멸문(還滅門;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노동의 의미에 대입하여 '유전문의 노동'과 '환멸문의 노동'으로 구분한 것으로, 곧 고통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성질의 노동과 괴로움이 없는 열반을 지향하는 성질의 노동으로 분류한 것.

박교수는 "노동은 단순한 상품가치가 아니라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존엄한 것인 만큼 노동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며 "유전문의 노동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노동을 환멸문의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을 자아실현을 위한 신성한 활동으로 생각하며 자발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일할 것"을 강조했다.

"육식 않는 까닭은 승가 공동체의 윤리"

신성현씨 '불식육계'



〈불교학보〉 제 35집에서 신성현씨(동국대 불교학 강사)는 '불식육계(不食肉戒) 일고(一考)'를 통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출가자의 식육'에 대해 고찰하며 "근본율장에서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초기불교는 물론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 허용돼왔던 고기 먹는 문제가 대승불교에 이르러 새롭게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신씨는 "대승불교의 '불식육'은 어느때 갑자기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 '승가 공동체의 윤리'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온 의식이 〈열반경〉 〈능가경〉 〈범망경〉 〈보살지지경〉 등 대승경전을 통하여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육식에 대한 금지가 강하게 남아 있음은 〈사분율〉의 영향이기 보다는 〈범망경〉등 대승계경의 영향이 그만큼 크게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처님 당시는 고기 먹는 것을 허용했으나 공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점차 변화하였다는 것. 견(見)·문(聞)·의(疑) 3종이 청정한 것 이외는 먹어서는 안된다든가, 사람의 고기, 개고기 등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식의 제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다가 다시 영양가 있는 음식, 즉 미식(美食)으로 고기를 찾아나서는 것을 금하는 색미식계(索美食戒)가 나타났으며, 대승불교에서부터 비로소 고기를 무조건 먹어서는 안된다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주장이다.

"참선의 호흡조절 심장질환 치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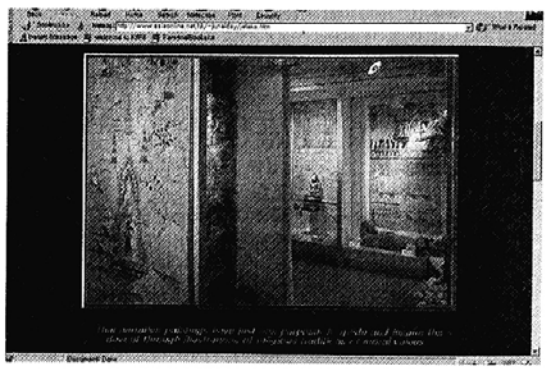
박옥규교수 '선과 심장'



국제선무학회(회장 김찰)의 〈선무학술논집〉 제9집에서는 박옥규 교수(원광대 의과대)가 '선과 심장'을 통해 "선 수련이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준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좌선시의 생리적 변화로는 산소 소비의 감소, 심박수와 호흡수의 감소, 뇌파의 α파 출현 등이 나타난다"며 "선수련은 자율신경의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심장을 동맥경화, 고혈압 등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즉 좌선은 산소(O_2)섭취, 이산화탄소(CO_2) 생성, 분시환기량, 동맥혈의 분비, 맥박수와 호흡수의 감소와 혈압의 하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교감신경계 작용의 저하상태와 일치한다는 것. 박교수는 "참선을 하면 불편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둡고 우울한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교감신경계의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교수는 호흡조절(調息)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호흡조절은 자율신경의 균형 조절을 통해 심장질환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교수는 "심장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욱혈성 심부전증' 환자에게 한달간 요가식 호흡훈련을 시킨 결과 산소포화도가 증가와 산소(O_2) 소비량 증가, 호흡곤란의 자각증상이 감소됐다"며 "선 수련으로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호흡조절로 호흡을 깊이 누리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상좌부 불교

부처님 생애 그린 동화 삽화 볼만

상좌부불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 인터넷 검색 사이트 '야후'나 '인포식'에서 테라바다(Theravada)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상좌부불교'와 '부처님 이야기'라는 사이트를 소개받을 수 있다.

△상좌부불교(Theravada)=하이테크로 구현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불자 네티즌이 한번쯤 방문해 정신과 기술 문명의 총아를 마음껏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부처님 생애·상좌부의 대장경 등의 정보 이외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시론·불서(佛書)·불교뉴스·전자도서관 등의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탄생·고행·성도·전법 등으로 구분해 제공된 '부처님생애' 서비스에서는 나란다스님의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서 일부를 발췌해 제공하고 있다. 탄생과 성도에는 동화적인 삽화도 함께 보여준다.

'대장경' 서비스에서는 한국불교에서 낯설지만 아난다존자가 경·율·론 삼장을 결집해 만든 경전을 상좌부불교 대표적인 경전으로 소개하고 30여종의 경전에 대해 주석과 전산본을 각각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성제, 팔정도, 윤회, 열반 등의 불교용어도 풀이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담마난다스님의 〈불교의 신념〉에서 일부를 인용해 동시대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질문되는 세계 기원·원죄 등에 대해 불교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불교사·불교사회학·불교철학등 여러 장르에 대한 논문, 에세이, 서적 등을 알파벳 순서로 제공하고 있다.

△부처님 이야기(Tales of Buddha)=부처님 전생담이 표현된 그림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 태국에서 전래된 '자타카' 즉, 부처님 전생담이 형상화 된 200여점의 그림을 모아놓고 불자 네티즌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림 대부분은 태국의 라타나코신 시대에 그려진 고대 불교미술 작품이다. 이중에서 태국의 종교·예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림을 엄선해 '마왕의 유혹을 뿌리치는 부처님' '석가모니의 탄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웹마스터(webmaster)인 알데이씨는 "태국의 고대미술은 영적인 교감을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가치에 헌신하게 한다"며 태국의 불교미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평면적 구도 속에서 마스크를 쓴 듯한 인물이 등장하는 태국의 불교미술은 현란한 기교의 그림과 비교해 거칠고 서툴게 보이지만 한편으로 인간 본래의 감성과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네티즌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면 태국 불교미술이 지닌 고귀함과 미천함의 교감 속에서 내면의 '영혼을 일깨우고 신비감도 맛볼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태국의 불교미술를 이해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예술〉 〈태국의 전통미술〉 등 참고문헌 7종도 소개받을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http://www.inet.co.th/ Cyberclub/bow
http://www3. asiaonline.net/users/junalday/jataka-x.html

"佛身의 이설 화쟁논리로 설명"

김상현교수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

"원효스님은 불신(佛身)에 대한 경론(經論)의 다양한 해석을 그의 특유한 화쟁논리로써 화회(和會)하여 설명했다."

故 이기영 박사가 〈기신론해동소(起信論海東疏)〉 연구의 일환으로 논의했을 뿐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없었던 원효스님의 '불신관'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한국사상사학〉 제11집에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원효의 불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엄경소〉 〈금광명경소〉 등에서 불신에 관한 자료를 새롭게 찾아내 원효스님의 불신관을 고찰했다.

이번 논문은 원효스님이 불신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열반종요〉 〈무량수경종요〉 등에 덧붙여 밝힌 것으로, 김교수는 "원효스님은 불신에 관한 각 이설(異說)을 화쟁논리로써 설명하며 법신이 나타내는 유위(有爲)의 상(相)에 주목하기도 했는데, 이는 법신을 토대로 전개되는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의 역동적인 작용을 중시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신은 체(體)의 본질로서 곧 무위(無爲)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딱하게 뭉치고 굳어서 아무런 동작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김교수는 "삼신(三身)의 명칭은 여러 경론에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효스님은 '화신의 모든 양상은 응신의 지혜와 자비의 나타남이며, 응신의 모든 덕은 법신의 진성(眞性)과 덕이 나타난 것이며, 법신의 경지(境智)는 본래 담연(湛然)한 것'이라며 삼신을 유기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육입처와 육근 불교수행의 토대"

이중표교수 주장

한국종교학회 각 종교분과별 발표회로는 처음 시도된 불교분과 월례발표회가 13일 연세대 제2 인문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금까지 별개의 것으로 다뤄진 육입처(六入處)와 육근(六根)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육입처와 육근은 동일한가'에서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불교의 교리와 수행은 육입처와 육근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 두 개념은 지금까지 '감각기관'을 뜻하는 동일한 의미로 잘못 이해됨으로써 밀접한 연관을 갖는 불교의 이론과 실천이 별개의 분야처럼 다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근'이고, 이러한 삶에서 무아(無我)의 진리를 모르고 무명(無明)에서 욕탐을 일으키는 허망한 자아의식이 '육입처'"라고 강조하며 "육입처와 육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근본불교의 개념과 교리체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의 사상적 연관관계의 이해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건강에의 신비! 옥

장川 玉山家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힘들때는 옥을 같이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드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증(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율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들 합니다.(한방의 세계적인 권위인 북경중의병원 임상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참선용옥방석, 환자용 옥침질매트, 품 참구류, 복대, 무릎대, 옥비누외 기초화장품, 녹차잔외 옥도자기

신 옥분 108염주 (10mm알, ₩60,000) 목걸이 겸용 옥분 혼합제제 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품 마음자리를 잘 볼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맹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셔요.

서울올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KAIST 신개발 화장실(욕실) 타일바닥 미끄럼 완전 방지제

현황 바닥에 물기만 있으면 한두번씩 미끄러지지 않은 사람이 없음. 미끄러져서 뇌진탕, 식물인간, 팔다리 골절상등 수많은 사고 발생. 철없이 뛰노는 아이들, 부모님들, 부녀자들은 너무나 위험

※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의 안전 필수품

■제품의 특징 (98 산업박람회 최우수상품 선정)
-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개발하여 98.11월 KBS TV 첨단벤처기업 신발명품으로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프로에 출연, 효과극찬
- 단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 효과(보증기간 5년)

■사용방법 (설명서 같이 송부)
- 청소하고 마른후에 그냥 발라주면 됨
- 타일자체에 흡수됨 : 1시간 30분 소요

■가 격
- 화장실 1개용 : ₩18,000/ 2개용 : ₩30,000

■주문방법 (우송료본사부담)
- 전화로 주문하시면 등기소포로 즉시 우송

대리점, 취급점 모집(신도분 특별우대)
⊙공급시작 초기임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식당, 목욕탕등 수요 무제한 ⊙최고수익 보장(가장 확실한 사업) ⊙성공영업 전략 책임지도 ⊙점포없이 가정에서도 가능 ⊙소자본 창업자, 공사퇴직자, 현 점포운영자 (전국 어디나 친절 상담)
※ KAIST 신개발 가정 필수품 3종 더 있음.

※ 사찰, 청년회, 신도회 기금조성 취급환영 ※

▲공 장: 한국과학기술원 기술혁신센타
▲공급원 : (주)·대 우 통 상 (대표 김 순 현)
저는 한마음 선원 대구지원 신도임
전화 053)567-4034~5 / FAX 053)567-4035

한자(漢字)는 현실입니다.

"불경(佛經)공부, 그 어려움은 오로지 한문 때문에…"

한자 2,000자 강의 편

기본 부수 214자를 중점 강의하였으며 교육부 지정 한자 1,800자에 실용한자 200자를 덧붙여 총 2,000자를 그림과 함께 그 유래와 쓰임새를 알기 쉽게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20개·교재 2권)

한문문법/고사성어 강의 편

한문불경이나 고전 공부에 가장 걸림돌이었던 한문문법을 허자 중심으로 총정리하여 한시, 고전 등의 풍부한 예문과 함께 강의하였으며, 고사성어 80여 문구까지 강의

(비디오테이프 2시간용 3개·교재 1권)

● 비디오로 한문을 직접 배운다! ●
이래현 선생님의 한문 강의 비디오 교재

문의처 : 한영 미디어 02)516-7500(代)

인연에 따르고 집착은 말아야

경전 속의 禪 사상 10

안반수의경〈하〉

숨과 수와 의식 하나 될때 초선

마지막 단계선 의식마저 사라져

글쓴이



이 태 영

〈한국요가연수원장〉

선정법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이 안반수의법이다. 이는 누구나 하고 있는 호흡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호흡이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리학적인 입장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리학적 효과 때문에 인도의 전통적인 고행이나 요가행법은 물론이고 중국의 선도나 국내에서 유행하는 단전호흡류는 모두가 호흡수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남방불교의 선정법인 위빠싸나도 대부분 호흡을 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북방불교에서도 천태지관은 물론이고 선종의 대부분의 유파에서 호흡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호흡의 이러한 효과 때문에 〈안반수의경〉에서는 중생에게 안반수의법을 가르치는 까닭이 네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고통으로부터 떠나기 위함이고, 둘째는 마음의 산란을 피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숙세의 업을 끊고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함이고, 넷째는 열반의 길을 얻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처럼 안반수의법은 열반이라는 추상적인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고 현세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편적인 선정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에는 행법의 자세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부처님께서 앉아서 하셨다고 함으로 앉은 자세가 일반 선정법처럼 가장 무난하다. 〈해탈도론〉 등에는 안반수의법에 결가부좌를 하라고 하나, 어느 좌법이든 관계없으며 행주좌와에서도 가능하다. 다음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며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헤아린다. 숫자를 세는 방법에는 들어오는 숨을 세는 입식관, 나가는 숨을 세는 출식관 등이 있으나, 이 경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세는 입출식관을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숨이 들어올 때 '하나' 나갈 때 '둘', 또 들어올 때 '셋' 나갈 때 '넷' 하는 식으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모두 합하여 열에 이르기까지 센다. 결코 열을 넘지 않으며, 열에 이르기 전에 숫자를 잃어버리면 다시 처음 '하나'부터 세어간다. 이 방법이 수식(數息)의 단계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억지로 숨을 많이 마신다든가 멈춘다든가 또는 아래로 밀어내린다든가 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숨쉬기는 될지언정 '수의'는 되지 않는다. 경에는 "수의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이니 마땅히 인연에 따르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그래서 숨이 길게 들어오면 '나의 숨이 길게 들어온다'고 알고, 만일 길게 나가면 '나의 숨이 길게 나간다'고 알면 된다. 이처럼 의식도 버리고 그저 숨을 바라볼 때 수의(의식집중)가 되는 것이다.

이때 숨과 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수와 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 즉 의식의 집중이 있어야 한다. 숨과 수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결같이 움직이는 경지에 이를 때, 수식이 이루어진 것이며 초선의 경지가 된다. 이 수식의 단계가 안반념법의 토대가 된다. 경에서는 비유하기를 수식은 땅이고, 상수는 쟁기이고, 지는 멍에이고, 관은 씨앗이고, 환은 비이고, 정은 실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식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나머지 단계는 거의 수동적으로 이루어 진다.

다음 단계인 상수는 마음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과 하나가 되어 마음이 객관에 끌리지 않고 마음이 텅 빈 것과 같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의 단계에서는 어느 한 곳에 숨과 생각이 그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만 있다. 이러한 지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 멈춘 것이고, 숨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멈춘 것이고, 마음이 코끝에 멈춘 것이고, 마음과 숨이 모두 멈춘 것이다. 관의 단계는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오온(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연기의 도리로 관찰하는 것이다. 환은 숨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생각에 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지이며, 생각까지 없어진 상태가 마지막 정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숨의 들고 남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수식과 상수이고, 마음과 숨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지와 관이고, 하나의 의식만이 있는 것이 환이고, 이것 조차 없는 경지가 정이다.

과학산책

기계와 인간의식

'의식이 물체운동에 영향' 동전던지기 실험으로 입증

한 생각 실제현상 일으키니 순간 순간 헛되지 않게



축구경기에서 공격하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심판이 양팀 주장을 모아놓고 동전 던지기를 한다. 특별히 유리한 방향이 있다고 할 때 우리팀의 주장이 생각을 잘 내어 원하는 동전의 면이 나오도록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우리 생각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내의 프린스턴 공학 이례적 현상연구소에서 발표한 1995년 5월 보고서(http://emp.felk.cvut.cz/~werner/psi/papers/finalcap.pdf)에 의하면 사람의 생각이 동전 던지기와 같은 규칙적이지 않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이 실험은 노벨상의 산실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루어졌고 매우 까다롭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여겨져온 현상에도 작지만 뚜렷이 관찰되어지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실험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1979년 Robert G. Jahn에 의해 설립된 이 연구소는 공학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민감한 소자나 예민한 공정이 장치 운영자인 인간의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정밀한 과학적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인간의식이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실체와 인간의 생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시말해,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물체와 현상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따로 존재하는 것 인지 만약 그렇지 않고 연관이 있다면 그 연관관계를 객관적인 과학실험으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약 140명의 자원봉사자들 모두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지 않았으며 이 중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초심리적 현상들에 부정적인 회의론자라고 밝혔다. 이 실험에서는 동전 던지기가 다이오드라는 전자소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념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실험은 200개의 동전을 매우 빠른 속도로 던져 앞면과 뒤면이 나오는 회수를 측정한다. 다만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매우 빠르게 동전을 던진다는 것만이 일반 동전 던지기와 다를 뿐이다. 실험자는 마음 속으로 앞면, 뒤면, 혹은 아무런 의도를 가지지 않는 3가지 의도를 마음에 품는다.

인간의 의도가 이와 같은 전자장치의 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한 실험의 경우, 실험자가 위의 3가지 의도하에서 5000회 동전 던지기를 반복했다. 실험 결과, 아무런 의도를 갖지 않은 경우는 결과가 이론적 기대값과 비슷했다. 즉, 통계적 분포내에서 앞면과 뒤면이 비슷한 회수로 나왔다. 그러나 앞면 혹은 뒤면이 나와라는 의도를 품고 행한 실험의 결과를 보면 이론치와는 다른 값들이 나타났다. 작기는 하지만 우연성에 의해 생기는 확률 특성과는 체계적으로 다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5%를 초과했다. 이 실험에 대한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3×10-7 밖에는 되지 않는다.

수백만번의 실험을 통해 운영자인 인간의 의도가 다양한 물리적 소자들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여 작지만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이를 확인했다. 이는 운영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으며 개인과 그들의 성(性)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현상들은 거리와 시간에 무관한 것 처럼 보인다. 수백만번에 이르는 잘 설계된 실험의 결과는 인간의 생각이 원인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불가에서는 한 생각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의 한 생각은 순간순간 매우 소중한 것이며 실제적 현상을 일으키는 힘을 가진다. 우리와 연결된 알지 못하는 삼라만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소중한 한 생각을 번뇌에 싸여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9

선정

선정은 지혜 이루는 바탕

감각대상서 관심 거둬들이고 직관 열리면 탐진치 타파

우리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심화시키는 선정(samadhi · 禪定)은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조금 더 미묘한 세계로 점차 관심을 이동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사무색정(四無色定)이라는 수행법들을 사용한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외적인 자극들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지 않을 때 얻는 내적 통찰을 증진시키는 훈련이다. 감각자료에게서 관심을 철수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관심을 버림으로써 선정을 하는 우리들은 가슴속에 항상 남아있는 내적인 고요를 회복하게 된다.

선정의 특징은 주관적으로는 온화하고, 고요하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를 이 세계로부터 들어올려서 감각적인 경험보다 훨씬 명확한 출세간적인 경험의 세계로 몰두시킨다. "선정에 든 사람은 실제의 모습을 알고 본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정은 지혜를 이루는 근본적인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선정은 지혜의 필수적인 우선 조건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상(相)을 붙잡는 것'이 첫 단계다. 이것은 사고의 대상으로서 어떤 것을 붙잡고, 그 대상 외의 다른 것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상의 특징이 인식될 정도로 열심히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선정이 발전된 단계 등이다.

인도의 용수선사와 같은 선각자들은 "세 번째 단계만이 초월적인 선정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선정이 없이는 앞의 두 가지에도 숙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정이 숙달되면 불도(佛道)로 들어가는 입구며 '무위'를 보게 되는 정신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가 나타난다. 여기서는 결코 논증으로만 무위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정을 닦는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유의적인 것들을 초월하게 하는 신비적 직관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며 곧 그의 심안이 열린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것을 설명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우리들은 어떤 유위의 현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을 돌리지 않으며 그 속에 안주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은 마치 물방울이 연꽃잎에서 떨어지듯이 내쫓기고, 철수하고, 후퇴하게 된다. 상징이나 사건인 어떤 대상일지라도 그것은 단지 장애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들은 다양한 조건들로 이루어진 대상을 대하면 단순히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이 습관이 되어야만 우리들은 '진정한 선정'을 만나게 되고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평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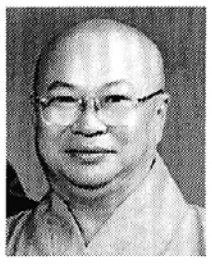
선정이 깊어지면 모든 세속적인 일로부터 점진적인 이탈이 이루어지고 촉진되며 우리들이 찾는 불도(佛道)의 덕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들이 모든 유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평정한 마음을 키움에 따라 즉, 우리의 명상에서 평정함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김에 따라 우리의 신심(信心)은 더욱 확고해지고 정진력 또한 강해질 것이다.

"이제 드디어 초월적인 길이 떠오른 것이다"라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소로우의 말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한 평정을 이룰 수 있다면, 구름이 걷힌 뒤의 달을 보는 것처럼 명확히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직관 위에서 길은 계속 이어진다. 길이 나타나면 전에는 타파하거나 분쇄하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덩어리들이 분쇄되고 타파된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시방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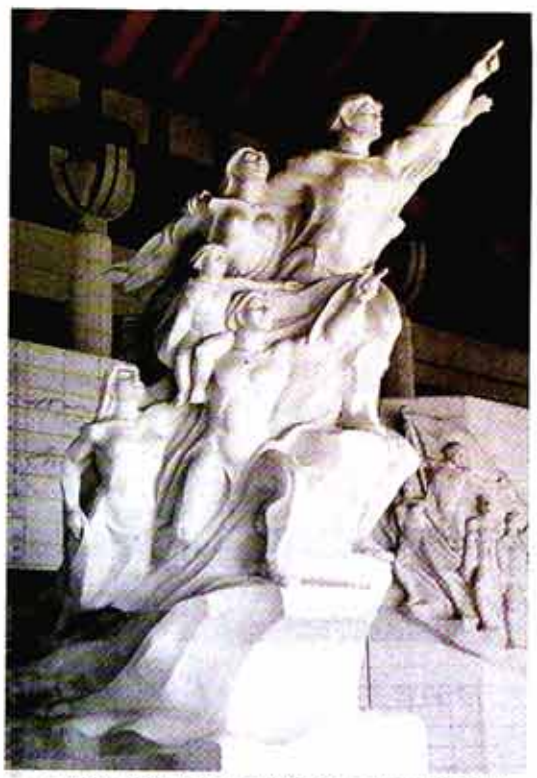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자신 허물고 새 틀 만들기 '삶의 조각'

산문밖의 禪 원로조각가 김영중씨



◇64년 제작한 동국대 명진관 앞 석가여래 불상. 최근 보수작업을 했다.



◇86년에 제작한 독립기념관 상징조형물 '강인한 한국인상'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조각이란 정신(spirit)이 전적으로 재료의 매체 속에서 스스로 상상토록 만드는 놀랄만한 투시력(投射力)을 행사한다." 헤겔은 조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우리나라 현대 조각계를 이끌어 온 원로 조각가 김영중씨(73세)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인다.

"조각은 본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먹고, 배설하고, 걷고, 웃고, 울고 하는 것처럼 눈뜨면 그저 조각을 하는 겁니다. 조각속에 그런 일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에게 조각은 삶의 일부요, 삶은 조각의 일부다. 삶과 조각, 경계가 없는 그의 조각인생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그는 살아있는 조각이 되었다. 물론 처음부터 말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다. 때론 다듬어지지 않은 돌표면처럼 거칠기도 했고, 차갑고 날카로운 철조각같기도 했다. 또 반죽되지 않은 흙처럼 이리저리 흩어지기도 했다.

홍익대 미대를 갓 졸업한 5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한다는 것은 밥먹고 사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조각가는 직업으로 인식조차 되지 못했고, 해봤자 돈도 안됐다.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지 남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조각을 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밤 윗목에 앉아 작품을 구상하고, 뚱땅거렸다. 때로는 먹고살기 힘들어서 도장도 파고, 나무장작도 팔고, 영화지막도 만들었다. 심지어 서울역 주변의 다방공사까지도 했다. 그렇게 힘한 세월속에서도 조각은 그가 살아가는 최대의 목표로 중심에 있었다.

'높은 산에서 굴려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조각, 그것이 조각'이라는 은사 윤호중선생(작고)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시각적으로 어디 한군데 약하게 보이는 데 없이 완고하고 튼튼한 조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거기다 자신의 생각과 삶을 투영시켜 내면적으로도 단단한 자신만의 조각세계를 굴쳐나갔다. 인물 중심의 구상조각이 주류를 이루는 그의 작품은 내면으로부터 분출되는 역동적인 힘과 의지를 보여준다.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강인한 한국인상', 현대건설의 '건설역군상', 광주비엔날레의 '경계를 넘어' 등 대표 작품속에서 그런 조각세계를 만날 수 있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조각의 소재가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철용접 조각을 주로 했습니다. 동국대의 4·19기념탑, 명진관 앞의 불상도 그 시절에 만든 것이지요. 이번에 동국대 1백주년 기념관의 대각전 본존불상을 조성하게 된 것도 그때의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 초 그는 당시 동국대 총장이던 백성욱박사로부터 특별하고도 별난 동상 제작을 요청받았다. 사진도 한 장 없는 사람을 3시간이 넘게 설명하더니 자기가 말한대로 한 달안에 동상 모형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다. 무리한 요구였지만 당시 그에게 있어 그런 작업을 요청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동상을 만들어야 하나 한달내내 고민 하다가 부처님 흉내를 내어, 참선을 해보자는 생각에 무작정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이것 저것 번민이 여간 아니었지요. 그렇게 한 열흘을 앉았더니 조금씩 머리속에 뭔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토대로 그사람의 형상을 관상학적으로 접근해 간거죠."

머리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놓칠세라 간신히 모형을 만들어 사진을 가져간 그에게 백박사는 동상 모형과 꼭 닮은 작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사진 보고 만드는 것은 모두 헛것이야. 닮게도 안 닮게도 할 필요없이 당신 마음대로 만드시요"라고 말했고,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내가 찾아 갈 때면 언제나 '모든 것을 비우고 또 비워라. 비우면 그만큼 충만해 진다. 그 충만한 것까지도 비워라' 하시던 백박사님의 그 가르침을 칠십이 넘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비우고 또 비우면 충만해진다
그 충만까지도 비워라"
이제야 알것같은 백박사 말씀
작업전 가부좌틀고 정신집중
'한국인상' 등 대표작 1백여점

그후로 그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반드시 참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일어나서가 아니다. 조각이 그에게 본능인 것처럼 일종의 본능으로 그는 참선을 한다. 눈을 감고 앉아 자신을 통해 구현될 조각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아름다운 조형언어를 조각품에 담아낸다. 생각이 담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각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의 하루는 온통 조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매일 오전 10시 자신의 사무실이자 전시실이며, 작업실인 연희조형관에 나와 저녁 10시 즈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단 1분도 쉬는 일이 없다. 조각을 구상하지 않으면, 미술계의 발전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기에 바쁘다. 원로라 불리우는 대부분의 이들이 현장에서 뒤로 한발짝 물러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조각가로서 삶의 중심에 아직도 당당하게 서 있다. 원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 50년이 넘는 세월동안 그가 만든 작품은 자신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다. 대표적인 것만 1백여점.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데만 그치지 않았다. 조각가들이 만든 작품을 일반인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평가받도록 하기 위해 76년 입체물인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을 만들었다. 조각의 크기와 기준을 정해 중(重)을 단위로 한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은 재료의 사용량만을 중심으로 측정하던 조각의 가치를 예술적 가치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가 6년간의 연구를 거쳐 고안한 것이다. 조각작품계산기준법은 이후 입안공포돼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즘 그는 미술계의 개혁을 위한 법개정 등 관련작업을 준비중이다. 그의 사무실에 조각품과 화구보다 사회와 법, 행정 등 온갖 서적이 즐비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도전하는 정신 없이는 조각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미술개혁 작업도 조각가로서의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돌을 깨고, 흙을 반죽하는 모든 과정만이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틀을 허물어 내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나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조각이요,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깨지고 부셔진 그곳,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낸 그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도전하는 정신없이는 조각가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73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원로 조각가 김영중씨.



◇연희조형관 1층 전시실 작품사이에선 김영중씨는 완고하고 튼튼한 조각 속에 삶과 생각을 투영시켰다.

글=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온순하고 영험한 동물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㉙ 양



◇표충사 12지신상 벽화중 '양', 조선시대.

양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도 동료간의 우위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고 온순하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천성이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양은 예로부터 길흉화복을 알려주는 영험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동 서양을 막론하고 제물로 많이 쓰여왔다. 양의 모습을 본뜬 '羊'자는 모든 기쁨을 포괄하는 글자로 아름다움(美) 상서로움(祥) 착함(善) 의로움(義)등의 글자에 다 들어가 있다.

불화에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원숭이 닭 개 돼지 와 더불어 양이 12지신으로 등장한다. 12지신상도, 능묘의 호석, 고분벽화, 석탑, 석관, 부도, 등경, 불구류 등에 나타난 양은 12지신의 여덟번째 동물로 오후 1~3시와 음력 6월을 지키는 시간신이자 남서남을 지키는 방위신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왼쪽 그림은 조선시대 그려진 표충사의 12지신상 벽화중 양의 모습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목자가 돌보는 양떼에 곧잘 비유한다. 교회지도자를 목사(牧師), 목사의 교회운영을 목회(牧會)라고 함도 양과 목자의 이러한 비유에서 유래한 말이다.

학림(예천 법회암 주지)



◇ 보티첼리作 '모세의 시련'(부분), 1481~3년, 시스티나 성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⑪

四浜境存心 謂做功夫時
사민경존심 위주공부시
將一切內外諸境 悉觀爲空寂
장일체내외제경 실관위공적
只存一心 獨標獨立
지존일심 독표독립
所以古人云 不與萬法爲呂
소이고인운 불여만법위려
不與諸塵作對 心若着境
불여제진작대 심약착경
心卽是妄 今旣無境 何妄之有
심즉시망 금기무경 하망지유
乃眞心獨照 不得於道
내진심독조 불애어도
卽古人 奪境不奪人也
즉고인 탈경불탈인야
故有語云 上國花已謝
고유어운 상운화기수
車馬尙駢闐 又云 三千劍客
거마상병전 우운 삼천검객
今何在 獨計莊周定太平
금하재 독계장주정태평
此是浜境存心息妄功夫也
차시민경존심망식공부야

칼을 쓰고 있으니 천자의 칼을 쓰라고 했다. 즉 부국 강병의 정치를 펴면 온 나라가 다 복종해오니 이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의 칼이라고 했다. 이 말에 조문왕은 검술을 그치고 3개월간 밖을 나오지 않자 조문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3천 검객이 자살했다는 중국 고사가 있음. 여기서 3천 검객은 경계에 비유되고 장자는 마음에 비유되었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는 없애고 마음은 둔채로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五浜心浜境 謂做功夫時
오민심민경 위주공부시
先空寂外境 次滅內心
선망적외경 차멸내심
旣內外心境俱寂 必竟妄從何有
기내외심경구적 필경망종하유
故灌溪云 十方無壁落
고관계운 시방무벽락
四面亦無門 赤裸裸淨灑灑
사면역무문 적나라정쇄쇄
卽祖師 人境兩俱奪法門也
즉조사 인경양구탈법문야

공부할때 경계 다 비우고 관찰하되 단지 한 마음만 홀로 드러내어라

넷째는 경계만 없애고 마음은 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안팎의 모든 경계가 다 비고 고요하다고 관찰하되, 단지 한 마음만 홀로 드러내어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도 말하기를 '모든 법과 짝하지 말고, 모든 대상과도 상대하지 말라' 한 것이다. 마음이 만일 대상에 집착하면 그 마음은 즉시 망심이 되지만 이제 이미 대상이 없어졌다면 무슨 망심이 있겠는가. 이에 진심만이 홀로 비쳐서 도에 장애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이 말한 '경계는 빼앗되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동산에 꽃은 이미 다 졌는데 수레와 말이 오히려 붐비고 있네(즉 꽃이라는 경계는 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에 비유된 수레 소리는 남았다는 뜻임)' 하였고, 또 누구는 '3천 검객은 지금 어디 있는가. 홀로 계획을 세운 장주가 태평을 이룩했네(옛날 조문왕[趙文王]이 검술을 좋아해 3천의 검객을 두고 서로 싸우게 해서 해마다 백여명이 죽어갔다. 이때 장자가 조문왕에게 칼에는 천자의 칼, 제후의 칼, 서민의 칼이 있는데 지금 왕은 서민의 칼을 쓰고 있으니 천자의 칼을 쓰라고 했다. 즉 부국 강병의 정치를 펴면 온 나라가 다 복종해오니 이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의 칼이라고 했다. 이 말에 조문왕은 검술을 그치고 3개월간 밖을 나오지 않자 조문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3천 검객이 자살했다는 중국 고사가 있음. 여기서 3천 검객은 경계에 비유되고 장자는 마음에 비유되었음)'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계는 없애고 마음은 둔채로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다섯째는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부할 때, 먼저 외부의 대상을 비워 고요하게 하고 다음은 안으로 마음을 없애버린다. 이미 안팎으로 마음과 경계가 함께 비워졌다면 끝내 망심은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그러므로 관계스님은 '시방에는 벽도 없고 사면에는 문도 없으니, 발가벗어 깨끗하기가 물뿌린 듯하네' 하였으니 이는 조사께서 사람과 경계를 다 빼앗는 법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말하기를 '구름 흩어지고 물 흘러가니 천지가 고요히 비어있구나' 하였고 또 '사람과 소가 다 보이지 않으니 바로 달밝은 때로다' 하였으니 이것이 마음도 없애고 경계도 없애어서 망심을 쉬는 공부이다.

즉조사 인경양구탈법문야
故有語云 雲散水流去
고유어운 운산수류거
寂然天地空 又云 人牛俱
적연천지공 우운 인우구
不見 正是月明時
불견 정시월명시
次浜心浜境息妄功夫也
차민심민경식망공부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비록 적게 가졌어도

태허스님 〈횡성 봉복사 주지〉



약력
- 1916년 충남 공주 生
- 36년 공주 갑사에서 호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41년 공주 마곡사 전문 강원 대교과 졸업
- 44년 일본 오사카 관서 고등 부기학교 졸업
- 49년~52년 충남 부여 무량사 주지
- 50년 충남불교 종무원 총무국장겸 이사
- 53년~58년 공주 갑사 주지
- 61년~79년 원주 구룡사 주지
- 95년~현 횡성군 봉복사 주지

염불은 부처님 만나려는 수행 불 · 보살 명호 마음에 채우면 일체 사량분별 끊어집니다

이곳 강원도 골짜기에도 봄이 찾아 오려는지 이른 아침마다 맑고 투명한 새들의 노랫소리가 한결 정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경제 한파로 얼어붙은 중생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때일수록 많이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지켜주는 보살행을 펼쳐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생계 유지에 빠듯하고 여유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받아들여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펼치는 보살행의 근원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힘은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들의 번뇌가 고통에서 나오듯 보살행도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쓰라린 고통이기에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욕구가 바로 보살행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보살행의 원천은 책에 있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 바꾸어 말해서 그 삶속에서 겪는 무한한 고통이야말로 보살행의 동력인 것입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에게 한(恨)을 줍니다. 특히 그 고통이 타의로 생긴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신 분노와 진심, 개인적인 복수심이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한이야말로 보살행을 발심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이라는 놈은 중생에게는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전환되고 보살에게는 서원으로 바뀌어 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똑같은 원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지는지 혹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자신이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이켜 생각하고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낼때는 한이 서원으로 변화됩니다. 자기가 겪는 고통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욕구에만 빠져 있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반면, 자기가 겪는 고통에서 나와 같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자기 아픔을 해결하려는 바람 이상으로 타인의 고통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 될 때는 서원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픔의 극복을 개인적인 한으로 끝내지 않고, 한(恨)의 사회화로 승화하는 그 밑바탕은 바로 더 아픈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마음, 즉 보살의 서원인 것입니다.

나도 가끔 중생들에게 보살행을 잘 실천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에게 되묻곤 합니다만 그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렇게 먹물옷을 입고 불제자가 된지도 60여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벌써 여섯 번이나 바뀔 정도로 긴 세월입니다. 거의 매일 법주사를 다니시며 불공을 드리고 집에 오셔서도 맞이재를 지내실 정도로 불심이 돈독하신 할머니를 보고 자란 영향 때문인지 내 출가는 집안의 반대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습니다.

행자 생활 때부터 은사스님은 신도들에게 하심(下心)과 올바른 회향을 강조하셨어요. 무릇 중이란 신도들의 시주밥을 얻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공양이나 다과도 신도들이 다 먹은 후에 먹도록 가르치셨어요. 또 사찰에 들어온 삼보 역시 신도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것이므로 근본 마음을 헤아려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 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은사스님 또한 항상 이를 실천하셨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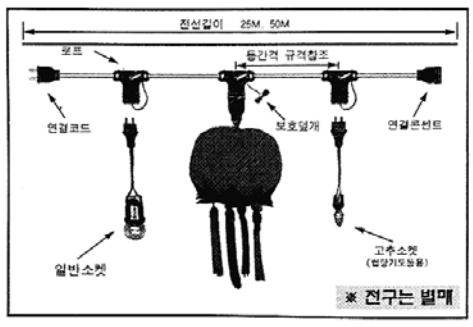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신도 두명이 은사스님을 마곡사로 찾아 왔어요. 방으로 스님을 찾아오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시더라구요. 그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늘 신도들을 살피며 그들 아래에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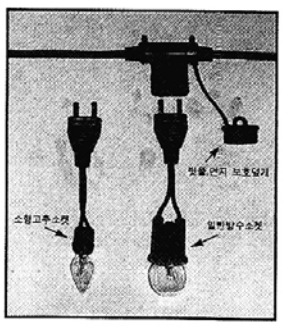
출가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복지 사업이었습니다. 무량사 주지로 있을 때 사찰내에 광제원이란 고아원을 만들었지요. 그 당시가 1951년 6·25 난리통이라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나를 믿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1백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탁발을 했지요.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찰 재정이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도 복지 단체가 꽤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면 우리 불교는 복지 단체와 사회 시설들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요즘은 경제 한파로 거리를 해매는 노숙자나 실직자들에게 잠자리나 따뜻한 공양 한끼를 대접할 수 있는 보시행이 절실한 때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불국토 건설은 따로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나는 평소 신도들에게 참선보다는 염불을 많이 하길 권합니다.

염불은 글자 그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에 마음을 끊임없이 집중 시키는 것입니다. 염불(念佛)이라는 말에서 염(念)은 단순한 생각이 아닌 '집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로 마음을 집중시켜 번뇌와 망상을 없애고 일체의 고통을 소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염불의 참뜻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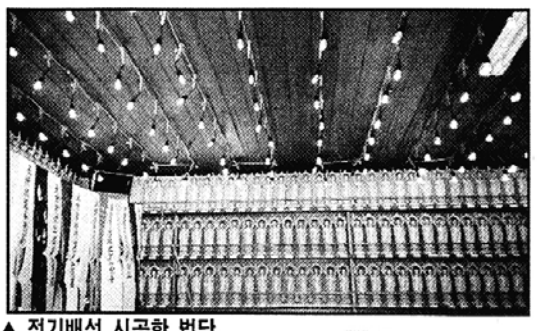
규 격
⊙ 등간격 : 30㎝, 50㎝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 시공전선 (회색) 제품 ■



■ 시공전선 전개도 ■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큰스님 수행한담

나눌줄 알아야 보살"



◇97년 8월 3·4교구 본말사주지 여름 수련법회 사진. 네번째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태허스님이고 앞줄 왼쪽부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 신흥사주지 도후스님.

"삶의 고통 받아들이기 따라 보살행의 동력이 되기도하고 분노와 진심 일으키기도 해요"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염불은 그저 불보살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되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교 수행의 요전이라 할 수 있는 〈능엄경〉을 보면 염불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세지보살이 아뢴 부분이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염불하는 중생을 극락 정토에 태어나도록 큰 용맹심을 일으켜 주는 보살이지요.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염한다면 현생에나 내생에 틀림없이 부처님을 볼 것이며, 언제나 부처님과 함께 해 어려운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참 마음이 열리니, 향수를 바른 사람의 몸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고 말했지요. 이 말은 염불 수행의 특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나타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는 것, 이는 우리 모든 불자들이 신명을 바쳐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나는 많은 경전중에서 〈지장본원경〉 독경과 지장보살 염불을 60여년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장본원경〉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이루고 계신다는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경전입니다. 또 지장보살은 도리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고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신다는 분입니다.

"이 수많은 세계를 다 살펴도 지장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러 구제한 중생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누구든 지장 보살의 모습이나 거룩한 그 이름 단 한번만 불러도 캄캄한 지옥을 벗어나리라"고 〈지장본원경〉에도 나와 있듯이 나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염불해 많은 공덕을 입었습니다.

부여 무량사·공주 갑사·원주 구룡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으면서 많은 불사를 해왔지요. 그런데 불사때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는데 그때마다 지장보살님께 매달렸더니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불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주 구룡사에 있을 때 쉰 살먹은 보살이 한 명 찾아와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이유인 즉, 남편이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가구를 마구 부수고 심지어는 그것을 말리는 자신과 아들한테도 손찌검을 서슴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어렸을때는 아이들을 위해 그럭저럭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참겠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 이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창피해서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절에도 찾아오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들 보는 앞에서 지장보살 염불을 열심히 하라고요. 그 보살은 108일, 324일 자신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죽기 살기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진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행동을 하는 그 보살에게 남편은 귀신이 씌웠다고 염불하지 못하게 염주를 집어 던지기 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 보살은 개의치 않고 염불 정진을 묵묵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부터인가 집안에 들어서면 항상 들리는 염불 소리로 인해 남편 행동에 변화가 옴을 느꼈답니다. 염불 기도를 시작한지 5년째 남편이 밤에 들어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보살에게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술을 먹을때마다 부인의 염불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쳐 괴로웠 다는 말을 했대요. 염불의 공덕으로 가정의 행복을 되찾은 가피를 입은 셈이지요.

산에 올라갈때는 하나의 길을 택해 올라가지만, 산 정상에서 보면 모든 길이 다 보이고 다 통해 있음을 알 듯 10만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요, 한 부처님이 10만 부처님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우선 하나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고집하지는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한 부처님의 명호에 끝까지 의지하고 명해야만 그 부처님과 만나게 되고, 그 의지한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일체의 부처님을 동시에 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은 우열이 있을 수 없으며 불보살이란 결국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끝없는 은혜이시고 걸림없는 일체처 일체시(一切處 一切時)에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지장보살이 먹는 것이고 잠을 자도 내가 자는 것이 아니라 '지장 보살'이 자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모습은 눈이나 귀를 통해 볼 수 있는 감각적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마음안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의 큰 지혜 광명이며 자비이지요. 그래서 참되게 염불하는 사람은 절대로 요행스런 기적이나 신통 등 외형적 가피를 구하지 않습니다. 돈 생각이나 복을 받으려는 생각보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하다면 부처님은 불자들 앞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부처님 말씀대로 따르면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염불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여길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 준다고 할 때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며 상대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 자기 생각에 맞춰 행동하기 쉽습니다. 즉 중생은 자기 중심에 집착해 자기 생각대로 상대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단순한 구제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하지요. 만약 이와 같은 형태로 구제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지배 형태를 가져 오는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안됩니다. 아픔은 훨씬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베푸는 행위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랑에 비하면 좁은 사랑의 표현에 불과 합니다. 아픔을 기반으로 한 사랑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아픔을 겪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아픔을 마치 자기가 겪은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중요 하지요.

'저런 처지에서 얼마나 아프겠느냐, 내가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참 미안하다'는 마음만 있으면 설령 도와주지 못해도 무량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꼭 재물로만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정 형편이 안될 때는 마음이라도 함께 아파하며, 도와주지 못하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으면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수행인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상대를 불쌍히 여겨 돕는것은 좁은 사랑 남의 아픔이 내아픔일때 진정한 자비"

의지처이시고 무조건의 대자대비인 것을 굳게 믿으며 이를 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 수행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을 믿고 일심 염불하면 마음에서 일체 형상을 취하지 않고 큰 원을 세우고서 정진하게 됩니다. 정진해 나감에 따라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던 모든 업장과 미혹들이 차례로 사라져 망념에서 벗어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공덕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망념된 업의 흐름을 차단하는 길은 원력이 깃든 불보살의 명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온갖 마음들은 하나의 불보살의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보살의 이름 하나로 모든 마음을 꽉 채우면 번뇌가 일지 못하게 하고 일체의 사량분별이 끊어지게 됩니다.

나의 수행일기



오영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

'행과 지혜를 갖춤은 수레의 두바퀴 같음이요,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은 새의 두날개와 같음일세.(行智具備 如車二輪, 自利利他 如鳥兩翼)'

〈발심수행장〉에서 원효스님이 설한 이 말씀을 나는 항상 마음속에서 되새긴다. 어떻게 하면 행과 지혜를 다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나는 항상 스님들의 법문을 좇아 다녔다. 교직에 몸담았던 시절 매주 목요일 학교수업이 끝나자 마자 버스를 타고 종로 대각사로 달려가 광덕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심을 키웠고, 강남포교원 불자여교사모임 호법회에서 활동하며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테두리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려고 애썼다.

또 한편으로는 동산불교대학에 다니며 그동안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갑성으로만 확대됐던 나의 불심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을 통해 조금씩 살찌우기 위해 노력했다. 2년이란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불교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던 불교역사와 교리에 대해 차츰 눈을 떠가면서 학교생활보다 더 신나고 즐거웠다. 하지만 함께 입학했던 동료 선생님들은 대부분 중도에 하차하고, 나혼자 졸업을 했다.

동산불교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95년 8월 나는 38년간을 몸담았던 초등학교 교단을 명예퇴직했다. 93년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체자연수를 받으며 시작한 이체작업 봉사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더 나이들기 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사회에 봉사하자'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갑작스런 결단에 가족도 동료도 모두 놀랐지만 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의 공양주 보살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명예퇴직을 실천에 옮겼다.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이체작업 봉사와 함께 고려대장경 후원회 홍보활동도 함께 했다. 전자대장경을 만드는 일에 불자들의 동참과 관심을 홍보하면서 부처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정말 학교를 잘 그만뒀다는 생각을 했다. 동산불교대학 졸업과 함께 포교사자격까지 취득한 그때서야 행과 지혜를 구족한 불자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디딘 것이다. 작년에는 회갑을 맞아 무언가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길을 찾다가 뜻맞는 불자들과 아미타춤 무용단을 결성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무용단을 꾸리려고 한것도 아닌데 아미타춤을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20대에서 70대까지의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무용가 한순옥 선생님을 초빙해 30여명의 회원들과 경전에 근거한 보살춤을 배워 8월 강원도 건봉사에서 열린 전국염불만일회에서 아미타춤을 선보였다. 전문 무용인은 아니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용으로 표현하려는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성공적으로 공연됐다. 이후 몇몇 사찰에서도 선을 보이며 요즘도 아미타춤 무용단을 꾸려나가고 있다.

올해 나는 불교포교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불교문화포교차원에서 불교연합무용단을 만드는 것이다. 사찰마다 2명이든 3명이든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서 경전에 바탕을 둔 춤을 공부하고, 사찰에서 행사가 있을때 마다 공연하는 것이다. 색다른 분야를 개발해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포교사로서의 내 사명이라 믿기 때문이다. 불자들에게 무조건 봉사를 위주로 한 신행활동을 강요하기보다는 신행활동을 통해 스스로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문화포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려대장경 후원사업은 물론이고, 동산포교사단과 함께 하는 파주 지역 군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내가 속해있는 곳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불교를 전하기 위해 정진할 것이다.

불법 배우고 실천하려 교직명퇴 '불교연합무용단 만들자' 원 세워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B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 속 대장경 301 - 선 (禪)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묘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거울처럼 텅빈 마음에 만물 비치네

"거울속에서 뉘모습 보았나
골짜기서 내소리 들리네
보고 듣는 것에 미혹 않으면
어느곳인들 트인길 아니리"

-진각국사 오도송-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5)

거울

'제법(諸法)은 환(幻)과 같고 염(焰)과 같고 수중월(水中月)과 같고 경중상(鏡中像)과 같다.'

대승십유(大乘十喩)의 하나이다. 불교에서는 제행무상도 제법무아도 모두 거울에 비친 상과 같다고 비유한다. 〈화엄경〉에도 '시방(十方)에는 모든 변화가 있으니 일체는 거울 속의 상(像)과 같다'라는 경구를 통해 제법이 실체가 없음을 거울에 비친 상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 거울이 삼라만상을 비추어내듯이 마음에 부처님을 비추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마음에 중생만을 비추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물들어 버린다고도 했다. 많은 선사들 역시 마음을 거울이 비유해 부지런히 닦아야 티끌이 묻지 않는다며 수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저승에 가면 생전의 선 악업이 그대로 비추어진다는 업경대. 죄를 짓지 말고 선행을 하라는 경책을 담고 있다. 해인사 명부전 시왕탱화중 '염라대왕도'(부분), 1742년작.



◇경남 하동서 출토된 고려 경상. 비로자나 삼존불이 그려져 있다. 국립대구박물관 소장.

■업경대

저승에는 인간이 이승에서 지은 죄를 그대로 비춰 보여주는 거울 업경대가 있다. 업경대에 나타난 죄의 경중을 따져 어떤 지옥에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이다. 업경대는 업경륜(業鏡輪) 업경(業鏡)이라고도 한다. 저승에서 죽은이들의 죄를 심판하는 시왕 중에 염라대왕이 업경대를 사용한다.

업경대는 지장전이나 시왕전에 설치되는데 간혹 대웅전 등 다른 전각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나무로 제작하는 거울 주변에는 불꽃문양을 사실적으로 나타내 저승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법당 안에 있는 업경대는 악행을 짓지말고 선행을 쌓으라는 경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경상(鏡像)

거울에 수월관음도 등 성보를 새긴 경상은 거울을 법신의 현현으로 보고자 했던 고려인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남아있는 경상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현존 경상은 거울면에 직접 도상(圖像)을 새긴 동경선각경상(銅鏡線刻鏡像)과 동경의 형태로 주물(鑄物)한 동판 표면에 도상을 새긴 주동판도석선각경상(鑄銅板陶製線刻鏡像)의 두 종류가 있다.

동경선각경상은 3점이 있는데 두점은 송에서 전래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려경인 무문병경(無文柄鏡)이다. 무문병경은 고려 경상 가운데 유일하게 출토지가 알려진 거울로 1918년 경남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사지에서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남아있다. 병경의 앞면에는 비로자나삼존불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9층목탑이 새겨져 있다.

13점이 발견된 주동판도석선각경은 관음도 거울의 유행기에 대량생산된 것인데 양식적으로 모두 고려 후기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준제관음, 해수관음, 양류관음 등이 비사문천, 공작명왕 등과 함께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에서 전달받은 팔면보경을 봉안했다는 데서 사찰 이름이 유래한 보경사(경북 영일군).

마음에 부처님 비추면 부처님 보고
마음에 중생 비추면 삼독심 물들어

거울에 비친상 실체없어 '제행무상'에 비유

육조 혜능 오조 홍인대사(594~674)는 법통을 물려줄 제자를 찾기위해 제자들에게 게송을 지으라고 분부한다. 가장 뛰어난 제자로 인정받던 신수(606~706)대사는 '몸은 보리의 나무요/마음은 밝은 거울이니/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티끌이 끼지 않도록 하리'는 게송을 쓴다. 이 게송을 들은 육조 혜능대사(638~713)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명경도 본래 경대가 아니다/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어찌 먼지를 털 필요가 있으리'는 게송을 신수대사의 게송 바로 옆에 써 놓는다. 혜능대사는 이 게송 덕에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고 법맥을 잇게 된다.

마조 도일 스승인 회양선사(677~744)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일이다. 회양선사는 마조(709~788)가 오로지 좌선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 앞에서 벽돌 하나를 바위에 갈기 시작했다. 거울을 만들기 위해 벽돌을 간다는 회양선사에게 마조는 벽돌은 거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에 회양선사는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음진데 하물며 좌선만을 한다고 어찌 성불할 수 있겠나"고 물음을 던지고 그 순간 마조는 깨달음을 얻는다.

진각국사 스승 지눌선사 밑을 떠나 있다 돌아온 진각국사 혜심스님(1178~1234)은 제자의 기량을 시험하고자 하는 스승에게 거울에 먼지가 끼면 아무것도 비출 수가 없기에 거울을 닦았다고 말한다.

이렇듯 혜심스님은 경상의 화두를 거울로 삼고 있다. 스님은 오도송으로 '거울 속에서 뉘 모습 보았나/골짜기에서 내 소리 들리네/보고 듣는 것이 미혹되지 않으면/어느 곳인들 트인 길 아니리'를 남기고 있다.

백운화상 고려 때 유명한 선사 백운화상(1299~1375)은 '밝은 해도 밤은 비추지 못하고/밝은 거울도 뒷모습은 못 비추어라/어찌 내 마음 원융 명백하여/항시 고요하게 비출 수 있으랴'는 게송을 남겨 거울이 자기의 뒷모습을 비추지 못하는 것을 자각의 어려움으로 표현했다.

천태 지의 천태 지의대사(538~597)는 〈마하지관〉에서 삼제(三諦)의 원융함을 거울에 비유하여 '비유컨대 밝은 거울과 같다. 거울의 밝음은 공(空)에 비유되고, 거울에 맺힌 상(像)은 가(假)에 비유되며, 거울 자체는 중(中)에 비유된다. 서로 분리되지도 합쳐지지도 않아 합산(合散)이 완연(宛然)하다'고 하여 삼제의 원융함은 경상원융(鏡像圓融)과 같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鏡像)이란 구체적인 조형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천태사상을 거울의 기능에 비유한 것이다.



◇세모꼴의 거울에 양류관음보살을 새긴 거울. 14세기 고려작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종경록(宗鏡錄)

송의 연수선사가 엮은 〈종경록〉은 대승경론 60부와 3백인의 수행자의 가르침과 말씀을 모은 것이다. 연수선사는 〈종경록〉 서문에서 '부처님의 대의와 경론을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 번잡한 글을 삭제한다. 요지를 찾고 방편으로 문답을 열어 증명을 이끌어내고 일심을 들어 종을 삼는다. 만법을 비추기를 거울과 같이 하여 옛남에 지은 길은 뜻을 엮어서 원전의 깊은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경사(寶鏡寺) 설화

중국에서 불법 수학을 하던 지명스님은 하남성 낙양에 있는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를 찾아갔다. 백마사 주지스님은 지명스님을 보고 백마총의 주인이라며 백마총에 봉안되어있던 팔면경(八面鏡)을 주었다. 팔면경이 담겨있던 석함에는 지명스님이 전생에 마음 밭란 두 도인에게 동국 조선 종남산 아래 팔면경을 묻고 법당을 창건하라는 수기를 받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명스님은 팔면경을 받아들고 백마사에서 지내다가 20여년 만에 다시 귀국했다.

왕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한 지명스님은 왕을 모시고 신하 10여명과 함께 해맞이 고을로 출발해 보살모양의 오색구름을 따라 내연산으로 갔다. 왕과 일행은 계곡에 있는 연못을 메우고 그 중앙에 팔면보경을 봉안한 후 대가람을 지었다. 이 절이 바로 원진국사 원각국사 오암대사 등 걸출한 스님들을 배출한 보경사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윤장대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윤장대(보물 제684호)를 돌려서 무명을 밝히자

예천군 용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법보대찰 용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화엄도량 용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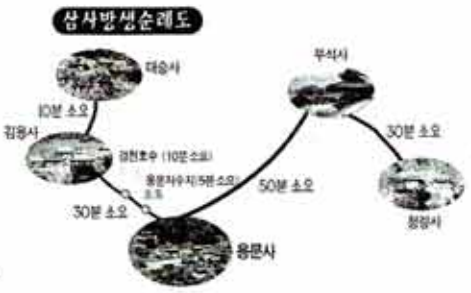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용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윤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용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삼사방생순례도



• 용문사 주차장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용문사 가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 10~6 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비행기 대한항공(서울 ⇒ 예천) 오전 9시 50분 오후 5시
아시아나(서울 ⇒ 예천) 오후 4시

주지 청 안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보대찰 **소백산 용문사**

문 의 : (0584)655-8695(종무소), 655-1010, 8405
(02)582-4665, 522-0770 서울포교당 청안사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생활이 만행이며 생각이 윤회입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 걸 보니 개구리 입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좋죠? 여러분께서 여지껏 길을 걸어 오셨으니까 오늘은 질문과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법무아인데 윤회하는 까닭

문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법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회사상에 대하여 큰스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인생의 생사변이가 윤회이며, 우주의 물리적 변화가 윤회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도윤회의 깊은 도리를 우매한 중생이 믿지 못하므로 옛 조사님들은 경전이 아니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한탄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성암선사는 전발보리심에서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겁 동안 해탈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의 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스님께 육도윤회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불교의 근본교리는 '제법무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법이 무아라면 어찌 윤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평상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만행' 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사는 것이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가는 그 행이 말입니다.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만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기를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이지 말라, 네가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발 하나하나 떼어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그 한발짝 떼어 놓고 또 한발짝 딴 데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느냐' 이런 뜻이죠. 끊으라는 말이 아니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의 일인데요 시자스님이 차를 한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해서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거든 데워 먹고 뜨겁거든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이다.'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윤회는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찰나 찰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뛰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 "차 한잔 마실때
> 차거든 데워먹고
> 뜨거우면 식혀먹듯
> 내 재량껏 하는게
> 바로 참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것이 바로 육도윤회이며 고정됨이 없이 공했으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이 세상이 다 공했느니라,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느니라, 안과 밖이 다 그러하니라, 내 몸안에도 생명들의 의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들어 있고, 그래서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나라고 세울 게 없으니 공하다고 한다.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하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이름은 왜 지어놨느냐.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질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만행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그러니 생각하고 사는 것이 윤회라면 이것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뜨거운 물을 억지로 식히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놔두면 그냥 식기도 하고 정히 급하면 찬물에다 띄워서 식혀서 먹으면 되죠, 매사에 일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 아등바등 애쓰지 말고 내 재량껏 식혀먹고 데워먹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넉넉히 그냥 놔두면 때가 되면 그냥 먹게 돼요, 급한 것은 식혀서 먹고, 급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먹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관습에 의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삶이 어지럽고 괴롭고 그렇지, 마음이 넉넉하다면 하늘이 무너진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괴롭지도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두쪽이 나고 가루가 된다 해서 불교가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더 느긋하게 생각하신다면 바다를 삼킬 수 있고, 삼키기만 해도 아니되니깐 토하기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바다를 삼킬 수 있고 바다를 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능히 부처이며 능히 법의 보살이며 능히 어느 보살이 아니 되는 게 없고 어느 중생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 틈에서 부처가 나는 것이지, 우리들을 떠나서 생활을 떠나서 부처님이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상엔 부처님이 삼천년 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불교에 귀의해서 알려고 애쓰는 그분들이 계심으로써 부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법이 무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윤회가 될 수 있느냐고 했죠? 무아라는 뜻은 아세요?

문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자기 자신조차도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 제법이라 하면은 일체를 말하고, 무아라고 한다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없는 그 가운데에 나, 즉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아니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되고 그냥 콱 차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무아라고 한 것이지, 무아가 없다면 윤회가 어디 있으며, 윤회가 없다면 무아가 어딨습니까? 눈이 없는데 귀가 어디 있고 귀가 없는데 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어도 생각을 해내지 못해서 목석이니까 무효고, 육체가 없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효예요. 다 갖추어서 생김 생김이 잘 생기고 잘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올바를 때 그것은 '제법의 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뜻이 모두가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이 경지이기 때문에 '제법의 무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없어서 무아가 아니라 우리 몸뚱이 속에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내세워서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살림살이를 하고 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따지고 본다면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모든 법칙에 의해서는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법이 무아인데 어찌 윤회가 있겠습니까?' 이런다면 우린 움죽거리지도 말고 목석이 돼야죠. 물도 없고 파도도 없고 흘러가는 것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넉넉히 흘러가고 움죽거리고 자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무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스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지요?

사바세계 출몰한 성암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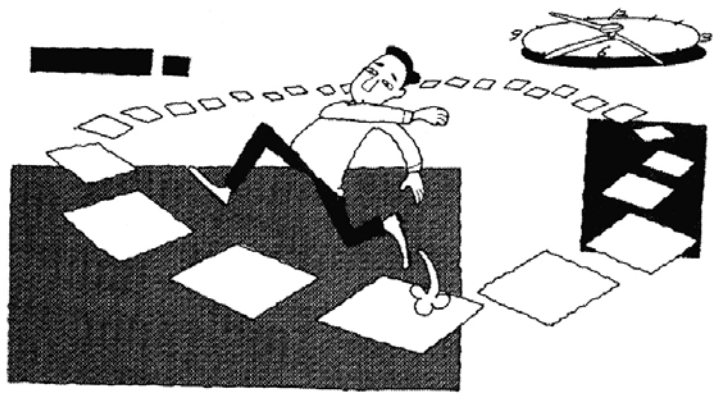
문 네, 성암 선사께서 말씀하신건데요, 나는 중생과 더불어 수 없이 많은 겁동안 해탈을 못하고 생사에 머물며 인간과 천상, 사바세계와 피안세계에 갖가지 모습으로 출몰하고 부침하였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답 그 분은 함이 없이 그 말을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지, 몸 떨어지고 난 뒤에 해탈을 하려면 해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 떨어지면 더 이상 부딪침도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모든 윤회에 매하지 말고 모든 착을 떠나서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하고 계신데 생각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돌아가는 도리를 생활에 실천하시면서도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뭐 하나를 생각하면 꼭 붙들고 늘어지고 이렇게 마음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 장난에 끄달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모두 입력이 돼서 바로 그게 악업·선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살면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는 그 어항 속에서 한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안의 그 언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네 모습이 어떠하든 마음은 체가 없으니 넓게 우주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넓게 갖는다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느냔 얘깁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고 얽매여서 고인 물에서 마냥 헤매고 도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지혜롭고 물리가 터져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한 마음이 생겨야 되겠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 1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이 공해 너도나도 세울게 없어요
생각 붙잡으니 입력돼 악업선업 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8)

허공에 코드 꽂고 불 들어오길 기다리라.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둘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빌어 본들 공덕이 없다. 수만 냥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켠 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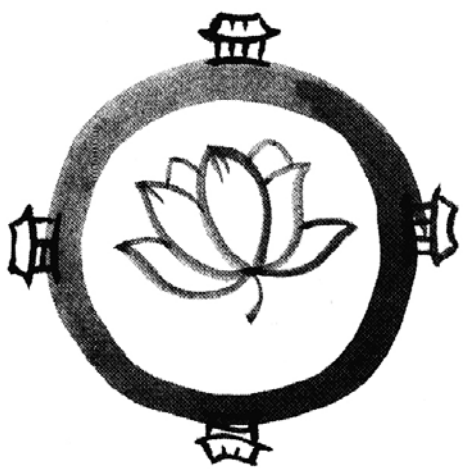
내가 농사짓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해 보았자 채워지지 않는다. 수억겁을 거쳐 이날까지 나를 끌고 온 주인공의 뜻을 배신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묻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책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찾은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극락이란 힘겹게 찾아가는 곳이 아니다. 극락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것이고 가령 의사나 약사처럼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름지기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물 한바가지를 줬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준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항상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음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여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력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변한 인간의 가능성을, 법신으로서의 부처 이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등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 이란 어디쯤인가. 북극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 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셔서 우주를 지배한다' 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으나 번소에 앉아 있으나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 나가 갈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나, 더 좋은 스님은 안계신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허공에 코드를 꽂아 놓고 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려느냐?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불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목은 빚도 갚고 뿌려놓은 자식들도 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은 않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종교 저 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둘이 아닌 도리를 어떻게 감득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종교란 이름이다. 한 지붕 밑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다.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먹기를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것일 뿐 하느님이 싸우라고 시킨 것도, 예수가 싸우라고 시킨 것도 아니다. 부처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알라신이 그렇게 시켰을 리도 없다. 인간들이 그렇게 해 놓고 공연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뿐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봄이 왔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요

☞ 15면에서 계속

묘한 것입니다. 마음이 악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선으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점프를 해서 지구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세계를 한 찰나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마음이 마음을 가두어 놓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 안과 밖이 한마음으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한마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기 이전 마음은 바로 마

"빗장없는 빗장 쥐고
끄달리지 않으면
나를 깨닫고
업식을 녹이며
생활 이끌어가는
지름길 되죠"

음의 선장입니다. 다스려야 할 선장! 잘못되고 잘된 걸 뻔히 아는 선장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내는 것을 이렇게 내고 저렇거니 내니까 마음 선장이 '요렇게 하면 안되고 요렇게 하면 되잖아' 하고 이끌어주는 선장이 있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선장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내니까 육신은 따라서 움죽거려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말 저말 말만 배우면 산란해서 공부를 못해요. 진짜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경을 덮은 겁니다.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을 그래서 덮은 겁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게 만드니까, 오직 내 내면에 들이고 내는 구녕이 한 구녕 밖엔 없다. 그러니 빗장 없는 빗장을 쥐고 늘어져라 하는 겁니다. 윤회에 끄달린다 하는 것도 결국 한생각이면 끄달리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일체가 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 윤회라는 것도 거기 매이지 말자' 하고 놓게 되면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한다면 몇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깨닫는 데에 그 지름길이며, 둘째는 내가 업식을 다 무효화 시키는데 지름길이며, 셋째는 생활을 이끌어 가는데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데도 지름길이며, 모두가 지름길이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잘하세요. 내가 열마디 백마디 말로 해봤자 여러분이 생각 한번 잘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끌어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이끌어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동일해야만이 바로 한자리 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연 만난 것도 억겁을 통해서 바로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자기가 컵이 아니었더라면 물을 담지 않을 것인데, 컵이 되었기 때문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매사에 인연이란게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인연에 따라서 모두가 이루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연을 누가 만드느냐. 결국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인연을 나쁘게도 만들고 좋게도 만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하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항상 나쁜 걸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 자꾸 마음을 내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끌어서 건져라' 이런 말이죠. 이 모두가 사람 사람이 인연에 따라서 너그럽게 지혜롭게 자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게 한마음이 돼주고, 악하게 마음을 쓴다면 악한 사람으로서 모이게끔 돼있거든요.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고 감이 있는 거죠.

이 피안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자꾸자꾸 바뀌어져요. 사람이 사람으로만 있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만 있지 않는다구요. 그러니 한 찰나에 살 것을 그렇게 해서 딴 모습으로 가지고 나온다면, 그 모습의 습성에 또 매여서 착이 되고 습이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 천년을 물에 가라앉았다가 한번 떠오를 때에 구멍 뚫린 뗏목 하나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자리를 이렇게 서로 인연이 돼서 만난 것도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서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나 없나 이걸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묵묵히 한발 한발 걸어가신다면 그대로 부처예요.

전생 일 왜 기억나지 않나요

문 윤회가 분명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지나간 전생 일은 왜 현재에서는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모르고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친 분들은 과거 생을, 즉 말하자면 이 사바세계와 무아의 세계를 그저 한찰나에 들고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그냥 넘나드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삼천년 전도 알고 삼만년 전도 알고 삼십만년 전도 알텐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만 하고 알려고는 안하느냐 이겁니다. 모른다고 한탄하시지 말고 심안으로 볼 줄 알고 심안의 귀로 들을 줄 안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넘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말고 그저 차분히 진실로 믿고 내 뿌리에서만이 나올 수 있다 하고는 그냥 자꾸 자꾸 지름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조상천도 효과있는지요

문 윤회사상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 조상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경을 읽어 그들을 천도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윤회를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몰라서 캄캄하다면 묘지에서 시체를 꺼내도 이거는 문제가 되구요, 갖다 넣어도 문제가 되죠. 가도 걸리고 와도 걸리고 전부 걸려요. 또 도와줄 수도 없구요. 나도 도와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라, 나부터 안다면 그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어서 통하니까 전부 건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마음공부하신 분들은 때로는 꿈에도 조상이 보이고 생시에도 조상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너무 극성스럽거나 너무 서로 싸운다 이럴 때도 '모든 게 둘이 아닌 주인공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모든 걸 놓으면 아주 마음이 태평하게 되고 모두 좋아지죠. 그런 것 하나뿐 아니라 좋은 데로 가게 하고, 오래 살게 하고, 병이 없게 하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줄 수가 없습니까? 전부 자기와 둘이 아닌데 왜 벗어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한쪽만 조금 켤 수도 있구요. 이건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가진 것은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충만히 내가 자유자재해서 끌어 쓸 수가 있는 여건이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서 그 여건을 자유자재하게 끌어쓸 수 있으니 전부 마음 놀이이다. 그러니 마음으로서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림 · 최주현

문 천도도 저 집안살림부터 잘 해야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답 그렇죠, 그거야.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진짜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울어봤자 소용 없어요. 오히려 몸에 병이나 들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풍수지리와 사주 궁합은

문 민간신앙은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 이 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다, 또는 점장이가 궁합을 보러 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일진이 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허허허.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마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되는 데도 말입니다. 사주나 궁합을 보는 게 아니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랑 신부가 걸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궁합이지 무슨 궁합이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무슨 날이 길일이고 궁합이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도 마음 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잘 보고 맞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궁합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궁합도 맞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궁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 얘기 하셨는데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이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가 그냥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구요. 그 세계를. 그러기 때문에 산밑이든 물이 있든 그 자리를 파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여기는 참 좋겠구나. 볕도 들고 물도 아래로 흐르고…'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기 참 좋구나. 앞은 산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울타리도 저렇게 둘러싸여 참 좋구나.' 그러는 거죠.

여기 안양에 이 집을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짓는데 말입니다. 풍수하는 사람들, 뭐 역학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러니 굴왕신이 들어서 사람이 떼로 죽고 뭐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허, 죽으면 한번 죽지 두번 죽어? 굴왕신이 들기는 무슨 굴왕신이 들어? 내 마음이 굴왕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굴왕신이 따로 있어? 그러구선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어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덤비지 덮어놓고 덤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할려고 애쓰면 자꾸 재미있어서 쫓아가고, 귀신이 와도 그냥 탁 집어 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나면 사람이지.

어느 누구든지 밤중에 산길을 가다보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저는요, 산속 깊이 들어갔어도 늠름했거든요. 왠줄 아십니까?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먹을 거 있는 데를 가르쳐줘서 먹고 낭떠러지가 있으면 낭떠러지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에요. 겁다가도 낭떠러지가 되면 '여기 낭떠러지니까 가지 마세요' 이러고, 하다 못해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 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다니는 뱀도 도와주고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무섭다는 건 둘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고,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바람부는 대로 휩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지요

문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면 '한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놨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느니 한마음이니 왜 그랬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나올까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말입니다.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러고 좋아서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

이따금씩 공양도 제공하고 말입니다. 무슨 공양이냐구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가서 잡수시오' 고 그러거든요. 돌아가보면 영락없이 새끼오락지에 북어 하나가 꼬여 있어요. 그러면 그 북어 꼬랑지를 턱턱 돌로다가 쳐서 옆구리에다가 쑥 끼구선 이젠 가는 거죠, 또.

윤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 저희로서는 과거와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 현실 생활가운데 윤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 조금 아까 딴 말 하시고 지금 또 딴 말 하시네요. 그게 증명이 된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체를 알게 되죠. 우리는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모두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육도윤회에 끄달리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올바로 가르치신 거죠. 즉 '윤회라는 것이 알고 본다면 모두가 공했으니까, 거기다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턱 놓고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아무 상관없이 양면을 잘 봐서 그냥 맞으면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구요. 또 어느 산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그냥 내 마음에 좋으면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 나라가 땅이 좁아서 어느 때 묘지를 과 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탑으로 하나만 해놓는다면 아주 죽어도 걱정이 없고 살아도 걱정이 없죠. 삼대가 들어가고 아랫대가 들어오면 위는 사르고 또 들어오면 위는 사르고 하니까 세세생생이 좋은 거죠 뭐.

그러니 아무데나 내가 좋다 하는 자리면 그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 된다 이 소립니다. 참법은 그런데 있는 거지 뭘 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주장자가 있음으로써 하늘을 꿰어서 굴릴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느 귀신이라도 범접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저 부처든 중생이든 귀신이든 뭐든 닥치는대로 먹어버리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불바퀴에다 그저 닥치는대로 넣으니까 타버리더라 이런 거요. 그와 같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아무리 꺼내도 꺼내도 줄지 않는 이 마음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걸망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바람부는 대로 휩쓸리면서 내 주장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차안의 세계에서 만날 그렇게 모습을 바꿔가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대체 누구인지요

문 윤회의 주체가 우리 몸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주인공이라면, 이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가에서는 아뢰야식이 윤회의 주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도 한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러면 '한마음'이라고 했겠습니까? 돌아가지 않고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왜 그것을 한마음이라고 해 놨겠습니까? 하나로 돌아가느니 한마음이니 왜 그랬겠습니까? 일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주인공' 하면 바로 반야심경에도 '공했다'라고 했듯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영원한 겁니다. 끝없이 이끌어가는 영원! 자기가 그냥 영원한 겁니다. 하여튼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차안에서 넘지 못하든 넘든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고 얽매여서 그렇게 끝없이 윤회에 말려서 허덕거리니까 그게 걱정이지, 그저 어느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세생생에 그 차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안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든 잘했든 그냥 긍정적으로 '어, 잘한 것도 너고 못한 것도 너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지' 하고 놓는다면 앞서의

우리가 어떤일을 잘했던 잘못했던 주인공에 놓는다면 앞서 입력없어지고 새입력 풀려나와 꽃이피고 열매열려 무르익어 만가지 맛이나죠

입력이 없어지고 새로 입력된 것이 풀려나오면서 좀 살 만하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가 그 나무에서 무르익는다면 아주 만가지 맛이 나면서 이게 살 맛이 나는 겁니다.

윤회사상의 궁극목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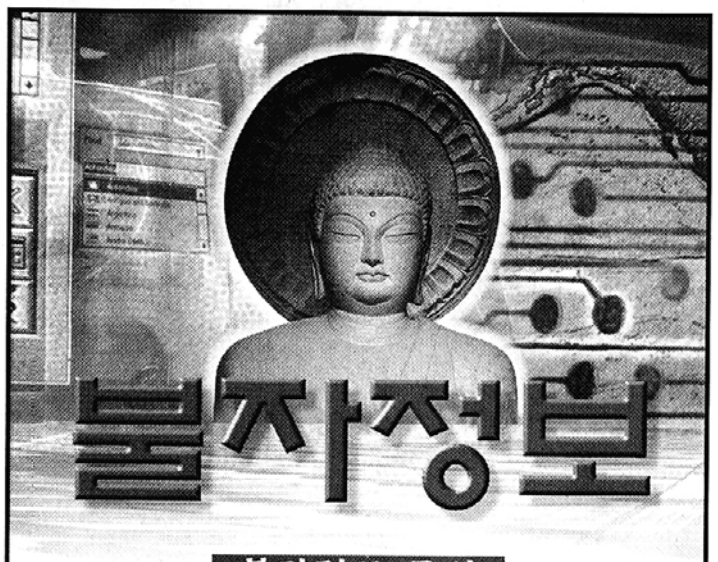
문 거의 모든 종교가 윤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교는 장생불로에 있다고 하고 기독교와 천주교는 천당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것도 마음에 있는 거죠. 도교란 뭐 다른 겁니까? 도란 마음이죠. 이 마음이 벗어난다면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이 된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모습을 해가지고 나올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자재권을 송두리째 얻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자신을 발견하라. 너부터 알고 너부터 발견해야만 이 영원하다' 고 했는데 상대를 보고 믿고 상대를 보고 기도를 하니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에서 본다면 '자기부터 알았으면 그 도리를 모두 알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교에서도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상대를 놓고 빌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기를 발견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를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이 법당에 들어오면 당신이 이 법당에 들어 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당신이 법당에 왔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당신이 법당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형상도 자기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생명도 둘이 아니요, 전체가 둘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일배를 하든지 삼배를 하든지 또는 부처님한테 하나로 묶어 놓고 삼배를 하고 다시금 자기한테 하나로 묶어 놓든지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구요.

바깥에는 봄이 왔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봄이 와서 밝게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합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의단요법 · 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 의학적 완치사례 공개 ※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강좌

수맥강좌안내

1. 신비의 추 · L-로드
2.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 수맥차단제 판매
4. 수맥관련 상담 환영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易학교육전문학원 육성교재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8주 완성

좋은 스승, 좋은 교재를 만나야 제대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역학계의 혜성 박규병 (전직교사 · 59)원장이 만들었습니다.
멀으십시오. 멀는 것도 인연이지만….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술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학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무
※불교제반(49재, 천도재, 점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광생 봉사회원 모집 : 불교식 장의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 - 5시
- 야간 : 7시30분 ~ 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졸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 · 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을 신봉리 39번지)

사주 명리수강생 모집

⊙사주 · 신수 · 궁합 · 택일 · 작명 · 방위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저렴한 수강료의 강의는 최고수준
⊙주2회 (1회3시간씩) 3개월 완성
⊙초급 중급 상급 각 1개월씩
⊙수시개강, 연중계속강의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자미두수 수강생 모집.
★자미두수란★동양의 점성학. 북극성(자미)을 중심한 남북두의 별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
문의 ☎02)3413-0232~1
개인상담 문의도 전화 바랍니다.

구인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님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모 집

불교미술(불화)
남 · 녀 문하생 0명
02)388-6004
011)351-1688
한국 정통 불교미술원

구 직

◆ 50대 독신 남자로서
◆사찰에서 운전기사겸 처사로 일할 곳을 찾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도 좋습니다.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주십시오.
0351)826-1152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공 고 문

전국 광산 김씨 스님이나 포교법사 일가분들을 찾습니다.
전국 광산 김씨 문중에서는 영산재 등 각종 행사문제 상의건으로 천안의 통일미륵사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 미륵사 주지 도선
광산 김씨 대종회
광산삼보종회 (光山) 金容泰 합장
0417)567-5281/011)427-5281

달마봅안내



죽림포교원 051)361-6662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제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 이며 40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진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암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10봉지(10만원)
■100g×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정신병 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비밀 철대보장
1.악물 치료가 아님
1.가정에서 관리 어려운 환자
1.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1.병명없이 아픈 사람
1.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1.굿을 하고 이상이 생긴사람
1.신병 들린 사람
1.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
1.병명이 바뀌는 사람
본 스님은 27년간 수도한 분
묵계사 고찰정법 기도도량
0595)884-1789/011)883-9144

전 통 황 토 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화학제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금강황토산업 032)427-7899/016)360-2236
FAX 032)427-5634 지정 합장

개발지(땅)투자

국제공항, 항만, 공단
배후신도시 상업지 및
주거예정지
02)539-3232
017)310-4153
담당 : 박 수 진 (법명: 영주)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예산
◇법당 : 12평 ◇요사 : 50평
◇부지 : 1천평(등기됨) 5천평(임대)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팔용동 천주선원
◆ 건물 : 42.8평
◆ 가격 : 전세 및 월세 시설비 일체포함 (3,700만원 - 절충가)
0551)251-2211
0551)251-220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천시 부황면 대야2리 787번지 정각사
◆ 법당 10평, 곡자 20평, 임법당 10평, 요사채 12평
◆ 대지 : 372평 건평 32평
◆ 가격 : 1억 3천 (가격절충)
0547) 437-1857

사찰(급) 운영하실 분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바닷가
◆부지 : 200평(대지)
◆법당 : 25평 ◆요사 : 40평(방4칸)
◆주차시설 완비, 즉시 입주가능◆
가격 : 매매 · 전세 가능 (담사후 절충요망- 최저가격으로 드림)
◆특징 : 감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마산 기도도량
051)291-8483
011)560-8483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면에서 5분거리))
◆평수 : 대지 300평,법당 10평, 요사채 2동(삼존불, 산신각, 칠성각 모셔져 있음, 용왕당)
◆사찰 경내 차량진입 가능
◆가격 : 7천 7백만원(절충가능)
0599)932-6278

토굴 안내

◇위치: 경남 하동군 정학동 근처
◇대지: 90평
◇건평: 15평 (황토흙방 3)
◇가액: 3천만원
◆최고의 명당 (황토흙 방 3개)
◆차도 전기 미설치
018)621-6969

사 찰 안 내

◆ 수도권 및 전국 일원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 양수하실 분 찾습니다.
◆ 특히 급한 사정에 의해서 사찰,암자, 불사 가능한 대지를 매매 원하시는 분
◆ 수도 정진할 수 있는 사찰, 암자를 구하시는 분
◆ 전화상담시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보안 유지합니다.
※사찰건축, 포교당 실내공사, 상담환영
좋은인연 02)561-7020
02)561-7791
한국불사연구소 018)223-731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남읍 (밀양에서 25분거리)
◆ 평수 : 242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개, 차량진입 가능, 약사여래 부처님, 미륵존불, 관세음보살님 모셔져 있음.
◆ 가격 : 1억 2천(절충가능)
0527)391-5369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북 상주시 화북면 회룡동 (마당넓음)
◆평수 : 약 300평
◆건물 : 38평- 28평 1, 10평 1 두채로 되어있슴.
◆가격 : 9천 5백만원
0582) 536-7985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동래구 온천 3동 (부산 백화점 맞은편)
◆ 법당 : 71평
◆ 4층 건물에 3층,방 3개,주방시설
◆ 특징 : 시설비, 보시함, 에어콘, 온풍기 설치 되어 있음 주차시설 완비, 교통이 편리함
051)505-0300

안성 사찰부지

◆ 특징 : 고시원,교육관,실버타운지 다용도최적토목공사완료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저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슴)
◆ 가격 : 해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이상을 40만원정도에 급매함.
02)2281-1515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11-3744

사찰터 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 20분 거리)
◆평수 : 임야 9,800평 밭 320평(준농림지)
◆용도 : 암자, 납골시설
◆가격 : 1억 2천(시세절반가)
042)525-5373
011)428-080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 법당 : 16평 ■ 요사 : 20평
■ 부지 : 3,33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대리 및 일반인의 상담은 응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하신 스님께서 직접 상담시 성의껏 안내해 드립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02)998-1994
청송기획 011)713-5634

사 찰 안 내

◆위치 : 통영시
◆부지 : 1,180평
◆법당 : 25평 ◆요사 : 25평
◆가액 : 답사후 절충
◆ 특징: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송림에 싸여있는 청정지역
012)1067-0108
0502)580-0108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5평
- 법당 약 15평(방3,선방 약27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고시원 약 30평(방 10개)
- 식당 약 8평(독채), 화장실 약 5평(독채)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고속도 신설, 서울 근린지역)
※ 직접면담(조절가) ※
0336)643-9051/012)925-6118

급,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부지 : 소나무 숲속 370평
◆ 법당 : 콘크리트 39평
◆ 요사 : 방2,거실,주방30평
◆ 기타 : 불사중 동불발견
※ 김제시 10분, 만경읍 5분, 전주시 40분거리
◆ 가격 : 급매 칠천만원
0658)542-585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단장 미촌리 만월암 밀양에서 16분 거리
◆ 대지 : 103평
◆ 건평 : 22평 신축건물 스라브 시설완비
◆ 가격 : 3천 9백 (등기필)
0542)371-1306
0542)372-5040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얻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 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 안내(급)

절 양도 또는 도지 장기 임대 (실수요자 염가양도)
◆위치 : 충주댐 입구
◆대지 : 허가 700평,법당터 700평
◆요사채: 34평 (교회당, 주방, 방6개, 현대식사워창)
◆부속물: 5층 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상
◆임대시: 보증금3천만원, 1년 500만원 (발경작 포함)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 (자택)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평수 : 법당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방2, 주방, 샤워장
◆가격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
011)3039-0566

포교원(불교교양대학) 운영하실분

◆위치 : 연화선원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1동 170-21
◆평수 : 5층건물 (3층) 60평
◆가액 : 보증금 2,500만원(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절충가능)
◆특징 : 시설완벽 현재교양대학 운영중
053)943-417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령면 팔공산
◆ 평수 : 1,052평
◆ 법당 : 8평(조립식)
◆ 요사채 : 18평(조립식)
◆ 가격 : 6800만원 (가격 절충)
소나무가 우거진 조용한 산속 대구에서 한시간 거리
0563) 332-3290

포교원(급) 안내

◆위치 : 2호선 서울대입구 전철역서 1분거리
마 봉 사
◆평수 : 약 30평(2층)
◆가격 : 전세 4천 5백만원 (시설비 포함)
◆현대식으로 지은 상가 신축건물
02)875-7576
017)229-2570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 법당 / 1층 -요사채
◆가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바로잡습니다●

본지 213호(3월 10일자) 5면 하단 광고중 「혜명선원」 연락처가 누락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혜명선원
0415) 867-4000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농협 주말농장 분양개시

생활 농협은 서울 근교와 지방 도시 인근 지역에 모두 1백 41곳, 2만4천여평의 주말농장 목장 과수원을 조성, 11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격은 주말농장의 경우 수도권 및 대도시 근교지역은 평당 1만~3만원이며 과수원은 그루당 포도나무는 5만원, 사과·배나무는 6만~15만원, 목장은 꽃사슴(1~3년생) 80만원 등이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397-5621~6번)로 문의.

'한복상품권' 도 등장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를 위한 한복상품권이 등장했다. 한국선물정보는 지난달 액면가 5만원과 10만원권 2종류의 상품을 선보였다. 전통한복뿐만 아니라 생활한복까지 구매할 수 있어 혼수 예단뿐 아니라 효도선물로도 적격. (02)786-5677

현금서비스 최고 5백만원까지

금융 이달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와 함께 현금서비스 한도가 회사별로 최고 2백만~5백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카드사와 신한은행은 현금서비스 한도제한이 폐지되는 동시에 현금서비스 최고 한도를 종전 7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대우다이너스카드는 7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늘릴 예정이다.

'개인전' 같은 아트페어

전시 2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리는 '1999 SEAF(Solo Exhibition Art Fair)'는 36명의 중견·신진작가별로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컬렉터들과 만나는 개인전 형식의 아트페어. 다양한 가격대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 가능. (02)739-0155

개인 퇴직보험 이달중 판매

새상품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손해보험사에 대해 퇴직보험 상품판매를 인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보험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반드시 납입 원금 이상은 보장토록 했다.

"불량식품 피해 신고하세요"

소비자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고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신고전화(국번없이 1399) △시민의모임 먹거리 피해신고 전용전화(02-720-0328) △소비자연맹(02-795-1042) △주부클럽연합회(02-752-4227) △YMCA(02-733-3181).

호화분묘 국민위화감 조성…규제 강화해야

"진정한 陰德 유산 사회환원"

"4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며 화대(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은 이나 지혜 있는 이나 목숨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숴져 단멸법(斷滅法)이 되고 만다."〈아함경〉

불교에서는 육신을 '가아(假我)'라고 한다. 소멸해 없어질 헌옷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영구히 남는 것은 불생불멸할 법신(法身)이다. 뒤에 남은 사람들이 사리를 수습해 부도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 큰 뜻으로 보면 헛된 형상일 뿐이다. 그러니 호화 분묘니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롯데 신격호 회장 부친 시신 도굴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일부 계층의 호화분묘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결국 희대의 범죄까지 부른 호화분묘는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갖가지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신 도굴사건을 계기로 다시 일부 계층의 호화분묘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수백평이 넘는 신격호 회장의 부친 묘역.

호화분묘에 묻히는 것보다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 자기의 후손들이나 불우한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음덕(陰德)'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묘지규정에 대한 제한을 앞장서 지켜야 할 지도층들의 탈법에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호화 분묘 현황=행정기관에 호화분묘로 적발된 묘소만 90년대 들어서 1백50여개가 넘는다. 적발된 호화분묘들은 전체 묘지면적이 수백평에서 수천평에 이르고, 봉분 둘레석과 각종 석상, 석탑 등 수천만원대의 장식물을 설치해 왕릉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런 묘소들은 시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법적 규제=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24평, 집단묘지는 봉분 1기당 9평, 비석 1개(높이 2m, 표면적 3㎡),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묘지 1기당 허용면적을 개인묘지 9평, 집단묘지는 3평으로 각각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묘지설치 60년이후에는 화장 또는 납골하도록 했다.

▲검소한 외국 묘지=선진 외국에서는 화장이 장묘 형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전반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매장을 하더라도 분묘 1기당 면적이 30~80㎡(9~24평)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고(일본 4~6㎡, 프랑스 2.5㎡이하, 홍콩 3㎡이하, 미국 2.9㎡이하) 걸치레를 위한 호화 분묘는 찾아볼 수 없다. 묘지 순환을 위해 매장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골하는 '시한부 묘지제도'가 많이 도입돼 있어 우리처럼 심각한 묘지난은 생길 여지가 없다. 또 개인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대신 공설 묘지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이들 묘지는 동네 주위 공원 등에 조성돼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보고 헌화하는 등 친숙도가 큰 점도 묘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와 다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기독교-이슬람 '역사적 악수'

교황-이란대통령 바티칸서 문명의 대화

가톨릭과 이슬람이 마침내 만났다.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와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 사이의 역사적인 '문명의 만남'이 11일 바티칸에서 이뤄졌다.



◇교황(右)과 하타미 대통령.

양대 종교는 '11세기말부터 2백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이후 상호갈등으로 점철돼 왔다. 이날 만남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간에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황은 25분간의 접견이 끝난 뒤 "오늘은 중요하고 희망을 주는 날"이라고 말했으며, 하타미 대통령은 "평화와 화해의 승리"라고 화답했다.

농업환경 한국 '불량'

OECD 보고서

농약사용량 세계 2위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수준은 외국에 비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8일 공개한 〈9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환경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폐기물 소황산가스 분야에서 '우수' △수질 이산화탄소 분야는 '보통' △농업환경 분야는 '불량'인 것으로 분석됐다.

29개 OECD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농약 비료 등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농업환경 분야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농약은 1년에 가용토지 1㎢당 1.3t을 뿌려 일본 1.4t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회원국 평균사용량 0.2t 보다 6배이상 많은 것. 질소비료 사용량은 평균사용량 6t의 4배가까운 22.2t으로 회원국중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대기오염원인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연간 34kg으로 OECD 평균 40kg보다 낮다. 폐기물의 경우 1인당 도시쓰레기 발생량은 3백90kg(평균 5백30kg)으로 22위를 차지했고 특히 폐기물 재활용비율은 24로 8위를 기록했다.

시론

어리석은 자

염치있는 사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본성을 가진 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만그만 한 염치가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모르면서 아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없는 체 하는가 하면 없으면서도 있는 체 한다. 자기에게 이롭기만 하면 그저 염치불구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척하는 것이 요즘의 몰염치한 세태인가 싶다.

그러나 돈키호테나 찰리 채플린 같이 순박한 인간미로 남에게 해가 되지않게, 척하고 체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재미있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 결 좋은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디 중생들이 그러한가. 삶을 부드럽게 하고 감칠맛나게 하는 찰리 채플린식의 진솔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아쉬울 따름이다.

한세대 전만 해도 향리의 마을에서는 연장자를 공경하고 윗사람을 경대하는 풍습이 보편화 되어 있었다. 이는 옛 고사성어를 뇌이지 않더라도 누구나 수행했던 미풍양속으로 그 시대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이요, 예절이요, 법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힘센 자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 우쭐대는, 염치를 모르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위계질서가 허물어진지는 오래이다. 다만 위상에 관계없이 실권에 가까운자(실무자)가 거들먹 거리고 이른바 실세라는 자들이 위세를 부리며 부끄러운줄 모르고 덤벙댄다.

이러한 일들은 '순수의 마지막 보루'라 할수 있는 학문의 세계까지 침투하고 있다.

학업이 깊고 넓은 분이 학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샴의 법칙이 학계에도 적용됨이 안타까울 뿐이다. 곡학아세하는 사이비 학자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현실에 영합하면서 일신상의 안일을 누리고 학풍을 오도하는 세상이 아닌가?

얼마전 어느 모임에서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는 참으로 서글픈 속쓰림을 곱씹었었다.

단지 이런 현상이 나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아상(我相)의 소치이거니 자책하면서도 왜 그리 가슴이 허전했었는지 모른다.

아마도 이는 내 나름대로 그 모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소외당한 너무 작은 마음의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한편 생각하면 '…체 하는 사람' '…척 하는 사람' 끼리 유유상종하면서 울고 웃으며 속고 속여가면서 감칠맛나게 살아가는 것이 사바세계의 자비려니 하고 어리석은 자위를 해 보기도 한다.



황규선
〈국회의원·한나라당〉

"자기에게 이롭다면 '체'하고 '척'하는 몰염치한 세태"

모든사람이 하나같이 염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심신을 추스린다면, 단팥없는 찐빵이요, 불없는 화로요, 등대없는 항구같이 쓸쓸하고 삭막한 세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다만 돈키호테가 …잘난 척 하고, 찰리 채플린이 숙맥인체 하는 것 처럼 해학적인 체요, 풍자적인 척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자나 실세자의 주위를 맴돌며 묘한 미소를 던지면서 어설픈 연기로 충견(忠犬)인 체하는 군상이 우쭐대니 우리 사회의 이같은 현상이 없어져야만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IMF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염치, 위선, 허세, 가식, 자만 등의 거품을 없애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해야만 한다.

허나 만사는 일체유심조(一切惟心造·마음먹기 달렸다).

일찍이 육조 혜능대사께서도 말씀하지 않았던가

본시무일물(本是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본래 아무 물건도 없는데 어느곳에 티끌이 낀단 말인가."

한갓 내 좁은 소갈머리에 작은 티끌이 마음쓰이게 하는 아상(我相)을 부끄러워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염할 따름이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韋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병들고 가난한 이에 '자비의 등불'

◇7일 서울 포이동 능인선원에서 '거룩한 만남 4백회 기념 특집' 행사가 열렸다. 공명을 찾게 된 김현순씨 가족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 4백회 돌파

9년동안 24억원 모금 400가구 후원
장애자·소년가장·노인등 돕기로

"안대를 한 엄마의 눈을 예전처 고쳐줘 고맙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중 손님이 던진 조각에 맞아 실명 위기였던 엄마 눈수술을 도와준 '거룩한 만남' 담당아나운서 최은경·이선희)에 효은(동양초등학교 5학년)양이 내온 감사의 편지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울고 웃으 그들의 등불이 되온지 9년. 12 로 4백회 생일을 맞은 불교방송 장수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에 이처럼 감동어린 사연이 가득하

98년 7월17일(367회)에 방송됐던 진희 어린이. 당시 다섯 살이던 희는 연골무형성증이란 병을 얻 성장이 멈춘 상태로 치료를 받 야 했으나 치료비가 없어 발만 동 구르고 있었다. 하지만 '거룩 만남'을 통해 사정을 얘기하자 청취자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성장해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잘 자라고 있다.

전신 45%의 화상을 입고 절망속에서 살아가던 서희정씨(32). 서씨의 딱한 사정이 98년 11월20일(384회)에 전파를 타자 후원자가 속출했다. 서씨 역시 엄마가 가슴 아파할까봐 눈물을 꾹 참고 살았다는 딸 한나와 함께 행복을 되찾았다. 또 알콜 중독인 남편의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40)씨의 일화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다. 이 내용도 올 1월15일(392회)에 방송돼 현재 김씨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프로는 치료비만 후원한게 아니다. 98년 9월4일(373회)에는 당뇨병과 백내장 등 합병증으로 고생하며 노점상을 해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씨(45)에게 전세금을 보조해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어 주기도 했다.

후원을 받은 이들 못지 않게 후원자들 또한 눈물겹다. 이들 중에는 자신의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맹인, 도라지 장사를 하며 모아온 돈을 보내온 보살, 고인이 된 이모를 대신해 이모의 전 재산을 기탁한 청년 등 자신의 어려운 사정에도 부처님의 보시 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선희 아나운서는 "91년 4월5일 첫 방송 이후 24억원을 모금해 4백가구에게 후원을 해줬다"며 "얼굴없는 청취자들이 베푸는 보이지 않는 선정에 제작진이 오히려 숙연해질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거룩한 만남'은 4백회를 계기로 수술비가 부족한 이들 외에도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 등 후원의 대상을 넓혀 좌절과 절망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가 한줄기 빛이 돼주는 아름다운 만남을 계속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⑧



정 태 혁 〈동방불교대학장〉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부처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법입니다. 마음만 닦는 것은 절름발이 수행입니다."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78·동국대명예교수)은 40여년 동안 아침마다 요가를 해왔다. 61년 일본 도쿄대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공부할 즈음에 요가를 배운 정 학장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요가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했다. 동국대에 출강하면서도 20여년간 탑골공원, 종로5가, 광화문, 강남아파트 인근에 요가도장을 열고 사람들을 지도해 왔다. 새벽반, 저녁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본업인 학문활동에 지장이 많아져 부득이 중단할 때까지 요가 보급에 큰 공헌을 했다.

마음과 몸은 함께 닦아야
40년 동안 아침마다 요가

하지만 이후에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요가, 1시간 참선으로 건강은 물론 수행에 한 시도 나태한 적이 없다. 지금의 그의 정신적 풍요와 건전한 몸은 하루도 거르지 않은 요가와 참선 덕분이다.

"불교의 선은 원래 인도의 전통사상인 요가에서 기원했습니다. 중국 선종의 창시자인 달마대사 역시 마음 한 번 바꾸면 번뇌 즉 보리(菩提)임을 강조하는 '전심(轉心) 요가'의 달인이셨죠."

요가는 마음을 완전히 고요한 상태(寂靜)에 이르게 해 자의식이 없는 무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나아가 몸과 마음을 용광로 속의 도자기처럼 단련시켜 생사에서 해탈케 한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요가는 수행의 큰 방편이기도 하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의 아담한 전원주택에서 명상과 저술활동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는 그는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출·퇴근 길도 명상의 소재가 될 정도다.

인도철학과 밀교학의 권위자로서 36권의 방대한 저서를 출간한 그는 물리학의 통일장이론에 비견되는 불교사상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왕성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정 학장은 연꽃마을 노인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노인들의 건강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정을 얻고 건전한 몸을 유지해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파라미타 등 서울시 위탁사업 신청서 탈락

교계 청소년사업 질 높여야

인력·재정확충 절실

교계 청소년 단체들이 사업 위탁에 예년과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단체들은 프로그램 개발, 조직 강화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에서 공모한 '99년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단체'에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정련스님, 이하 파라미타)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이하 청교련) 등이 5개 부문에 응모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이번 공모에는 YMCA, 한국청소년연맹등 32개 단체들이 94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중에서 파라미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99년도 청소년 겨울캠프 △유해환경감시단 교육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등 4개 사업으로, 청교련은 △청소년전통문화사업으로 각각 응모했다.

파라미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각 단체에서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성과 해당 프로그램을 추진할 단체의 역량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며 "교계 청소년단체들이 모두 탈락한 것은 타 단체와 비교해 프로그램의 질과 대사회적 공신력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된 단체들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서울연맹, YMCA 서울기독교청년회 등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 인력과 재정 능력을 갖춘 단체들이다.



◇파라미타에서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위탁해 실시한 '98 청소년 겨울캠프' 현장.

반면 교계 청소년 단체들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에만 매력을 느끼고 사업 위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체 스스로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올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파라미타의 경우 이번 공모에서 마저 탈락함에 따라 99년도 청소년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달현 청교련 사무국장은 "교계 청소년단체에서 시·도의 위탁 사업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체의 인력·재정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교련 인천지부에서 결성한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실천모임' 제1차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은 "전화음성사서함이 10대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폰팅 음란광고 추방 결의

인천청교련·사암련 19일 공청회

지역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교계 청소년단체가 나서 주목된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이하 청교련)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실천모임'(이하 실천모임)을 결성, 4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청교련 인천지부가 결성한 실천모임에는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고임 인천지부' '인천사암연합회' '인천 YMCA' 등 19개 시민·청소년·종교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단체들은 "편법수단을 동원해 음란광고를 싣는 생활정보지를 수거·소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700음성사서함의 경우 사서함 내용을 녹음한 테입과 사서함 광고를 게재한 정보지를 '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 회선을 폐쇄하도록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는 19일 오후 4시 인천 시민회관에서 '전화사서함, 원조교제 그리고 청소년'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10대 매춘의 실태와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동시설 진여원

헌옷·참고서 보내주세요

불우아동들의 수용시설인 충주시 진여원(원장 법성스님)에서 교복과 참고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진여원에 살고있는 청소년 중에서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모두 7명. 이들의 교복값만 약 1백만원. 그러나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학비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진여원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거금이다.

법성스님은 "외부 후원이나 지원이 전혀없어 갈수록 막막하다"며 "헌 교복과 참고서라도 지원해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0441)851-6013

단 신

청소년 환경감시단 발족

대한불교청교련 공주지부(지부장 환성스님)는 3월말 공주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을 발족한다.

감시단은 학내외 폭력을 근절하고, 방과 후 건전한 문화활동을 청소년들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공주지부는 감시단 발족을 위해 이미 공주지역 28개 중·고등학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0416)858-3900

중고생 자원봉사자 교육

대한불교청교련 보령지부(지부장 정운스님) 21일 오후 2시 '보령 여성의 집'에서 관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한다.

보령지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시키고, 지부 산하 청소년 댄스·영화 동아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0452)936-3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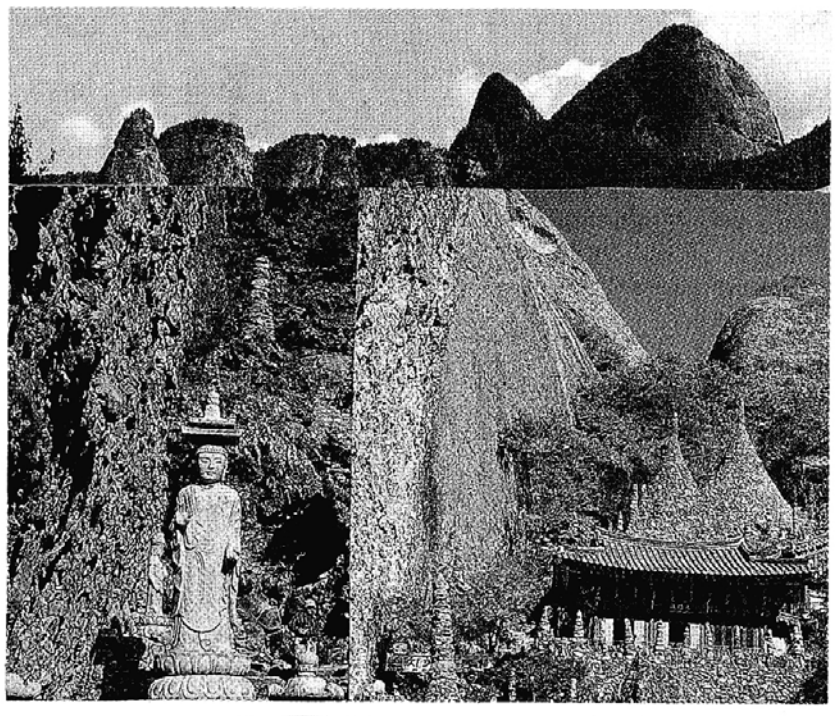
서울 대불청 의장 최윤선씨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박찬웅)는 제1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갖고 대의원 의장에 최윤선씨를 선출했다.

대불청 서울지구는 이와함께 △조직 정비 및 확대 △홍보매체를 통한 서울지구 홍보 강화 △각 지회의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군포교 활성화 등 99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 결혼 연구원
이영숙 원장입니다.

온누리에 두루하신 부처님!
1999년 21세기를 향해
떠오르는 밝은 아침입니다.

성원해주신 은혜에 더 큰
목표를 세우고 영등포에서
98년 12월 27일 종로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이상적인 만남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서서영어사 뒤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대달마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기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아)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물.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물.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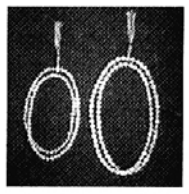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용 도 : 액지용
크 기 :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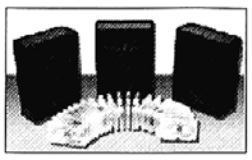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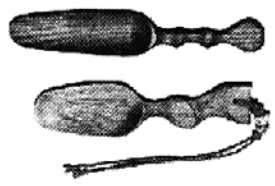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가격 : ₩ 15,000(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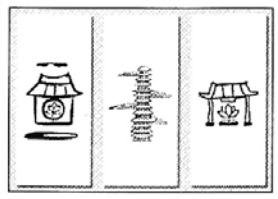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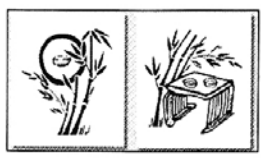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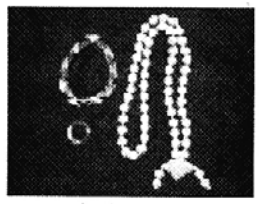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수암옥 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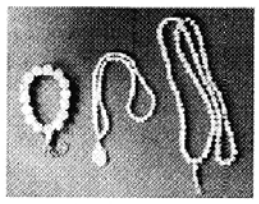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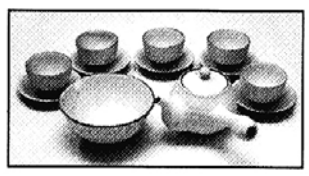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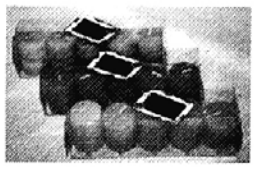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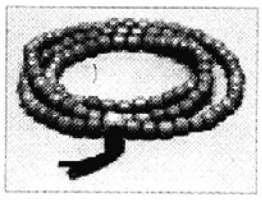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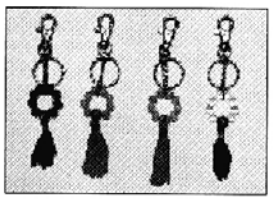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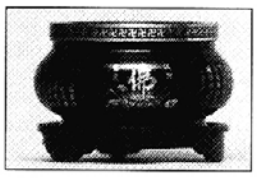
색상 :금색, 검정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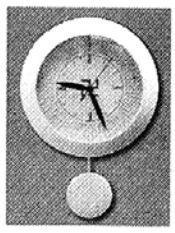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기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규격 :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규격 : 39㎝×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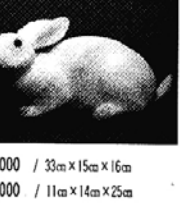
가격
₩ 5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600,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사군자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장
타블로이드 판 / 253쪽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9-025009
· 의장등록 :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영인스님 예불 · 천수경

가격 ₩ 9,500 (CD)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날 개

가격 ₩ 9,500 (CD)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珍珠佛像 및 動物像

관음상(中) ₩ 1,146,000 /15㎝×11㎝×39㎝
관음상(小) ₩ 836,000 /13㎝×7㎝×30㎝

소(大) ₩ 594,000 / 38㎝×12㎝×20㎝
소(中) ₩ 458,000 / 30㎝×10㎝×15㎝

돼지 ₩ 606,000 / 35㎝×12㎝×21㎝

상품설명
1)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2)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4) 진주 채취기간 : 4~8년

호랑이(大) ₩ 1,215,000 / 70㎝×20㎝×45㎝
호랑이(中) ₩ 472,000 / 45㎝×23㎝×15㎝

사슴(大) ₩ 634,000 / 50㎝×20㎝×22㎝
사슴(中) ₩ 476,000 / 31㎝×20㎝×22㎝
사슴(小) ₩ 282,000 / 18㎝×7㎝×22㎝

말(大) ₩ 620,000 / 35㎝×11㎝×36㎝
말(中) ₩ 440,000 / 25㎝×9㎝×26㎝

토끼(大) ₩ 486,000 / 33㎝×15㎝×16㎝
토끼(中) ₩ 418,000 / 11㎝×14㎝×25㎝

지상갤러리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룻데미술관)

1

3

2

4

5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21일 오전 10시 30분 불광사 금하당 광덕대선사 추모법회. (02)413-6060



우룡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4월 4일~9일 오후 4시 대전 보현문화회관 〈서장〉 특별 대법회. (042)624-6555



성운스님 (삼천사 주지) 24일, 4월 28일, 5월 26일 오후 2시 다보법회. (02)703-0108



일연스님 (동학사 강주)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유마경〉 법회. (042)825-2570

대운스님(지장선원 원장)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수요사경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일요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일요일 오전 8시 주말참선법회. (0351)63-188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3월17일 (수)

■세무사·국세청불자회 합동법회=세무사·국세청불자회는 저녁 7시 봉은사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02)407-9795

3월20일 (토)

■대흥사·백련사·무위사 순례=터사랑은 21일까지 두륜산 대흥사, 백련사, 무위사로 남도기행을 떠난다. (02)722-9747

■한빛은행불자회 창립법회=한빛은행불자회는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빛은행 본사 5층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02)553-1801

■초발심자경문 운독법회=한국스카우트불자회는 오후 3시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15층에서 초발심자경문 운독법회를 연다. (02)2292-8502

■우리는선우 박광서교수 토요법회=오후 3시 우리는선우 토요법회에서 우리는선우 공동대표인 박광서교수가 법문한다. (02)2278-8672

3월21일 (일)

■강화도 도요새 서식지 생태기행=오전 8시 맑고향기롭게는 강화도 여차리 도요새 서식지로 제14회 생태기행을 떠난다. 오전 8시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앞에서 출발한다. (02)741-4697

■황소부대 보통정사 대웅전 완공 회향법회=황소부대 보통정사는 오후 1시 청평사 주지 청화스님을 초청, 대웅전 완공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017)370-6110

■직지사·갈항사터 참배=부산불교교육원은 사명대사의 숨결이 서려있는 김천 직지사와 신라시대 석조석가여래좌상이 있는 갈항사터 등지로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오전 8시 부산불교교육원 앞에서 출발한다. (051)466-4080

■금강메아리 월악산 시산재=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충북 제천 월악산 만수봉 정상에서 99년도 시산재를 지낸다. 오전 7시 동대문 이스턴호텔에서 출발한다. (02)772-9517 윤부윤

3월23일 (화)

■화엄사·천은사 순례=국토문화연구회는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천은사 등지를 순례한다.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2261-1313

3월24일 (수)

■팔공산 거조암 오백나한 기도법회=용진신행회는 팔공산 거조암으로 오백나한 기도법회를 떠난다. 오전 6시에 출발한다. (02)2279-1191

25일 출가일·4월1일 열반절 기념

고승초청·참회법회 잇달아

25일 부처님 출가일과 4월 1일 열반절을 앞두고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불자로 거듭나기 위한 법회가 전국 사찰에서 마련된다.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28일 오전 11시 가족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치매진상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주제의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25일~4월 1일 오전 10시 참선수행법회를 실시하고, 25일 오후 8시 수계법회를 진행한다. (02)539-2631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는 부처님 출가절을 스님의 날로 정해 스님공경의 뜻을 새긴다. 올해는 전 태안사 조실 청화스님을 초청해 수계식과 스님의 날 법회를 봉행하고, 가수 장사익씨의 광덕스님 추모 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0334)676-8700

대구 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25일~4월 1일까지 8일간 매일 오전 11시 불교대구교육원에서 고승초청 팔상성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법회에는 보광원 조실 화산스님을 비롯 원명, 일진, 무관스님 등이 법문한다. (053)763-9824

봉은사(주지 원혜)는 25일부터 출가열반절 8일 정진기도를 진행한다. 매일 아침 10시 정진기도와 108참회, 저녁 7시~9시에는 특별좌선법회를 연다. (02)516-5652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출가재일을 맞아 송광사와 선암사로 사찰순례기도를 떠난다. (02)932-2333 이밖에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출가절과 열반절을 되새기는 정진기도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고경스님 53주기 추모재

제10교구본사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13일 '고경스님 제5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오대산 일대서 방생법회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주지 법조)는 19일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 일대서 방생법회를 실시한다.

봉선사 종회의원 보선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는 25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는 전 종회의원 일면스님(불암사 주지)이 조계종 교육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 된 중앙종회 교구직선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태고종

동방대 99학년도 입학식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6일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51명의 신입생이 자리한 가운데 99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법계고시 2백51명 합격

법계고시위원회(위원장 철화)는 10일 지난 1월 실시됐던 법계고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법계고시에서는 대종사 13명, 종사 34명, 종덕 71명, 대덕 58명, 중덕 48명, 대선 27명 등 2백51명이 최종 합격했다.

백진결사 창립3돌 행사

소장파 승려들의 모임 백진결사(회장 일로)는 26일 오후 5시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총회를 연다. 총회에서는 올해 추진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각종

격주간 '밀교신문' 발행

유지재단(이사장 성초 통리원장)은 월간 진각종보를 15일자부터 〈밀교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해 발행했다. 밀교신문은 매월 1일과 15일 격주간으로 발행된다.

밀교문화대 1기생 입학식

진각대학(학장 석봉)은 10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서울



교구 밀교문화대학 제1기 교육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밀교문화대학 포교사 교육은 2년 과정으로 진각종학, 밀교학, 불교일반교리, 종교사상, 포교론, 불교사회복지론 등 포교에 필요한 기본과목이 진행된다.

관음종

종정추대위 발족준비

총무원(원장 홍파)은 13일 천안 보명사에서 확대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종정추대위원회 발족 준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지종

노인·실직자에 무료급식

서울 성북구 미아리에 위치한 실지사(주교 선도원 전수)는 18일 탑골공원에서 무위탁노인 및 실직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무료 급식을 실시한다.

총화종

중앙종회 30일로 연기

애초 23일 개최 예정이었던 정기 중앙종회가 30일로 연기됐다. 시간과 장소는 종전대로 오전 11시 남양주 수진사. 이날 종회에서는 98년 결산 및 사업보고, 99년 예산안과 신년사업계획 등이 논의된다.

원융종

창종 18주년 기념법회

총무원(원장 법륜)은 12일 원융사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26일 원융사에서 창종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법사종

포교사·전법사 연수교육

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는 21일 오전 10시 금강원 법당에서 포교사 및 전법사, 법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신행실수 실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02)395-2571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인사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진오스님 △교학국장 선광스님 △총무국장 현법스님 △기획실장 원종스님 △보육교사교육원 교학실장 청화스님

♣ 알림

△무료탁아방=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 탁아방을 운영한다. 만 3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급식은 직접 지참해야 한다. (02)571-2988

♣ 강좌

△어록좌선·건강반=보조사상연구원 목우회는 어록좌선반·좌선과건강반 등 목우교양강좌를 실시한다. 4월 첫주에 개강한다. (02)733-5335

△기초교리=조계사는 3개월 과정의 기초교리강좌를 개설했다. 매주 목요일~금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개강은 5월 6일. (02)720-1390

△치매예방 색종이접기=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무료 색종이 접기 교실을 매주 수요일 낮 12시30분에 연다. 선착순 15명. (02)817-8054

△사경 및 서예 사군자=한국불교예술문화원은 매주 화요일 반야심경 사경과 달마대사 그림, 서예, 사군자를 지도한다. (02)2242-0331

△신흥사불교교양대학=신흥사는 28일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한다. 강의는 속초시 원각사에서 진행한다. (0342)635-0107

△자원봉사 시민대학=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제9회 자원봉사 시민대학을 개강한다. 자비수지침, 원왕생교육, 불교호스피스, 이미용, 발반사요법, 간병인교육 등이 진행된다. (02)723-6258

♣ 모집

△교리·수행교실 수강생=근본불교학교는 교리교실, 수행교실, 불교사교실 등 강좌수강생을 20일까지 모집한다. (051)505-8396

△이미용자원봉사자=두송복지관은 지역 영세민과 거동불편 대상 가정에 무료 이미용 봉사를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단기보호소 이용노인=인덕노인복지회관에서는 치매로 보호가 필요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보호소 이용노인을 모집한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저소득층은 실비 부담. (02)385-8205

△성인자원봉사자=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동아리 지도, 정신지체인적응훈련지도, 물리치료실 보조 등 성인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밑반찬후원=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편부세대를 위한 밑반찬지원서비스 후원자를 모집한다. 1구좌 5천원 현금후원과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접수하면 된다. (053)476-7700

△불교사진연합회 회원=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사진을 좋아하는 남여 불자회원을 모집한다. 연령제한 없고, 초보자도 환영한다. (02)2266-0302

♣ 구인

△과학교실 지도교사=덕유종합사회복지관은 과학교실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관련학과 졸업자 및 과학교실 지도경험자를 우대한다. (032)325-2161

△아동 피아노 강사=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 피아노 강사를 모집한다. 피아노 전공자여야 한다. (02)817-8052

♣ 화촉

△도서출판 교림 서우담 사장의 차녀 연경양이 20일 오후 1시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송송훈군과 화촉을 밝힌다.

△조계종 종회사무처 공승관 사무주임이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목화웨딩홀 1층 목화실에서 최인선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이전

△법보신문사는 최근 사옥을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5·6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02)725-7014

△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수송빌딩 4층에 사무실을 개원한다. (02)720-0218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백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용주사 수원포교당 문화법회로 이색포교

시민 겨냥 음악·영화·연극감상 도입
1천5백명 수용 불교문화원 5월 개원



◇"21세기 포교는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며 문화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관스님.

'법회시간에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본다'.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이 색다른 포교를 펼친다. 일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는 노래부르기, 영화보기, 연극하기, 국악기 연주하기 등을 법회에 적용하기로 한 것. 삼귀의, 찬불가를 부르고 참선을 한 다음 청법가에 이어 법문을 듣고 각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정형화된 법회. 불교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성관스님은 사찰을 처음 찾았다는 한 시민으로부터 "왜 이렇게 법회가 딱딱하고 지루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때부터 성관스님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다 문화법회가 비불자 포교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됐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법회를 실시하기로 결심했다.

이 일환으로 성관스님은 지난 92년 불교문화원을 기공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불교문화원 3층부터 5층을 한 공간으로 하는 극장식 법당인 만불보전이 조성됐다. 1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불보전은 연극공연, 영화상영, 시청각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무대, 조명, 음향 등 최신 공연시설을 갖추었다. 5월초 불교문화원이 개관되면 스님의 원력이 하나씩 펼쳐지게 된다. 시초가 바로 문화법회.

성관스님은 "대중들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법회 주제 선정에 삼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매주 한가지 주제를 선정해 일요법회를 문화법회로 전환해 시민과 불자가 하나가 되는 도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요법회는 특정계층에 한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를위해 스님은 불자, 비불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문화법회 프로그램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법회는 의식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불자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원문까지도 주제에 맞게 틀을 바꾸고 법회 동참자들이 참석자가 아니라 함께 진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관스님은 "제대로 된 포교 자료조차 없는 실정속에서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흥미있게 불법을 가르쳐야 할 지 고민해 왔고, 지금도 고민중이다. 문화법회가 정착되면 앞으로 사찰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밀레니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할 것이다"며 "21세기 포교는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본원정사 대적광전



◇화마의 아픔을 딛고 중창된 본원정사는 4월경 30여래 4보살 봉불식을 갖는다.

방화 상처 딛고 2년만에 복원

서울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쉼터로 각광 받고 있는 북한산. 이곳에 위치한 사찰들은 크고 작은 이교도들의 훼불로 인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야만 했다.

강북구 수유동 본원정사(주지 원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96년 5월 22일 삼성암, 화계사와 함께 연쇄 방화사건으로 대웅전과 나한전이 전소됐다. 그러나 주지 원성스님의 원력으로 화마의 아픔을 딛고 2년만에 법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車 팔고 호주머니 털어 불사
요사채·어린이 집도 추진

원성스님은 "불자들의 신심으로 건립된 불사가 완공도 못하고 한순간에 재로 날려 보내고 나니 허탈해 불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몇년간 준비를 해도 어려운 것이 불사인데 막상 또다시 시작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났다"고 회고했다.

본원정사는 방화사건 발생후 꼭 1년만에 불사에 착수했다. 이교도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승용차를 팔고, 호주머니를 털어 3천여만원을 마련해 불사를 시작한 것이다.

"물론 나중에 돈을 모아 여법하게 불사를 하자는 불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것 같아 평생불사라 생각하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불사는 지난해 건평 1백20평의 대적광전 건축불사를 완료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개최했다. 2년이 된 지금 본원정사는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원력으로 4월중에 3여래 4보살을 모시는 봉불식을 개최한다.

본원정사는 대적광전 불사이외도 10년 불사로 약사여래 노천불, 종각, 요사채, 어린이집등 복지시설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지 원성스님은 본원정사를 스님들의 전법 및 포교를 위한 기초교육 전문도량으로 조성한다는 원력도 세우고 있다.

스님은 "승가대학이나 강원등을 수료해도 포교는 고사하고 설법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승가의 현주소다"며 "이같은 교육부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교의 현장에서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는 철저한 기초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원정사는 요사채를 건립,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를 비롯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젊은 학인스님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방사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군사구역해제 탄원
남양주 봉영사 국방부에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8일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와 2군지사에 발송했다. <본지 212호 23면 참조>

봉영사는 탄원서에서 "제반시설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적 특색과 역사적 연혁, 공공시설적인 측면을 참조해 군사시설보호법으로부터 풀어주기를 청한다"고 밝혔다.

봉영사는 정부종합청사민원실, 감사원, 국회국방위, 시민단체와 법적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중근 기자

헌혈 봉사단 모집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백혈병과 재생불량빈혈 및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혈액공여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일부터 자비헌혈봉사단을 모집한다.

생명나눔회는 앞으로는 상시 헌혈자를 모집해 봉사와 자비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을 창립키로 했다. 자비헌혈봉사단은 수술시나 항암치료, 골수이식 후 급히 구하기 어려운 혈소판 수혈을 대비해 이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02)734-8050

한편 생명나눔회는 18일 서울 삼천사, 21일 철원 심원사에서 잇달아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고종도 종무전산화 착수
4단계 걸쳐 홈페이지·네트워크·DB 등 구축

태고종이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에 이어 올해를 '종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종무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차 사업은 오는 6월말까지 종무프로그램을 개발, 총무원 재정 등 재무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방 종무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종단 홍보 등은 2차사업. 홈페이지에는 태고종단의 홍보자료와 각종 불교 관련 자료, 종단활동상황, 종단 산하 각 사찰의 위치와 연혁, 문화재 보유 현황, 법회현황 등이 소개된다. 또 태고종은 3, 4차 사업으로 마그네틱 신도카드 개발·보급, 각종 문서와 종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동국대, 창업보육센터로 선정
문화·생명공학·정보통신산업 중점 육성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2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보육센터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캠퍼스는 문화예술을, 경주캠퍼스는 문화, 생명공학, 정보통신분야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경주캠퍼스는 경주시와 연계해 문화테크노파크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첫해인 올해 대학자체예산 3억원과 시비 1억원, 중소기업청 지원금 1억9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부터 5년간 입주기업 운영비로 매년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경주시로부터 별도로 받게 된다.

산학관 협동체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창업으로 연계시킴으로서 고부가가치의 관광문화, 생명공학,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이운호 기자
(yhlee@buddhapia.com)

8년째 불우노인 국수공양
부산 대각사 청년회 하루 8백그릇씩



◇대각사 청년회원들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용두산 공원에서 노인및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공양을 실시한다.

청보리들이 8년째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국수공양을 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대각사 청년회(회장 서현수) 회원들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대각사 청년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용두산 공원을 찾는다. 철야정진을 마친 회원들은 아침일찍부터 국수를 삶고 구수한 국물을 우려낸 후 용두산 공원을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국수공양을 올린다.

지난해부터는 실직자들까지 늘어나 3~4백그릇으로 충당해 오던 국수분량이 8백그릇으로 경충 늘어났다. 비용이나 일의 고됨보다는 세상이 어려워진 것을 실감나게 하는 국수 그릇수가 청년회원들을 더욱 옷깃을 여미게 한다. 그러나 대각사 청년회원들은 멈추지 않는 정진으로 추운 겨울동안 잠시 중단됐던 국수공양을 봄내음속에 다시 시작한다. 올들어 처음 실시하는 국수공양일은 28일, 이날 국수공양은 특별하게 준비된다. 14일 약관의 나이를 기념하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서현수 회장은 "한끼 국수공양과 마음까지 채워주는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시간으로 꾸며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니르바나합창단은 이날 '신달타의 햇빛' 등 5곡의 선법가를 선사하게 되며 사물놀이팀은 용두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힘겨움속에서 베푼 대각사 청년회의 자비행은 한국자원봉사축제에서 상을 받아 불교 청년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올한해 청년회 주축으로 학생회, 어린이회의 연계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청년회 활동을 구상중인 대각사 청년회는 불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갈 청년법우를 기다리고 있다. (051)245-8781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99학년도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년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학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학년	1학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학기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범패의식 특강 (동·하계 스쿨링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옥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교수)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1.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산 11번지

위치적 장점
1. 산세가 수려하고 푸른 숲과 맑은 공기
1. 약수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환경
1. 시내 중심지에 위치, 편리한 교통
1. 마을과 떨어져 있어 한적함
1. 종합병원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5분 거리내에 있음.

2. 대 지 : 6,940평
3. 중교시설 : 106평 〈대웅전은 조립만 하면 됨〉
4. 실버타운 : 829평 〈현재공사 진행 40%〉
5. 구광사 정득스님께서 보살도의 원력으로 불사에 동참하실 뜻있는 투자자를 모십니다.

☎ 051)242-6993 / 016)580-8125

2천만의 깨달음을
참선 행으로 이끄는 신행회 길잡이~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보문동 '아침을 여는 집' 실직 노숙자들 불우이웃에 지붕수리등 집단장 봉사

"아픔도 나누면 기쁨돼요"

13일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허름한 주택.

전직 도배·보일러 기술자와 전기 기사 등 3명의 실직노숙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곰팡이가 쓴 단칸방과 부엌을 정성스레 손질하고 있다. 얽힌 전기선을 정리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방 부위는 시멘트로 바르고 지붕도 수리했다. 구멍난 문짝도 말끔히 고치고, 도배도 새로 했다. 가끔 고장나는 기름 보일러도 손을 봤다.

97년 말 IMF 관리체제의 여파로 실직해 한시 자활 대상자가 된 이몽룡씨와 그 가족들은 미안한 마음에 분주하게 돕는다. 작업 중간의 새참시간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막걸리와 빈대떡을 나누며 다정한 대화가 오간다. 돕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실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기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덕담들이 이어진다.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이 운영하는 실직자구호 자활모임터인 보문동 아침을여는집에 입소한 18명의 실직자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들 입소자들은 성북구 지역 무의탁노인, 실직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의 궁핍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도배, 보색, 간단한 개·보수 등 집단장 봉사를 13일부터 시작했다.

1차로 4월10일까지 매주 토요일 네 차례 실시되는 이 자원봉사의 수혜자들은 실직가정으로 단칸방에 살고 있는 이몽룡씨와 거택보호자인 노귀동·임대규 할아버지, 이귀분 할머니 등 4명. 한 가구당 20여만원이 소요되는 재원은 아직 후원자가 없어 어렵게 마련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실직노숙자 스스로의 자활의식을 고양시킴은 물론 지역사회에 실직노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서의 동병상련의 유대감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침을여는집 이주원 간사는 "이번 봉사활동의 성과가 좋을 경우 구청과 협의해 실직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첫날 자원봉사에 나선 한 입소자는 "작은 일이지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을 헤쳐나갈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02)924-101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창립'

27일 조계사서 총회

불교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재가연대(창립준비위원장 서돈각) 창립총회및 기념심포지엄이 27~28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다.

27일 오후 6시에 열릴 창립총회에는 5백여명의 재가불자가 참가하여 정관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및 예산승인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어 28일 오후1시부터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윤세원교수가 진행하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은 이중포 전남대교수가 '98년 조계종사태와 부처님 출가의 의의' 최연 대불련동문회 사무총장이 '재가연대의 조직과 활동방향' 등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윤원철교수(서울대) 성재도원장(부산불교교육원) 윤남진계장(조계종포교원) 손혁재사무처장(참여연대)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 서돈각창립준비위원장은 "종단사태의 와중에서 전국의 지도급 재가불자들이 힘을 모아 종단바로세우기 운동을 펼치면서 조직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한국불교가 상식적이고 청정한 교단이 되도록 재가불자의 뜻과 힘을 모으겠다"는 창립취지를 밝혔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새 포교사 품수

조계종 신규 포교사 품수식이 7일 오전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포교사고시 합격자 257명 가운데 238명이 참석, 포교원장 정련스님으로부터 포교사증을 수여받았다.

이날 품수식은 예년과 달리 1박2일의 일정으로 오리엔테이션과 품수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자 사후화장 찬성 타종교인 보다 낮아

생활개혁협 1천명 설문

불교 전통 장례의식인 다비의식(화장제)이 일반 재가 신도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가 지난해 10월12일부터 3일동안 전국 성인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불교 신자들의 화장선호도는 천주교(70.1%) 개신교(61.2%) 무교(66.1%)는 물론 전체 평균 화장선호도인 65.2% 보다 오히려 낮은 61.2%(기타종교는 47.4%)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후에 화장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5.2로 이는 지난 94년 조사에서 50.1에 불과했던 화장찬성률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난 수치여서 그동안 화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종교적 이유로 매장을 선호해온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의 화장찬성률이 69.3%와 70.6%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 화장문화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폭넓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재경 기자

대불련출신 의사 30여명 '선재의료회' 창립

한의과·내과등 7개팀 매주 의료봉사

대불련출신 의사들이 무료 인술봉사를 펼치기 위해 선재의료회를 창립했다.

5일 3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회장에 강경구(49, 강경구내과원장), 고문에 양재수씨(양재수이비인후과원장)을 선출했다. 선재의료회는 매주 교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키로 하고, 1차로 28일 혜명양로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경구회장은 "종교의 기능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재의료회는 한의과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등 7개과를 팀으로 나눠 의료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으며 불자간호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특히 선재의료회는 앞으로 대불련출신 의사들을 규합하여 산부인과 피부과등의 의료팀 구성과 전국조직화를 기할 계획이며, 의료봉사가 필요한 전국 각지 불교 사회복지시설의 접수를 수시로 받고 있다. 문의 (02)573-7406, 518-0845

한편 선재의료회는 선재마을에서 법회활동을 해오던 의사들이 중심이 돼 창립했으며, 부른벌 의료팀 간사에는 내과에 강경구, 외과 노만수, 치과 김광수, 소아과 이종린, 한의과 김경현씨가 맡았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실업극복지원사업 조계종 올해도 적극 전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일 재단 강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실업극복지원사업은 실업극복국민운동 등 민간단체의 지원 확대로 늘어난 예산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실업극복 지원사업에는 7천5백여만원의 소요되는 결식아동지원사업과 불교계 푸드뱅크 설립 및 무료급식사업(5천만원 추경예산 반영예정), 1억2백만원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우리가 남인가' 사업, 정부로부터 4억3천여만원이 지원되는 3개 보현의집 운영 등이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통도사 배밭절 철거 '갈등확대'

통도사(주지 월파) 내 배밭절이 9일 철거돼 통도사측과 청하스님 상좌들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통도사측은 "배밭 관리를 위한 농막이었던 배밭절이 말썽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어 철거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밭절 신도와 청하스님측 스님들은 총무원의 관심과 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8일 통도사 중진스님들은 성파(서운암 주지) 원명(비로암 주지) 태응(관음암 주지)스님 등 7명의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초우)를 구성하고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뉴스 & 뉴스

제주 관음클럽 장학회 설립

제주불교여성관음클럽(회장 김정자)이 '관음 장학회'를 설립하고 첫 사업으로 24일 남녕고와 제주공고 남녀 1명씩 4명에게 각 50만원씩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들에게 학비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설립된 관음장학회는 매년 인문고와 실업고 각 1개교씩 2개교를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삼광사 한글학교 입학식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8일 지관전에서 제8회 삼광한글학교 입학식을 거행했다.

삼광한글학교 교장 덕수스님은 "초발심시변정각의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글인 한글을 배우길 바라며 정진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5일 지관전에서 열린 제1회 삼광한문학당 입학식에서 2백83명의 신입생들이 입학했다. 천미희 기자

"불교TV 경영진 퇴진해야"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권한대행 김춘길)은 10일 불교텔레비전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성명서에서 "불교TV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영진과 책임자의 퇴진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불교TV 정상화 노력과 불자들의 호응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비구전용 기숙사 기공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부총장 김갑주)는 15일 재학생 비구스님 전용 기숙사인 석림원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3월 완공예정인 석림원은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건평 1백59평 연건평 3백67평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된다. 석림원에는 인법당을 비롯 방사 23개와 도서실, 휴게실, 세면실 등을 갖추게 된다. 배선욱 명예기자

남현·덕수스님 멸빈

조계종 초심호계원 결의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등걸)는 9일 제19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해종특위가 제소한 해종행위 조사대상자 25명에 대한 징계를 결의했다. 초심호계원은 남현, 덕수스님에 대해서는 멸빈, 현수스님등 3명은 제적, 광석스님등 20명에게 공권정지 2년에서 10년까지를 결의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고산·월주스님 징계

정화회의 초심호계위

정화회의 호계원(원장 상덕)은 12일 초심위원회를 열어 멸빈의 징계를 결정했다.

정화회의측이 멸빈한 스님은 월주, 도법, 도영, 덕운, 지광, 명성, 종걸, 성덕, 법성, 혜산, 대원, 고산, 법등스님 등 13명이다. 정성운 기자

"정치수배자 병역 탄력운영 필요"

실천승가회·전불련등 성명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동문회, 불교장기수후원회, 불교인권위원회는 8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청년학생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해 국회와 정부 당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개 단체들은 "청년 양심수들이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병역의 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도필선 기자

성바오로병원 스님 치료비 30% 싸게

"스님, 당신도 저와 같이 수도자의 길을 가는 동반자이십니다."

가톨릭병원 부설 청량리 성바오로병원 기획실 팀장 현아렛다 수녀님이 병원을 찾은 스님에게 나즈막히 건네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신부와 수녀들에게 병원비 30%의 감면혜택을 주던 성바오로 병원이 1일부터는 스님들에게도 확대적용해 병원비를 깎아주며 수행의 도반으로 손을 잡았다. 스님들의 병원비 감면은 등산을 가 절에서 스님들에게 점심을 대접받을 때마다 불교의 자비정신에 감동받았었다는 현아렛다 수녀의 제안에 병원장 김기순 수녀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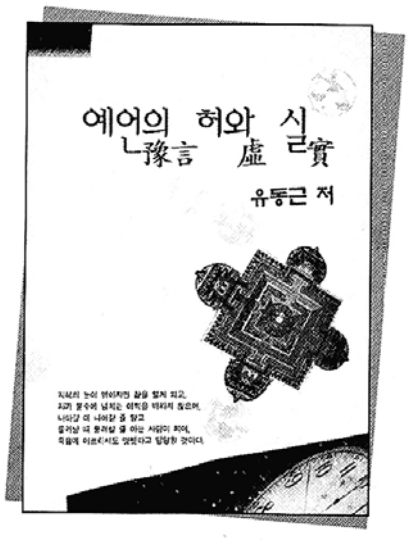
현 아렛다수녀는 "고독한 수행의 길을 가면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스님들에게 병원비 감면 혜택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현아렛다 수녀는 피부과 치료를 받고 뜻하지 않게 30%의 병원비 감면을 받은 지행스님(지장사 주지)의 주선으로 5일 고산스님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고산스님은 "성바오로 병원측의 큰 사랑에 고개를 숙인다"고 말하고 책 〈선, 깨달음의 길〉을 선물했다.

성바오로 병원은 승려증을 소지한 스님들의 병원비 30% 감면 혜택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 1부 신의 예언
◐ 2부 꿈의 예언
◐ 3부 역의 예언
◐ 4부 사주의 예언
◐ 5부 관상의 예언

읽어가며 깨치는
현오스님의 예언이야기



각 부마다 예언의 유래 및 학문적 내용을 쓰고
각 예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나아가서 각 예언에 대해 예를 들어가며
읽기 쉽게 정리하였다.

예언은 나름대로 잘 맞는다.
그렇다고 예언의 노예는 될 수 없지 않은가?
예언을 운명 개척으로 승화시킨
현오스님의 운명개척론

※ 이밖에도 현오스님의 저서에는 『미얀마 72일, 대지법요집』이 있습니다.

『예언의 허와 실』 신국판. 384쪽. 9,600원
대유학당 전화 02)2232-8383

"잃어버린 삶의 향기를 되찾는 사회복지활동은 수행 완성의 지름길입니다."

21세기 보살도 실천으로 佛國土를 이루자

불교사회복지 전문과정 통신생모집(1년과정)

우리의 참베품, 참나눔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사회, 사회와 제도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사회참여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 교 육 과 정 ·

불교사회복지론	불교사상에 나타난 복지이념을 현대사회에 적용한 사회복지방법 연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환경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인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습득
노인복지론	노인들의 심리적 이해와 서비스 개발을 통한 고령화 시대 대비
사회보장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아동 및 청소년복지론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위한 지식 습득
사회사업 통합방법론	사회복지사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관점 습득
대인관계 기술론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술 습득
가족 복지론	사회변화에 따라 약화된 가족역할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지역사회동원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습득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사회통합 지원
불교특강	불교의 생활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법
실무특강, 현장견학 및 자원봉사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실무자들이 전달

●교 수 진
보각스님(중앙승가대교수) 유동철(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익섭(연세대교수) 혜도스님(중앙승가대교수) 조성희(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이영호(한국가정새활개선진흥회) 송위지(외국어대) 이혜숙(동국대교수) 복지분야전문가
●수 강 료
통신반 학기당 280,000(교재포함) ※ 출석을 원하시는 분도 수강 가능합니다.
●접수기간 : 1999년 3월 31일까지
●기 타 : · 조계종 자원봉사단 팀장으로 활동 · 수료자가 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시 복지재단 지원
· 각종 복지정보 제공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시험시 추천 · 수료증 수여

문의 및 접수 : 02)723-5101-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신행수기 당선작 (천태종 총무원장상)

저 언덕을 향하여 ②·끝

정유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는 마침 천일기도중인 스님의 정해진 기도시간이었는데, 우리 부부는 부처님의 가피로 나타난 스님이 우리와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감격해 했다. 법당 밖을 나왔을 때 "힘들었지요?" 하시는 스님의 말씀에 어려운 결심을 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또 감격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부부가 부처님과 처음 만난 것이며 동시에 내 개종(改宗)의 첫발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한번은 예불을 마치고 법당 앞을 나오는데, 큰스님이 "보살님, 오늘은 점심공양을 하고 가시지요" 하고 우리들을 공양간으로 이끄는 통에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큰스님이 무조건 상 앞에 앉으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거절할 틈도 없이 앉아 공양을 했다. 알고보니 그 밥상이 바로 큰스님의 공양상이었다. 이런 큰 배려에 이후부터 우리들은 절에서 꼭 공양을 하게 되었다.

일요일이면 남편은 등산가고 나는 교회가는, 각각이던 생활이 항상 같이 하게 된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했다.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둘째아들이 고3이 되었다. 우리 부부는 불심이 깊지 않으면서도 자주 도선사 참회도량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발을 맞으며 열심히 절을 했다. 주위에서 열심히 절하는 내 또래 어머니들의 정성이 보였다. 부처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햇빛이 소리날 정도로 부처님을 비추었다. 부처님은 나를 자비롭게 내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하염없이 울면서 절을 했다. 그날밤 나는 황소등에 올라타는 꿈을 꾸었는데 둘째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자 나에게도 약간의 신심이 생긴 것 같았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울면서 나의 가슴 속에 맺힌 한을 부처님께 아뢴다. 그러면 부처님은 무섭지도 않고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 본다. 나는 부처님께 흠뻑 빠져버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 놀라운 가피를 받는다. 셋째아들도 망월사 관음전에서 눈물기도 한 후 꿈에 책상을 선물받고 대학에 입학하였다.

큰애는 대학생일 때 MBC의 '청년내각'이라는 프로에 출연할 기회를 얻더니 급기야 부모 모르게 제10기 MBC 개그맨으로 뽑혔다. 남편은 노발대발하였지만 나는 큰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의 다리가 망가져도 좋다고 생각하며 절하고 또 절했다. 우리 부부가 칠야기도나 새벽예불을 다녀도 아들은 전혀 몰랐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불교TV에서 '현장쇼 스타를 찾아라'라는 프로에 큰아들 성한이가 출연하게 됐다. 성한이가 8개월간 출연하는 동안 이름난 고찰과 스님들, 부처님과 보살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바뀌어 갔다. 부처님 계신 곳에서 스님들과 함께 어우러져 재미있게 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은 부처님의 가피가 없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큰애는 스님이 주었다면서 차에도 방안에도 염주를 걸었다. 이것은 '나는 불자입니다' 하는 표시이기에 나는 너무나 감사하였다.

요사이 '컬트 삼총사' 하면 젊은이들은 대개 알고 있다. 화끈한 웃음으로 포복절도할만큼 컬트삼총사의 개그 콘서트 1~5탄은 연일 매진돼 대학로에



그림 · 문병성

개그맨 된 큰아들 불교TV에 출연
방에 염주 걸때면 한없이 감사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절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남편은 보시의 방법으로 죽비·옷걸이·목탁채 등을 만들어 스님과 불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어언 4년간 해오고 있다. 죽은 나무를 정성스럽게 손질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놓으면 그 버려진 나무가 어느새 아름답고 성스러운 불구(佛具)로 변해 버린다. 퇴근할과 동시에 시작,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삼매경에 빠진 듯 죽비깎기에 몰입하던 남편은 주위의 권유로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웅진갤러리에서 나무죽비 전시회를 갖게 되었고 호평도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집 현관에는 〈금강경〉이 걸려 있다. 마루에는 〈반야심경〉이 있다. 방마다 죽비가 가득하다.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부처님의 말씀이 눈길 머무르는 곳마다 있다. 나의 방에는 부처님 사진과 성철스님 사진이 있다. 그리고 나는 현재 홍제동에 있는 현성정사에서 교온 한복을 입고 찬불가를 부른다.

노래하다 보면 간절하고 뜻깊은 내용과 아름다운 화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노래는 잘 하지 못하는데 이런 큰 가피를 받고 산다. 나는 두손을 모으며 엎드릴 때 부처님께 먼저 참회기도를 한다. "부처님이시여! 잘못한 일들을 용서하시고 제가 혜안의 눈을 뜨도록 정진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일어날 때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한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큰 애 방에서 〈금강경〉을 읽는다. 광명진언도 외운다. 세상이 험난하여 제 명에 가지못한 원혼들의 왕생극락을 빈다. 또 매번 참석하지는 못해도 토요일에는 절에 가 밤 10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 5시에 끝나는 철야정진에 참여한다. 호흡법에 맞는 절, 스트레스를 발 밑으로 내려주는 행선법, 머리를 맑게 하는 염불을 하고 나면 번뇌 가득한 나의 심신이 맑게 씻기고 기운이 샘솟는 듯하다.

내가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남편이 환갑되던 해에 남편친구 내외와 7박8일간 전국의 명찰을 순례하며 불심을 키운 일이다. 운문사의 새벽예불은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 그 자체였다. 1월 1일 새벽 3시30분 학승들의 염불소리로 그 차가운 법당 안을 달궈게 달구었던 일이며, 12월 31일 밤 전교생이 윷놀이를 했는데, 그 맑은 웃음소리와 질서정연한 모습은 지금도 나의 신행에 큰 도움을 준다. 전에 나는 길에서 비구니스님을 볼 때면 연민의 마음이 앞섰는데 운문사를 다녀온 후엔 비구니스님들이 축복의 모습으로 보인다. 남편은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윷을 만들어서 학인들에게 주겠다고 윷을 세우더니 올 봄에 정성스럽게 만든 윷과 죽비를 학장인 명성스님께 전했다.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나라에 하루빨리 불국정토가 이룩되어 사부대중이 함께 어우러져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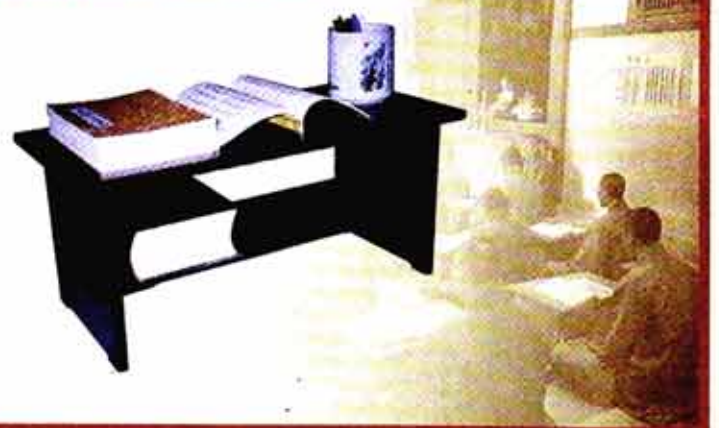
경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재질 : ASH(느릅 원목)
■규격 :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가격 :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珍珠佛像 및 動物像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과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 진주 채취기간 : 4~8년)



관음상(수) : ₩ 1,146,000 / 15cm×11cm×28cm
관음상(소) : ₩ 836,000 / 13cm×7cm×30cm



말(大) : ₩ 620,000 / 35cm×11cm×36cm
말(中) : ₩ 440,000 / 25cm×9cm×26cm



돼지 : ₩ 606,000 / 35cm×12cm×21cm



용선 : ₩ 810,000 / 51cm×12cm×21cm



호랑이(大) : ₩ 1,215,000 / 70cm×20cm×45cm
호랑이(中) : ₩ 472,000 / 45cm×23cm×15cm



불탑 : ₩ 404,000 / 12cm×12cm×39cm



토끼(大) : ₩ 486,000 / 33cm×15cm×16cm
토끼(中) : ₩ 418,000 / 11cm×14cm×25cm



거북이 : ₩ 170,000 / 17cm×15cm×18cm
용 : ₩ 440,000 / 43cm×16cm×17cm



소(大) : ₩ 594,000 / 36cm×12cm×25cm
소(中) : ₩ 458,000 / 30cm×10cm×15cm



개 : ₩ 648,000
(30cm×15cm×41cm)



닭 : ₩ 822,000
(32cm×15cm×50cm)



사슴(大) : ₩ 634,000 / 50cm×20cm×22cm
사슴(中) : ₩ 476,000 / 31cm×20cm×22cm
사슴(小) : ₩ 282,000 / 18cm×1cm×22cm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